

In Search Of HOLINESS

By Loretta A. Bernard

E David K. Bernard

• 데이비드 버나드 (David K. Bernard)

루이지아나 (Louisiana) 주(州) 베이트 루지에서 태어났지만, 선교사의 아들로 서울에서 성장했다. 그는 텍사스 (Texas) 주(州) 오스틴 (Austin) 시(市)에서 새생명 오스틴 연합 오순절 교회를 개척한 목사이며, 현재 국제 연합 오순절 교회의 편집본과 부편집장이다. 이전에 대학 교수와 교수회 임원으로 일했으며, 텍사스 주(州) Texas State Bar로부터 변호사 자격을 획득했다. 라이스 (Rice) 대학에서 차석으로 (M.C.L.) 졸업하면서 수학과 경영학사 학위를 받았고, 텍사스 대학에서 우등생으로 졸업하여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웨슬리 신학 대학에서 헬라어를 배웠다. 데이비드 버나드는 17권의 저서와 소책자를 저술하여 15개 국어로 출판되었으며, 5개 대륙 22개 나라에 선교하고 있다. 그는 종교 명사록 (Who's Who in Religion)과 미국 저술가, 편집인, 시인 명사록 (Who's Who in U.S. Writers, Editors and Poets)에 실린 인물이다. 그는 부인 코니 (Connie)와의 사이에 세 명의 자녀 (조나단, 다니엘, 린시)를 두고 있다.

• 데이비드 버나드의 저작

도서 (圖書)

1. 하나님의 유일성 (The Oneness of God)
2. 신생 (新生) (The New Birth)
3. 성결을 찾아서 (In Search of Holiness)
-Loretta Bernard 공저 (共著)-
4. 실천적인 성결생활 (Practical holiness)
5. 기본 교리 편람 (便覽) (Handbook of Basic Doctrine)
6. 필수 성경 교리집 (소책자)
7. 유일신 신학의 정수 (精髓) (소책자)
8. 신생 (新生)의 정수 (精髓) (소책자)
9. 신생 (新生)의 정수 (精髓) (소책자) - 스페인어판
10. 성결 (聖潔)의 정수 (精髓) (소책자)
11. 신생 (新生) 스터디 (Study) 가이드 (Guide)
-Neil Stegall 공저 (共著)-
12. 하나님의 유일성 스터디 (Study) 가이드 (Guide)
-Neil Stegall 공저 (共著)-
13. 로마서 강해
14. 골로새서, 빌레몬서 강해
15. 유일신과 삼위일체, A.D. 100-300

테이프 (Tape)

1. 성결 (聖潔)에 관한 세미나
2. 유일신 부흥에 관하여
3. 로마서 하이라이트 (Highlights)

성결을 찾아서

데이빗 버나드 · L.A. 버나드

목 차

■ 저자 소개

■ 저자 서문

1. 거룩함이란 무엇인가?	13
2.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생활	29
3.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세	41
4. 혀 : 길들여 지지 않는 지체	61
5. 눈 : 온 몸의 등불	79
6. 성경적인 장신구와 옷차림	91
7. 머리에 관한 성경의 진리	111
8. 하나님의 성전	127
9. 성적인 관계들	143
10. 피흘림을 피함	161
11. 정직함과 성실함	169
12. 교회 안에서의 권위와 조직	183
13. 교제와 연합	207
14. 경배, 감정과 음악	221
15. 오늘날의 세상적인 것들	235
16. 거룩한 삶에 대한 실제적인 힌트들	249

우리의 조카이며 사촌인, 24세에 찾아온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그로 이 진리의 선포를 멈추게한 토마스 미첼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양심과 경건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때까지 지키는 모든 젊은 사역자들에게 이 책을 드린다.

David K. Benard

서 적 :

- 성경의 기본적인 교리들(소책자)
- 경건함의 원칙들(소책자)
- 중생의 원칙들(소책자)
- 유일신 교리의 원칙들(소책자)
- 하나님의 무오한 말씀
- 기본적 가르침에 관한 지침서
- 성결을 찾아서
- 예수의 이름으로
- 골로세서, 빌레몬서의 가르침
- 로마서의 가르침
- 거듭남
- 유일신사상과 삼위일체, 주후 100-300
- 하나님의 유일성
- 실제적인 성결 ; 두 번째 고찰
- 거듭남에 관한 성경공부 자료
- 하나님의 유일성에 관한 성경공부 자료
- 4세기의 삼위일체 논쟁
- 예수 ; 유일하신 하나님

테이프 시리즈 :

- 성결 세미나
- 유일신사상의 부활
- 로마서의 절정

저자의 서문

성결을 찾아서 : 이 책은 오늘날을 위한 실제적인 지침으로 한국 서울의 연합 오순절 교회에서 한 학기동안 실제적인 성결에 관해서 가르친 경험과 또 북미 아시아에서의 경험들의 소산이다. 우리는 성경을 믿는 모든 이들을 위한, 분명하고도 실제적인 성결에 관한 책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우리는 이 책이 그러한 필요를 충족시키기를 희망한다.

우리는 이 책을 율법주의의 준수를 위해서나 교단 혹은 개 교회의 규칙을 만들기 위해서 내어 놓는 것이 아니다. 또한 우리는 어떠한 사람도 정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거룩함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확립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적용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우리들이 믿는 것과 또한 왜 그것을 믿는지를 명백히 말해주는 책이다.

아마 몇몇 주제들에 대해서는 의견의 차이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확신과 믿음을 제시함으로써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성경을 연구하게 되기를 바란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경우들에 성경의 구절을 명시했다. 우리는 독자들이 여기서 제시된 문제들을 정론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확증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모든 평신도들이 교회내의 표준들에 대한 이유를 발견하고 또 진정한 개인적인 확신을 가지기를 희망한다. 또한 목회자들도 특히 주의해야 할 성결에 관한 영역들을 염두에 두게 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또한 믿는 이들을 가르치고 또 각 개교회의 기준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제공하기를 희망한다.

이 책의 주제는 북미를 포함한 다른 나라들에도 적절한 일반적인 것들

로 다루어졌다.

또한 각 장은 될 수 있는 한 독립적인 것들이 되도록 나누어져 있다. 그러므로 독자는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역에 대해 선택적으로 이 책을 읽을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다른 면들은 모두 상호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전체적으로 읽을 때 가장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 책을 출판을 준비해 준 로이 제럴드 2세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또한 이책이 나올 수 있도록 격려해 주고 또한 편집과 모든 도움을 아끼지 않았던 나의 남편이며 데이빗 버나드의 아버지이신 엘튼. D. 버나드 목사님께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이책이 한국어로 나올 수 있도록 희생적으로 번역에 수고해주신 홍영기 형제님께 깊은 감사를 표하는 바이다.

이 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되었고 또한 때때로 우리가 소홀히 생각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를 살필수 있었다. 이 책이 또한 당신에게 동기를 주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까지 이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일조하기를 기도한다(엡4 : 13).

제 1 장

거룩함이란 무엇인가

“1997년 6월 26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和平)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히 12:14)

거룩함의 정의 거룩함이란 하나님의 근본적 속성 중의 하나이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말은 절대적인 완전함과 순전함을 의미한다. 오직 하나님만이 본질적으로 거룩하시다. 이 말이 사람이나 다른 대상물에게 적용될 때는 하나님께로 구별된 것을 의미한다. 구약의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거룩함이란 “구별”이라는 부정적인 개념과 “헌신”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말은 특히 죄와 세상으로부터의 구별과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의미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으므로 죄와 질병과 귀신을 이길 권세를 받은 것이다(막 16:15-18). 죄를 이길 수 있는 이 권세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진실로 거듭났다는 사실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있게 해준다(행 1:8). 우리는 이렇게 말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그분이 나를 죄로부터 건져내셨다.”

거룩함은 구원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요 3:3,5)는 말씀만큼이나 강한 진리이며 구원과 관련된 것이다. 중생의 경험 이후에는

육체와 거듭난 영 사이에서 싸움이 일어난다. 이 싸움은 거룩함을 위한 싸움이며,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이 싸움에서 이겨야하는 것이다.

구별의 필요성.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자신처럼 거룩한 백성을 요구하신다(벧전 1:15-16). 아담과 하와의 죄로부터 시작하여 인류의 죄는 인간을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켰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원래의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사람이 죄로부터 분리되는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든지 죄로부터 분리되든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다른 하나는 이 세상 신(神)인 마귀의 자녀들이다(요일 3:10; 고후 4:4). 둘 사이의 중립이 되는 사람들은 없다. 이 두 부류는 서로 다르며 구별된다. 하나는 거룩한 백성들—거룩한 제사장들이다(벧전 2:9). 다른 하나는 부정한 백성들이다. 이 부정한 세계로부터의 분리에 대한 요구는 분명하고 명백하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고후 6:17).

산 제사.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 12:1-2). 이 구절 말씀은 거룩함과 분리에 더 깊은 의미를 전해준다. 거룩함은 우리의 욕망과 의지의 회생을 포함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방법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인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회생을 하더라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무슨 일이라도 기꺼이 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거룩해야 하며 이 세상과 분리되어야만 한다.

거룩함은 성령이 주신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만 거룩

해질 수 있다. 성화(聖化, 즉 분리)는 복음을 들음으로써 시작되며, 믿음과 회개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받는 물 침례를 통해 지속된다.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성령의 충만과 내재를 통해 성취되는 것이다(벧전 1:2). 오늘날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법은 석판(石版)에 쓰여져 있지 않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아무런 법도 없는 분이시라는 뜻은 아니다. 하나님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도 법을 세우셨기 때문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하나님의 법을 성령으로 믿음을 통해 우리 마음에 쓰시고자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렘 31:33; 히 10:15-17). 그러므로, 성령으로 인도함 받기를 원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새기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양심으로 인도를 받으며, 성령의 감화와 확신으로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안에는 거룩함의 근본적인 기초(基礎)가 내주하고 있는 것이다.

거룩함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직접 가르쳐준다. 방금 전에 우리가 언급한 바에 의하면 이것은 확실하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확증하셨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 14:26).

거룩함은 성령 충만한 교사와 목사가 가르쳐준다. 요한1서 2:27은 무슨 의미인가?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이 구절 말씀은 단순히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 안에 있는 기초적인 거룩함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령이 충만한 교사에게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에베소서 4:11-12에 따르면 교사는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거룩함이란 오직 온전함을 위한 싸움이며, 이 사역은 성도들로 하여금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기 위해 주신 것이다.

거룩함은 성경이 가르쳐준다. 성경은 한 개인이 직면할 수 있는 무수한 상황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그것은 바로 성령과 그 사역의 목적이다. 성경은 모든 문화와 시대와 상황 속의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기초적인 지침을 제시해준다. 거룩함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과 좋아하지 않는 것을 가르쳐 준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시는 행동과 태도를 말해주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서 기대하시는 행동과 태도를 가르쳐 준다.

거룩함은 개인적인 문제이다. 빌립보서 2: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은 각 개인이 구원을 위한 자신의 법을 만들라는 의미가 아니라, 각 개인이 경외(敬畏)함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야만 한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궁극적으로 개인 자신의 책임인 것이다. 중생의 체험 이후에 각 개인은 경주의 마지막까지 인내해야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을 끝까지 잡아야만 하는 것이다(히 3:14).

개인적인 확신. 각 개인은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책임이 있으므로, 각 개인은 자신만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성령을 받은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세우신 교사들과 성령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또한 개인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확신이나 또는 불확신에 의존할 수는 없으며, 특정한 문제에 대해 자신 스스로가 답을 구해야 한다. 물론, 성경의 어떤 분명한 가르침은 그 자체로서 충분한 확신이 되며, 자신이 그것에 대한 확신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회피할 수는 없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다른 신자(信者)는 함께 느끼지 못하는 확신을 주실 수도 있다. 아마도 이것은 그 사람의 배경이나 또는 어떤 분야에서 그의 연약함 때문에 필요한 것일 것이다. 혹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를 자신과의 더 밀착된 관계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기도 할 것

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 사람은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과 부합하는 것이라면 자신의 확신에 따라 진실하게 행동해야 한다.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믿음으로 좇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롬 14:5,23). 동시에, 그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해서는 안된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은 그의 확신을 꺾아 내려서는 안되며 존중해 주어야만 한다(롬 14:2-6). 하나님은 항상 개인적인 헌신을 하는 사람을 존중하며 축복하실 것이다. 이런 특별한 헌신을 통해서 특별한 축복이 오며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거룩함은 법제화(法制化)할 수 없다. 거룩함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에 의해 동기부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역자는 영적 권위가 있으며, 실제로 성도들 사이에서 행동과 의복의 표준을 정할 책임이 있다. 사역자는 신자(信者)들에 대해 하나님께 보고서를 올려야 할 것이다(히 13:17). 그러나, 사역자가 “겸손으로 옷 입으시오”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마음속에 거룩함이 없다면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을 것이다. 거룩함은 법제화할 수 없다—그것은 마음속에 있든지 아니면 없든지 둘 중의 하나이다. 거듭난 이후에, 성도는 성령이 주신 거룩함에 대한 근본적인 본능을 가지며, 거룩한 삶을 살도록 성령 충만한 목자에게 배운 것을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결합시켜야 한다. 그러나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거역하는 마음을 갖게 되며 교파들과 교회들을 비교하려고 애쓴다. 교파는 아무도 구원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구원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거룩함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지켜진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친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요일 2:15).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능하다. 법이나 두려움은 우리를 하여금 어느 정도 죄를 피하게 할 수 있지만, 오직 사랑만이 거룩하지 않은 모든 것과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피하려는 소망을 우리 안에 생겨

나게 할 것이다. 만일 한 사람이 진실로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기호(嗜好)나 편리함에 상관없이 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애 쓸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이며 구세주이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그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신 편지를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편지 내용에 따라 살기를 원하게 된다. 우리 안에 계신 그의 성령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하나님은 또한, 비록 우리의 육신은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즐거이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요 14:23; 요 14:25; 요일 2:3). 반면에 이렇게도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요일 2:15).

거룩함에 대한 몇 가지 기본 원리. 성경은 참된 거룩함의 필수적인 요소를 가르쳐준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롬 12:2),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살전 5:22),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고전 9:25). 이 세 가지 성경구절은 실제 성결 생활의 핵심을 묘사한다. 거룩함에 대한 어떤 특정한 기준을 세우는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원리에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함이다. 먼저, 우리는 죄악의 세상처럼 행동해서도 안되며, 또 그런 모습으로 비쳐져서도 안된다. 심지어 우리는 죄를 암시하고 있는 것이나 죄의 모양을 가진 것이라도 피해야 한다. 문제는 “우리는 세상에 빠지지 않으면서 얼마나 세상과 닮을 수 있는가?” 또는 “여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최소한도는 어디까지인가?”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가능한 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구별되었다는 것을 이 세상에서 분명히 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는가?” 더 나아가, 우리는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자아 조절과 억제를 훈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육신은 항상 우리의 영(靈)에 복종해야 한다. 절제(節制)란 또한 모든 일을 극도로 또는 지나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히 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방종, 타협, 또는 세속화의 한 극단으로 치달아서는 안되며, 또한 스스로 의로움, 위선, 그리고 겉치레의 또 다른 극단으로 치달아서도 안된다.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모든 일에 절제하는 원리는 본서에서 논의되는 모든 분야에 대해 이해하는 열쇠가 된다.

죄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 그리스도인은 죄인이 아니다. 우리는 거듭났으며,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이길 힘을 가지고 있다(행 1:8; 롬 8:4).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거듭났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지니게 되었다(롬 8:29).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며,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간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즉 그리스도를 닮았다면, 우리는 죄인이 될 수는 없다. 사실, 우리는 죄를 미워해야만 된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시 97:10).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잠 8:13).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악을 미워하게 된다. 지금 우리 모두는 인간 존재로서 다른 성품을 가지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더욱 공격적이고 거침없이 말하며 외향적인 반면 어떤 사람들은 더욱 보수적이거나 태평스럽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이 왕으로서 다스린다면,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어떤 차이점도 만들어내지 않는다. 우리들의 본래의 성품과 상관없이 우리 각자는 악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 이것 때문에 사역자는 죄에 대해 강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의 근본적인 성품에 상관없이 그는 죄를 구별하고 죄를 반대하는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죄에 대한 사역자의 태도. 사역자는 죄를 반대하는 설교를 할 책임이 있다(골 3:17-19). 사역자는 또한 죄를 열거함으로써 사람들이 무엇이 죄인지를 알도록 도와줄 수 있다. 사역자는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세울 의무가 있다. 이 기준들은 성도들 특히 지도자나 타(他)의 모범이

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며, 방문객(또는 초신자)을 위한 것이 아니다. 사역자의 개인적인 성향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 안에 계시는 성령은 죄를 참을 수 없으며, 사역자로 하여금 죄를 반대하는 설교를 하게 만든다. 성령은 사역자로 하여금 필요할 때에는 담대하게 사람들을 꾸짖고 훈계하게 한다. 성령의 기름부음과 감동이 사역자에게 필요한 영적인 힘을 주도록 성령은 그의 삶 속에서 왕으로서 다스려야 한다. 비난하는 데 빠른 사람, 빨리 분노하는 사람, 참을성이 없는 사람도 성령에 의해 변화될 것이다. 이런 사람은 훈계하는 데 있어서 친절하고 온유해질 것이며, 사람들의 죄악을 볼 때에 사랑으로 설교하게 될 것이다. 사역자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넘쳐야만 한다. 그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통해 설교하게 될 것이다(골 2:28).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므로, 사역자도 역시 죄를 미워하게 될 것이며, 죄를 반대하는 설교를 할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동시에 사역자는 그의 마음속에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가지게 될 것이다.

어떤 사역자들은 너무 태평하고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게하기를 싫어해서 어떤 특정한 방법으로 죄를 책망하는 설교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어떤 사역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제 성격상 저는 죄를 책망하는 설교를 할 수 없어요. 저는 사랑에 대해서만 설교를 할뿐입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죄에 빠진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죄를 책망하는 설교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람들을 영원히 잃어버린 바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이다. 참 사랑은 온유함 이상의 어떤 것이다. 만일 내가 정말로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게 진실을 말해줄 수 있을 만큼 사랑해야 한다. 그가 그것 때문에 나를 미워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말이다. 사역자는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자신을 계속해서 좋아하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진리를 선포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이다. 듣는 사람들은 사역자로 하여금 진실을 말하게 만드는 것이 사랑임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사랑이다. 이렇게 할

수 없는 사역자는 그리스도의 전달자로서 부적합하다.

참된 사역자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것만을 설교하지는 않는다. 사역자는 귀를 즐겁게 해주는 사람이나 농담꾼이 아니다. 물론, 설교단에서 유머나 상상 또는 창작은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역자의 기본적인 소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원하시는 것을 들려주는 것이다. 만일 사역자가 단지 어떤 사람이 약한 성품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이 두렵다는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이 계속 죄악 속에 있도록 내버려둔다면, 그 사역자는 성령으로 재충만 받을 필요가 있다. 그 사람은 약한 그리스도인일 뿐이며 절대 지도자는 아닌 것이다.

사역자는 전달자일 뿐이며 저자(著者)가 아니다. 사역자는 하나님이 아니며, 그는 위대한 목자장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 사역자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바꿀 수 없다. 사역자는 단지 전달자에 불과하다. 우편배달부가 편지의 내용을 바꾸는 것은 불법이다. 편지 수령인은 편지의 내용에 대해 우편배달부를 비난할 권리가 없으며, 그에게 내용을 바꾸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다. 우편배달부는 저자가 아니며, 내용을 바꾸는 것은 그의 능력 밖의 일이다. 마찬가지로, 사역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하기만 할뿐이다. 사역자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꿀 수는 없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이해해야 할 성구들. 죄와 거룩함과 관련하여 그리스도인의 입장을 알기 위해서 이해해야 할 필수적인 중요 성구들이 많이 있다. 로마서 6장과 8장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총괄주제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다.

죄의 법(롬 7:20). 바울은 이 세상에는 모세의 법(法)이나 양심의 법(法)보다 더 큰 죄의 법(法)이 있다고 가르친다. 즉, 구약의 법이나 정신적 동의와 이성적 추론의 과정이 사람의 속에 내재된 기본적인 죄의 본성을 이길 힘이 없다는 것이다. 이 죄의 법은 또한 죄의 본성, 옛 사람, 옛 본성,

첫 아담, 욱신 등으로 불린다.

성령의 법(롬 8:2). 성령의 법은 유일하게 죄의 법보다 더 큰 법(法)이다. 이것만이 사람을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법이다. 성령의 충만을 통해 사람의 내면에 새로운 본성이 탄생되기 때문이다. 이 새로운 본성은 죄를 소원하지 않으며, 그 안에 하나님의 법과 소원을 포함하고 있다. 선행이 성령의 법을 대치하거나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하나님께서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요일 3:9). 이 성구는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연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새로운 본성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짓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났음이라”(요일 3:9). 이것은, 자신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처럼, 그리스도인은 죄를 미워하고 자신의 삶 속에서 죄를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그가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다: 이런 해석이 될 경우 요한1서 1장 18절과 2장 1절의 가르침과 모순되기 때문이다. 다음의 예를 통해 위의 성구가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일 어떤 음식이 당신을 병이 나게 만든다면, 당신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미안하지만, 전 이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만일 어떤 행동이 당신이 매우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든지, 아니면 당신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면, 당신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앞의 두 경우에 있어서 “~수 없습니다”라는 표현은 신체적으로 그 행동을 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적으로나 지식적으로 그것을 꺼리게 된다는 의미이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본성에 의해 죄로부터 스스로를 자제(自制)하게 되는 것이다. 이 본성을 가지고 있는 한,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지 않게 될 것이다. 성령이 죄를 이길 힘과 승리를 준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

라”(요일 2:14).

죄에 대하여 죽음(롬 6:2).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그 다음 몇 구절은 계속해서 우리의 옛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회개를 통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섬겨서는 안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롬 6:7).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과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을 이해해야만 한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를 들어본다면, 죽은 사람은 어떤 감정을 느낄까? 죽은 사람의 뺨을 때리든지 혹은 그 사람의 눈앞에서 천만 원이라는 돈을 흔들어 보이면 그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물론, 그 사람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미 죽어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면, 죄에 대한 어떤 유혹에도 우리는 반응을 보여서는 안되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완전히 죽었고, 우리 인생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반은 죽고 반은 살아있다면, 그것은 어려운 일이며, 결국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롬 8:38-39). 절대적으로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귀신, 천사, 사람, 시험, 환난, 시간이나 환경 등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킬 권세가 없다. 아무것도, 심지어 사단 자신도 우리를 우리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요 10:29; 요일 5:18). 그러나 그리스도인 자신은 불신앙과 불순종을 통해 자신과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깨어버리고 배교할 수 있는 것이다(롬 11:20-22; 벧후 2:20-22).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요일 1:8). 이성구는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데 자주 오용(誤用)되어왔다. 이 구절은 죄의 행위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본성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이 거듭났다 할지라도, 옛 본성은 억제된 채로 그 사람 속에 내재하고 있다. 그는 아직 변화되지 않았고, 그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롬 8:23). 그래서 요한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다고 가르치고 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체험 속에서 어느 시점에 자신의 죄의 본성이 뿌리째 뽑혀 버렸다는 이론을 고집 한다면, 그는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신자(信者)와 그의 죄의 본성 사이에는 명확한 구별이 있지만, 죄의 본성이나 가능성은 늘 존재한다. 사실상, “죄에 대하여 죽은”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거듭난 신자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는 죄를 지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바로 그 요점이다. “죄인-성도” 같은 것은 없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거룩한 성품을 주셨으며,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주셨다. 성령은 영원히 성도 안에 내주(內住)하면서 죄에 대한 싸움에서 그리스도인을 도와주신다. 예를 들면, 사람이 라디오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악한 본성이나 옛 사람을 이길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만일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프로그램이 그리스도인이 듣기에 부적합한 것이라면, 그는 그저 라디오를 꺼버린다. 그는 라디오가 자신의 사고에 악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을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 성령이 그의 삶을 지배하는 한, 그는 죄가 그의 삶 속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 죄를 꺼버릴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만약 어떤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단지 그가 성령으로 하여금 그 영역에서 완전히 다스리게끔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을 다른 주인에게 굴복시키는 것이고, 그 주인의 종이 된 것이다(롬 6:16). 90 퍼센트 그리스도인이나 죄를 짓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없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요일 3:8).

그리스도인은 죄인인가? 앞에 언급한 구절로 조명해보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니오”임이 틀림없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과거에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다면 죄를 범하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입장인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런 사람은 스스로를 사단의 영향 아래, 그리고 죄의 본성 아래로 떨어지도록 방치한 것이다. 이 사람은 즉시 우리의 대언자이며 모사(謀士)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한다(요일 2:1). 예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으므로 우리는 그분에게 직접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으며, 그 분은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히 4:14; 요일 1:9).

개인적인 기도. 예수님께 하는 고백을 통해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죄를 용서함 받게 되므로, 개인적인 기도는 매우 중요하다. 그리스도인은 죄를 고백하기 위해서 교회에 올 때까지 기다려서는 절대로 안된다. 오히려 즉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개인적인 은밀한 기도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든 아니면 우리 자신이 직접 말로 간구하든, 하나님과 나누는 우리들의 대화이다. 우리 모두가 자신을 살필 필요가 있으며, 우리를 은밀한 죄와 허물로부터 깨끗하게 씻어주실 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고전 11:31). 우리는 또한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구할 필요가 있다. 이런 기도는 회중 앞에서 소리를 내서 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한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기도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이길 수 있는 힘을 구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육과 영의 더러운 것(고후 7:1). 바울은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케 하자.” 이 구절에서 “육”은 육신적인 요소를 뜻하고 “영”은 사람 속에 있는 영적인 요소를 뜻한다.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한 육과 영을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 28절은 여자를 향한 음욕을 마음의 간

음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것은 영적인 죄이며, 육신은 실제로 간음을 행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여전히 죄이다. 하나님께는 마음속의 미움이 실제 살인 행위와 동일하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육신의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까지도 깨끗케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기 위해서 육과 영을 깨끗케 해야 한다.

육은 단지 영이 거하는 거처일 뿐이다. 사람이 거듭날 때, 그는 즉시 싸움-육과 영의 전쟁-을 시작한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계속되는 이 전쟁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만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간다면, 성령이 이 전쟁에서 우리를 위해 승리하실 것이다(딤후 2:5).

사단의 메시지. 마귀는 우리에게, 우리가 아직 육신 안에 있으며 또 육신이 약하므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없다고 믿게 하려고 애쓴다. 그는 우리가 매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믿기를 원한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셨다. 육신이 약하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께서 육신에 죄를 정하셨다는 것도 사실이다(롬 8:3).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심으로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없이하실 수 있었던 것이다(히 2:14). 예수께서는 육신 안에서 죄를 이기셨으며, 그분이 우리의 본이 되셨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으므로, 우리도 역시 육신 안에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다.

완전함. 성경은 우리가 완전한 데로 자라간다고 가르치고 있다. 히브리서 6장 1-2절은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고 말하고, 빌립보서 3장 15절은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에베소서 4장 12절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온전케 하기”위하여 5가지 사역을 주셨다고 가르치고 있다. 절대적인 완전함과 상대적인 완전함은 구별할 수 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신 것처럼 절대적인 완전함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완전함을 이루기 위한 이 성장 과정이 진행되는 중에

라도, 우리가 적절하게 성장하고 있다면, 우리는 상대적인 개념에서 완전한 것으로 생각될 것이다. 예를 들면, 일 개월 된 아기도, 비록 이(齒)가 나지 않았고 완전히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으며 걸을 수 없고 말할 수 없을지라도, 완전한 아기인 것이다. 상대적인 개념에서는 이것은 완전한 것인데, 나이에 알맞게 적당하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10년 후에도 이 아이가 여전히 걷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다면, 그때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 사과 싹은 아직 사과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불완전한 것은 아니다. 나중에 그 꽃은 작은 푸른 공 모양이 될 것이며, 그 후에 익게 될 것이다. 각 단계마다, 그것은 완전한 것이다. 이 예는 우리가 완전해지라는 권면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며 우리의 잘못을 고쳐나가야 한다. 우리는 처음 중생의 체험을 한 바로 그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완전함의 다른 수준으로 인한 관용.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발전할 수 있다. 기독교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거듭날 때, 그들은 훌륭한 기초를 가지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다. 반면 이교도나 무신론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의 생각과 개념을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 그래서 두 사람이 동시에 성령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완전함의 수준이 서로 다를 수 있다. 우리는 그들을 비판해서는 안된다(마 7:1). 특히,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이 거룩함의 어떤 기준에 도달하는 데 실패했다고 해서 그들을 비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인내심을 갖고 새로운 성도를 완전하게 되도록 감독하는 일은 일차적으로 성령과 사역자의 일이다.

성도뿐만 아니라 교회도 완전함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 이것은 성도들의 배경과 초석(礎石)에 달려있다. 그것은 또한 사역자에게 달려있기도 하다. 어떤 사역자들은 어떤 것에 대해서도 조심할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양들은 완전한 데로 나아갈 수 없다. 또 어떤 사역자들은

자신의 개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므로 그 양들은 완전한 데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완전한 데로 나아가자. 이 장(章)을 쓴 목적은 거룩함이란 일상의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매일 순종해야 하는 계명임을 입증하기 위함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벧전 1:16).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해질 것을 명령하셨으므로, 그분은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임을 안다. 그분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거룩함과 의로움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하심을 얻었느니라”(고전 6:11). 우리는 티나 흠이 없도록 하기 위해 계속해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엡 5:27). 만약 우리에게 주름이나 얼룩이 생기면, 우리의 회개를 통해 예수의 보혈로 그것을 즉시 씻어야 한다(요일 2:1).

성령은 우리에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따라서 성령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우리의 옛 본성이 죄와 세상을 향해 죽어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우리는 의롭다함(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다함)을 받았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완전한 데로 나아가자. 단순히 중생의 체험을 하고 거기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세워 나가야 한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깨끗케 하자. 완전한 데로 나아가자!

제 2 장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생활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갈 3:11)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화평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갈 5:22-23)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기본 개념.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함에 대해 말할 때, 규칙과 규정, 해야 할 일, 하지 않아야 할 일 등을 강조하기가 쉽다. 이런 것을 구체적이고 분명하며 정직하게 표현하면 율법주의적으로 보이는 것을 피하기가 어렵다. 이 장(章)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근본 특징을 기술함으로써 모든 것을 올바르게 조명해보려고 한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과 자유의 삶이며, 율법주의나 고역의 삶이 아니다. 단지 잘못 행동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으려고 애쓴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한다. 이 장(章)에서는 그리스도인의 경험의 본질을 정의할 것이다. 이어지는 장(章)에서는 중요한 문제가 되는 분야에 대해 분석해볼 것이나, 여기에 제시된 개념들은 책 전체에 입각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즉,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리스도인의 경험은 죄와 율법으로부터의 개인적인 자유함의 경험이라는 것, 하나님께 성별된 개인의 삶이라는 것,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거룩함을 나타낸다는 것 등이다.

우리 생활 속에서의 거룩함의 목적 거룩함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즉 하나님 자신의 목적이다. 그분은 우리를 자신의 보혈로 사셨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그분에게 속한 것이다(고전 6:19-20; 벰전 1:18-19).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고후 5:15). 거룩함의 두 번째 목적은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생활은 우리 인생을 위한 최선의 계획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것은 이생에서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득(得)이 될 것이다.

믿음과 행함 하나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선행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이해해야만 한다(갈 2:16; 엡 2:8-9).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함에 이르게 한다. 참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든다. 그것은 우리를 물 침례와 성령침례로 인도한다(막 16:16-17; 요 7:38-39).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동기(動機)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것이 진리이며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이다. 거룩함을 좇는 것은 노력으로 구원을 취득하거나 하나님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거나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들 자신과의 관계에 의한 것이다.

비록 우리가 우리의 선행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들을 하게 만들 것이다. 그것은 밖으로 드러나는 어떤 것일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약 2:17)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행동과 일상 생활로 보여준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다: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약 2:18).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딤후 3:8) 하기 위하여 디도에게 편지를 썼다. 결론은 이렇다. 우리는 자신의 노력으로는 거룩해질

수 없다. 그러나 예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 하시게 한다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다.

예수께서는 행동 지침으로서의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분은 또한 죄의 속박으로부터도 우리를 구하셨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율법의 종이 아니며, 자유롭게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 우리는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으며, 죄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있지만, 육신적인 일에 빠지는 기회나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는 방식으로 그 자유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갈 5:13). 우리에게는 율법이 필요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일 성령을 따라 살려고 노력한다면 율법이 우리에게 줄 수 없었던 모든 의(義)를 자동적으로 성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위와 노력으로 율법을 이루려고 애써왔다. 그러나 그들은 육신 안에서 약하였고 죄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실패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 우리는 죄의 권세와 육신의 약함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고, 따라서 율법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롬 8:1-4).

성령의 사역 성령침례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고전 12:13).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한다(롬 8:15-16). 다시 말해서, 성령은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을 갖게 해준다. 이 새로운 본성이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영-즉,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 것이다(롬 8:9; 골 1:27).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고전 2:16; 빌 2:5).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 것이다(갈 2:19).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신 것이다(롬 8:29).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인격과 뜻이 우리의 마음과 인격과 뜻을 대신하게 함으로써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33년을 사셨다(벧전 2:21-24). 그분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떨치고 또한 그 본을 따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셨고 또한 부활하셨다(롬 8:3-4).

거룩함은 한 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영과 인격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분의 성령을 나타내기를 원한다. 우리는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분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는 그분이 살았던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며, 그분이 할 그런 일을 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특성을 나타내기를 원한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살아있는 본보기가 된다. 우리는 성령으로 쓰여진,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보내신 열린 편지가 되는 것이다(고후 3:2-3). 그분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선한 행위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마 5:16).

그리스도인의 특성 그리스도인이 나타내는 특성은 어떤 것인가? 갈라디아서 5장 22-23절은 성령의 열매라고 불리는, 훌륭한 목록을 우리에게 제시해준다. 만일 우리가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다면, 우리는 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성령침례를 받는 것에 대한 첫 증거인 반면, 성령이 생활 속에 거하신다는 데 대한 지속적인 증거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열거하고 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등이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맺게 해주는 8가지 자질(資質)을 열거한다.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 등이다(벧후 1:5-10). 믿음(혹은 충성)과 절제는 두 경우 모두에 등장하고 있다. 덕과 경건은 선함(또는 양선)의 일면이며, 형제우애와 사랑(charity)은 사랑(love)의 일면이고, 인내는 오래 참음과 유사한 것이다. 또한 베드로전서 2장 21-24절에서는 우리가 닮아가야 할 그리스도의 성품을 기록하고 있다. 이 성구에서,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는 죄나 궤사가 없다고 말하고 있고, 우리의

죄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는 동안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 인내, 절제와 믿음을 서술하고 있다.

이 책을 통해 이 모든 태도와 특성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그 초석을 놓기 위해 갈라디아서에 기록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에 대해 간단하게 논의해보고자 한다. 책을 읽어나가는 동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라는 것과 죄인들을 복음으로 이끌어줄 열매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사랑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이것은 유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데 대한 만족스러운 동기가 된다. 우리는 다른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이웃들, 심지어는 우리의 원수들까지도 사랑하라는 계명을 가지고 있다. 만일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만일 우리가 사랑이 진실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거룩함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성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 대한 사랑은 시기, 싸움, 험담, 불평, 그리고 신랄한 비난 등을 없애줄 것이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속된 마음과 반역하는 마음을 없애줄 것이다. 반면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을 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옳게 만들어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올바른 가르침과 선행이 사랑을 대신할 수는 없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 질수록, 우리는 더 많은 사랑을 갖게 될 것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롬 5:5).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책 3장에서 사랑에 대해 다시 한 번 배울 것이며, 강도 높은 참조성구들을 제시할 것이다.

희락 성령의 열매의 다른 요소들과 함께, 우리는 성령을 받을 때 희락(즐거움)을 얻는다(롬 14:17).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말할 수 없

는 영광스러운 즐거움”(벧전 1:8)이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러한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상황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외적인 조건에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우리의 구원과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다(눅 10:20; 합 3:17-18). 기쁨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이며, 시련의 때에 힘의 근원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느 8:10). 낙담할 때에, 우리는 성령의 기쁨을 끌어냄으로써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다. 이겨내는 길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약 1:2) 것이다. 승리로 향한 우리의 길을 찬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필요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기쁨을 얻을 수 있는가? 방금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는 항상 우리의 구원으로부터 기쁨을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으리니 그 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사 12:2-3). 시편은 우리에게 두 가지 기쁨의 근원을 설명해준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시 126:5). 만일 우리가 눈물과 기도로 좋은 씨를 뿌린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좋은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또한 시편 기자(記者)는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시 16:11)하다고 말하고 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그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간다면, 우리는 온전한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는 찬송과 감사와 찬미로 그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화평(평화, 평강) 성령 안에서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다—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평강이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이다(롬 14:17; 빌 4:7).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는 내적인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 14:27).

마음의 평화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사이에서도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이것을 기대하고 계신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히 12:14; 참조 롬 12:18).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 즉, 평화가 없는 곳에 평화를 만드는 사람, 불안한 사람이나 불안한 상황에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들을 가리켜 말씀하셨다(마 5:9).

우리는 어떻게 생활 속에서 평화를 얻으며 또 유지할 수 있는가? 만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을 신뢰하면, 우리는 완전한 평화를 얻을 수 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사 26:3). 또한 우리는 주를 기뻐하는 것, 절제하는 것,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 기도와 간청을 통해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알리는 것 등을 배워야만 한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다(빌 4:4-7).

오래 참음과 인내 인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눅 21:19). 우리는 인내로 결실하게 되고(눅 8:15), 인내로써 우리의 경주를 경주하며(히 12:1),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얻게 된다(히 6:12).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히 10:36).

오래 참음이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인내와 관용을 포함한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여 말하기를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엡 4:2-3)고 했다. 오래 참음은 온유함과 사랑, 연합(통일)에 대한 소망, 평화에 대한 소망 등과 함께 오는 것이다. 인내는 시련과 환난을 통해 온다(롬 5:3; 약 1:3).

자비(친절함) 자비(친절)는 약함을 뜻하지 않는다. 자비롭다는 것은 정

중하고, 예의바르며, 친절하고, 인내하며, 침착하고, 가혹하거나 폭력을 사용하지거나 또는 거칠지 않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대하실 때 자비로우셨으나, 필요할 때는 단호하며 과단성이 있으셨다. 주님은 우리가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친절)하기를 원하신다(딤후 2:24). 그분의 온유함(친절함)이 우리를 크게 하실 것이다(시 18:35).

양선(선함) 이 말은 의로움, 덕행, 미덕, 그리고 선행 등을 포함한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막 10:18)는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가진 모든 좋은 것은 다 그분으로부터 온 것이다(약 1:17). 그분의 눈에는 우리의 의가 더러운 옷 같은 것이며(사 64:6) 오직 그리스도의 의(義)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가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히신다(롬 5:4-5).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선함)에 거할 때에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롬 11:22).

충성(믿음) 구원과 관련된 믿음에 대해서는 이미 논의한 바 있다. (“믿는 자”의 정의에 대해서는 13장 참조). 구원을 받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도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히 11:6).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롬 8:28).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며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해준다(고전 10:13). 믿음은 기도의 응답과 필요의 공급과 약속의 성취를 가져다준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마 21:22; 참조 막 11:22-24). 충실(신실)은 또한 충성스러움, 진실함, 변하지 않음, 지조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얻는가?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롬 12:3). 우리는 모두 믿

음이 조금은 있을 것이다. 진실로 우리에게 겨자씨 만한 믿음이 있고, 그만큼의 믿음을 실천하면, 불가능한 일은 없을 것이다(마 17:20).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롬 10:17). 우리는 첫째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속의 약속을 읽음으로써 믿음을 세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또한 우리들 자신이 과거에 하나님을 체험한 것을 통해 믿음을 더할 수 있다. 믿음은 또한 중요한 위기의 순간에 성령의 초자연적인 선물로 올 수도 있다(고전 12:9).

온유함 온유하다는 것은 인내심이 있고, 관대하며, 화를 내거나 분을 내는 경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 역시 약함이나 결단력이 없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온유함은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 것도 아니며 그분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깨닫는 겸손을 포함하는 것이다. 온유함은 지도자가 지녀야 할 중요한 자질이다. 모세는 당대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고(민 12:3), 예수께서는 자신을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다(마 11:29). 예수께서는 또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하셨다(마 5:5). 주께서는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딤후 3:2).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바 온유함으로 해야 할 것들은 다음과 같다. 말씀을 전하는 것(고후 10:1), 말씀을 받는 것(약 1:21), 범죄하는 형제를 도와 주고 바로잡는 일(갈 6:1), 지혜를 나타냄(약 3:13), 우리의 삶을 단장하는 것(벧전 3:4) 등이다. 온유함은 우리 내면에서 끊임없이 개발하려고 애써야 할 한 가지 태도이다. 그것은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주 앞에서 낮추라”(약 4:7,10).

절제 이것은 자제, 자기조절, 중용 등을 포함한다. 어떤 즐거움이라도 과도할 경우에는 고통스럽게 되며, 어떤 좋은 일도 지나칠 경우에는 피해가 될 수 있다. 고린도전서 9장 24-27절에서 사도 바울은 경주하는 주자의 예를 들어 절제의 개념을 잘 예시하고 있다. 경주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주자

(走者)는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한다. 그는 수양과 자기조절이 필요하다. 그는 잘 균형 잡힌 훈련 계획이 필요하고, 모든 활동이 적당해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훈련과 억제력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했으며, 자신의 몸을 복종시켰다. 절제는 우리가 항상 나타내야 할 속성이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빌 4:5).(절제에 대한 더 깊은 내용은 13장을 참조)

목회 시역 중의 지혜 이 장을 마무리하기 전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가르치는 사역의 역할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목회자로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 가르치고 설교하는 데 있어서 지혜가 필요하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며, 누군가가 우리에게 강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다. 거룩함은 적극적인 것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닮은 자질을 소유하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성령의 권세를 행사하는 것, 죄의 속박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책을 계속해서 읽어갈 때에 보게 될 것이지만, 우리는 개인적으로 거룩함에 대해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타협하지 않을 것을 주장한다. 거룩함을 가르치지 않는 사람들과 세상의 압력에 의해 자신들의 믿음을 기꺼이 바꾸게 될 사람들에 의해 많은 해를 입어 왔다. 그러나, 또한 부정적인 것을 강조하는 사람들과 방문객들이나 새 신자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에 의해서 위장된 성결의 가르침으로 많은 해를 입어온 것도 사실이다.

일반적인 규칙으로서, 설교자는 자신의 설교 속에 거룩함이라는 기본적인 주제를 지키고 있어야 하며, 복음의 긍정적인 본질을 강조해야 한다고 믿는다. 거룩함은 격렬한 비난으로 가르쳐서는 안되며, 사랑과 인내와 이해로 가르쳐야 한다. 우리는 신약성경에서 거룩함에 대해 사용하는 것과 같은 접근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겸손과 절제

를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으며, 거짓말이나 간음 같은 죄를 피하라고 권면할 수 있다. 특정한 문제 영역은 상담이나 권면의 목회사역에 맡겨둘 수 있다.

방문객들에 관해서는, 그들을 있는 그대로 환영하고 사랑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그들을 심판하거나 정죄해서는 안된다. 판결은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 결국, 사람들을 회개로 이끌고 그들의 삶의 방식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은 성령이다. 성도는 방문객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그들이 질문을 해오면, 성경적인 답변을 해주어야 한다. 지혜가 있어야 하며, 미묘한 상황에서는 그들을 목회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만일 그들이 회개하는 중이라면, 목회자는 그들에게 그들의 삶 속의 죄악에 대해 조언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회개, 믿음, 변화하려는 의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행하고자 하는 소망 등을 강조한다면, 그는 즉시 성령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만일 그들이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그들이 어떤 주제나 가르침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다 할 지라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는, 그들이 문제를 가려내고,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그들의 삶을 깨끗케 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울 것이다.

새 신자를 대하는 데에 있어서는, 인내와 관용을 보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들에게는 긍정적인 가르침, 격려, 그리고 이해가 많이 필요하다. 그들은 성령의 인도에 민감해지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으며, 시련과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 성령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진실로 하나님을 경험했으나, 목회자나 다른 성도의 가혹함이나 인내심의 부족, 지나치게 시기하는 듯한 훈계, 지혜의 부족 등으로 인해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을 많이 보아 왔다. 그들은 우유와 성장할 시간을 진실로 필요로 할 때에 강제로 먹인 고기로 인해 질식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령, 말씀의 선포, 성도들의 본보기를 통해 역사 하시도록 시간을 드려야 한다. 목회자들은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히 다루어야 할 절대적인 필요가 있다고 느낄 경우에, 명령이 아니라 개인적인 제안을 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어떤 일이 왜 유익한 지를 설명해야 하며, 협박을 해서도 안되고 어떤 일을 강제로 하게 해서도 안된다. 인생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권능을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말라. 새 신자를 가르치는 좋은 방법은 그들을 위해 특별한 학습시간을 마련하여 그 시간을 통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모든 질문에 대해 전통이 아니라 성경을 사용하여 예의바르게 대답해주는 것이다. 그들이 투표권을 가진 구성원이 되기를 원하거나, 교사나 안내자 또는 성가대원이 되기를 원할 때, 그 때가 그들에게 어떤 자질을 갖출 것을 요구할 좋은 때인 것이다.

기존 성도들은 대개 개인적인 대화의 기초 위에서 다룰 수 있다. 교회의 어떤 기준을 설정하기에 좋은 때는 성가대 모임이나 주일학교 임원회의, 또는 교회 재직회의 등이다. 어떤 것을 고쳐주어야 할 경우에는, 조용히 개인적으로 하라.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의 높은 성결 기준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방문객들을 몰아내지도, 새 신자들을 떨어뜨리나가게 하지도 않게 될 것이다.

생활방식으로서의 거룩함 마지막으로, 책을 쓴 사람으로서 독자(讀者)인 당신에게 어떻게 행하라고 말해줄 수는 없다. 우리는 단지 제안을 할뿐이며, 우리들의 기도와 연구와 경험의 결과를 함께 나눌 뿐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과의 긴밀한 개인적인 관계이다. 그것은 거룩함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이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더욱 그분과 닮아 가려는 꾸준한 시도이다. 만일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하고 성령의 열매를 계발한다면, 거룩함은 자연적인 것이 되고 또한 쉬워질 것이다. 그것은 짐이나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될 것이다. 그것은 일상적인 삶의 방식이 될 것이다.

제 3 장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세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뉘엿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엡 4:31-32)

태도는 거룩함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만약 신자가 하나님과 이웃들에 대하여 올바른 태도를 지니고 있다면, 그의 거룩함은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 나타날 것이다. 만일 그가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아무리 외적으로 거룩하게 행동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자신에게 부족한 내적 거룩함을 채울 수는 없을 것이다. 잘못된 태도는 타락의 첫걸음이며 위선의 피할 수 없는 요소이다.

사랑 사랑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세상으로부터 구별시키는 기본적인 태도이다. 모든 율법과 예언들은 다음의 두 가지 명령으로 요약될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마 22:36-40, 막 12:28-31, 눅 10:27).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순종하게 한다(요 14:15-23). 사실상,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얼마나 주의 깊게 그의 말씀을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증명이 된다(요일 2:3-5).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다(요 15:12,17). 서로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인 요소이다(요 13:34-35).

만일 우리가 우리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요일 4:20-21).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된다(레 19:18, 롬 13:10, 약 2:8). 그리스도인은 원수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까지 사랑을 확장시켜야 한다(마 5:43-48). 다시 말해, 원수를 사랑하는 이러한 형태의 사랑은,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인 요소이다. 왜냐하면 죄인도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기 때문이다(마 5:46). 모든 행위와 모든 인간 관계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사랑의 필요성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고전 13:8). 만일 우리가 진실로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이웃 모두와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만일 밑바탕에 동기가 되는 사랑이 결여되어 있다면 어떤 행위나 다른 장점들도 빛을 잃고 만다(고전 13:1-3, 계 2:1-5). 다음의 두 성경 말씀은 사랑이 없이는 가치를 잃게 되고 마는 것들을 나열한다: 방언, 말함, 유창한 화술, 예언, 지혜, 지식, 믿음, 희생, 봉사, 선행, 수고, 인내, 올바른 교리, 참된 리더십, 진정한 교제, 예수이름에 대한 열심.

사랑에 대한 가르침을 거룩함이라는 주제에 적용해 보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분의 온전한 뜻을 순종할 정도로 사랑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을 닮기를 원할 것이다.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는 것들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순종하고, 또 세인들의 관점에서는 불필요하고 하찮아 보이는 영역에서까지 그분을 기쁘게 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게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거룩함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잠시 멈추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로, 만일 우리 마음 속에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나 혐오감이 있다면 우리는 아주 조심하여야 한다. 만일 우리의 거룩함과 신앙을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하여 사랑하는 마음과 용서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이웃에 대한 사랑은 인내하는 것, 친절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이기적이지 아니하며, 자랑치도 아니하고 예의바르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타인에 대해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전 13:4-7).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과 사람을 위한 이러한 종류의 사랑에 기초를 둔 것이어야 한다. 거룩함의 기준을 다른 어떤 이유로 따르는 것이나, 이러한 사랑이 없이 따르는 것은 아무런 가치도 없으며 우리를 위선으로 인도할 뿐이다.

올바른 태도에 대한 중요성을 분명히 한 뒤에, 우리는 그것들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버려야만 할 아주 위험한 태도들이 나열되어 있다. 만일 이러한 태도들이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둔다면,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채우는 것이고, 영적인 사람을 굶주리게 만드는 것이다.

증오(Bitterness) 증오는 아주 날카롭고 잔인하고 독한 것이다. 증오의 태도는 상처를 주는 말을 내뱉게 만들고 결코 들어서 좋지 않은 말들을 하게 만든다. 이것은 결코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당하지 않다. 어떤 이들은 영적인 사람을 잠시 내려놓고 그들의 증오심을 발산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이 거룩해 지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하다. 심지어는 목회자가 성도를 책망할 때에도, 개인적인 원망이나, 날카로운 잔인한 말로 해서 안된다. 책망을 할 때가 있고 격려를 할 때가 있지만, 어떤 경우라도 결코 미움을 가져서는 안된다.

분노(Wrath) 분노는 폭력적으로 화를 내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단어에는 복수를 하거나 벌을 주려는 욕구가 내포되어 있다. 우리의 육체는 언제나 복수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때로는 감정을 나타내거나 감정을 상하는 말을 함으로써 그것을 나타낸다. 우리는 때로 어떤 쟁점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분개하거나 앙심을 품어서는 안된다. 당신은 교리적으로 완벽할 수 있을 지는 모르나, 만일 자신을

그러한 분노에 방치한다면 당신은 역시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토론하는 다른 잘못된 태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잘못된 감정에 이끌리기보다는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을 배워야 할 것이다. 우리의 힘만으로 분노를 다스리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오직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구함으로서만이 가능하다. 특히 목회자가 성을 내거나 앙심을 품는 것은 합당치 못하다. 그런 경우에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자기 통제의 부재를 설명할 방도가 없다. 우리는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다(약 1:20).

성냄(Anger) 성냄은 보통 상처나 반박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강한 불쾌감을 말한다. 단어 뜻 그 자체는 성을 내는 정도이나 그것이 외적으로 표현되는 것인지를 정확히 밝히지는 않는다. 만일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고 성을 낼 때는, 상대방을 비난하려는 욕망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 감정을 잘 다루고 승화시킨다면 건설적이고 심지어는 유익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자면, 예수께서는 성전을 깨끗이 하셨을 때, 죄에 대하여 분노하셨다. 그럼 어떤 때에 성내는 것이 합당하고 어떤 때에는 아니란 말인가? 사도 바울은 이야기한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엡 4:26). 여러분이 성냄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다른 죄를 짓게 만든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마음속에 담아두었다가 불평하게 만드는 것도 또한 잘못된 성냄이다. 이유 없는 성냄도 잘못된 것이다(마 5:22). 만일 성을 내야 할 경우가 있다면, 여러분은 그 상황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거나, 혹은 어떤 개인에게도 분을 내서는 안 될 것이다. 대신에 그러한 감정적인 힘을 잘못을 수정하는 데 사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잊어 버려야 한다. 잊기가 힘들 때는 그것을 잊을 때까지 기도할 수 있다. 어떤 상황하에서든 간에 온유와 자기 제어는 성령의 열매이고 또한 나타내어져야만 한다(갈 5:23). 목회자들이여, 만일 당신이 가르친 바를 몇몇 성도가 계속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떤 태도

를 지녀야 하겠는가? 여러분들은 개인적인 분노를 가져서는 안된다. 그들은 여러분들에게 반역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니, 여러분들은 자신을 제어하는 힘을 잃어서는 안된다.

수군거림(Clamour) 수군거림은 크게 외치거나 불평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은 항상 불평거리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은 항상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 외치지는 않은가? 어떤 어른들은 성을 내며, 마치 어린 아이가 방바닥에서 구르고 소리치고 걷어차는 것처럼 웅고집을 부리지는 않은가?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끊임없이 주의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항상 요구조건을 제시하거나 교회의 발전을 가로막는다. 그들은 수군거림의 잘못을 범하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와 행위는 성경에 의해서 정죄받고 있다.

악독한 말(Evil speaking) 악독한 말은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데, 거의 시기심에서 비롯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타인들을 홍보는가? 악한 말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가?(남의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4장을 보라)

악의(Malice) 악의는 고의적으로 나쁜 마음을 먹어 남을 해치려는 것을 의미한다. 악의는 남이 고난을 받게 하거나, 남이 고난받는 것을 바라봄으로서 즐거워한다. 보통 악의는 하나님의 목전에서 살인처럼 간주되는 미움의 결과이다(요일 3:15). 우리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어떤 영역에서 죄가 정복되는 것으로 기뻐해야하며, 그들이 설령 죄인일지라도 타인의 불행을 기뻐해서는 안된다. 사랑은 불법에서 기뻐하지 않고 진리 안에서 기뻐한다(고전 13:6).

시기와 질투(Envy and jealousy) 이러한 감정들은 증오, 분노, 악의와 깊게 연관되어 있다. 시기와 질투는 신자를 어떠한 종류의 악으로도 인도할 수 있다(약 3:16). 시기와 질투는 남의 재산이나 성공을 투덜대는 것을 의미한다. 때때로 질투와 시기는 복수심과 욕심 그리고 의심을 동반한다. 질투는 욕신이 맺는 열매이고 우리를 천국에 이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갈 5:21, 약 4:5). 이러한 태도는 때때로 불쑥 불쑥 튀어나와 우리를 곤혹스럽게 한다. 어떤 신자들은 다른 형제나 자매가 교회 안에서 더 중책을 맡게 되거나, 좋은 일이 생기거나, 혹은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될 때 화를 내기도 한다. 우리는 이러한 시기의 영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용서(Forgiveness) 이러한 모든 잘못된 태도들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서로에게 친절히 하고, 애정 어린 마음을 갖고, 용서하라고 격려 받는다. 용서는 사랑을 밑바탕에 두고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용서란 때때로 당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설사 당신이 옳을 경우에도 한 발 물러서는 것을 의미한다. 심지어는 상대방이 당신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느낄 때, 당신의 자존심을 뒤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용서이다. 그것은 실제적으로 또 상징적으로 다른 뺨을 돌려대는 것을 의미한다(마 5:39). 가장 중요한 것으로 용서는 망각(Forgetting)을 포함한다. 어떤 이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용서해 주기는 하겠지만 잊을 수는 없어” 그들은 잊어버릴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 다시 말해 그들은 타인에 대해 아무런 감정도 가지고 있지 않을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잊어버린 척 행동하나, 후에 비슷한 일이 생길 때 불평한다. 심지어는 과거의 실수를 다시 제시함으로써 타인에 대해 유리한 위치에 서고자 하는 이들도 있다. 이것은 용서가 아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타인을 용서해 주는 만큼만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가르쳤다(마 6:12,14-15; 18:23-35). 만일 우리 죄를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는 다른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을 배워야 할 것이다.

쓴 뿌리(A root of bitterness) 우리가 결코 만족시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투덜거리고 불평한다. 결코 협조적이지도 않고 자기의 고집만 부린다. 그들은 화내기 전에는 자신의 행동을 고칠 줄 모른다. 그들은 바쁘게 돌아다니며 형제들 사이에 불화를 조성하고, 가는 곳마다 온갖

문제를 일으킨다. 도대체 그들에겐 무엇이 문제인가? 아마 그들은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언급된 쓴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위 구절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고 그것이 없이는 주의 얼굴을 보지 못 할 것이라는 훈계 다음에 나온 것이라는 것을 유의해 볼 필요가 있다(히 12:14). 이 두 구절은 함께 어우러져 다음 두 가지를 증명한다. 첫째, 거룩함은 구원에 필수적이라는 것. 만일 신자가 거룩하지 않다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지게 된다. 둘째, 올바른 태도를 갖는 것은 구원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는 것. 신자는 쓴 뿌리에 의해서 더럽혀질 수가 있다.

쓴 뿌리는 신자의 삶 속에서 증오심의 근원이 된다.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마음속에 품었던 것들이다. 이 뿌리로부터 온갖 종류의 열매가 나오는데, 그것들 중 어느 하나도 성령의 열매는 아니다. 이 뿌리는 분쟁으로 인한 상대방에 대한 불평이 될 수도 있고, 특정한 상황 가운데 생긴 질투심도 될 수가 있고, 아니면 그냥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았던 어떤 마음일 수도 있다. 만일 잘못된 태도가 들고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그것의 뿌리가 무엇인지 당신의 마음속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것들을 시초에 제거하라. 그리하면 훨씬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상대방을 판단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 만일 당신이 나무의 열매를 보고 있다면 당신은 그것이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판단해야 할 필요가 없다. 열매자체가 말해주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만일 쓴 뿌리의 열매를 맺게 된다면, 타인들이 그것을 보기는 무척이나 쉬운 일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판단의 필요조차 없다. 단지, 수군거림이나 미움 그리고 이러한 근본에서 나오는 다툼을 멀리해야 할뿐이다. 만일 그러한 열매에 동참하는 사람이 된다면, 당신 자신

도 그 쓴 뿌리에 더럽혀질 것이다.

어떤 일에도 상처받지 않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쓴 뿌리와 그 결과로 나타나는 나쁜 태도들과는 완전히 대조적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시 119:165). 큰 평안은 언제나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의 결과이다(빌 4:7). 평화는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게 됨으로서 나타나는 결과이다(롬 5:1). 하나님께 진정으로 순종한다면 우리는 상처를 입지 않을 것이다. 그분의 말씀은 우리가 상처를 받아서도 안되며 또 남에게 상처를 주어도 안된다고 가르친다(마 5:29-30, 13:41; 약 3:2). 위 시편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것도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얼마나 많이 다음과 같은 말들을 들었는가: “그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초대하고 나만 초대하지 않았어,” “그들은 나에게만 교회 안의 직분을 맡기지 않았어,” “그들은 나에게서 절대로 그런 일을 맡기지 않아,” “나는 나 이로나 직책이론이나 분명히 자격이 있는데도 그들은 그것을 나에게 주지 않았어,” 라든지 “그들은 나에게 말도 걸지 않아”같은 이야기 말이다. 얼마나 많이 우리는 책망을 받거나, 오해를 받거나, 우리가 원하는 인정을 받지 못할 때 마음의 상처를 받는가? 이러한 모든 경우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마도 당신이 알지 못하는 다른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다. 혹은, 당신이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고 타인이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다.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우리는 기분을 상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상대방이 용서를 구하기 전에도, 심지어는 결코 용서를 구하지 않을 때에라도 용서해야 한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했다면, 당신은 당신이 남을 용서해 주는 만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한 것이다. 만일 당신이 구원 얻기 원한다면, 관습이나 예의가 어긋났었다 하더라도, 당신이 옳든 그르든 간에, 상처받은 마음으로 용서하기를 거부해서는 안된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아무것도 우리

에게 거치는 돌이 되도록 허용해서는 안된다. 어떤 일이 생기든 간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나는 상처 입었어”라든가 “그 사람이 내 기분을 망쳐놓았어”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가 상황을 뛰어넘어 승리할 때까지 기도하도록 하자.

책망 받을 때의 태도 우리는 책망 받거나 징계를 당할 때 다음의 각오를 굳게 지켜야 한다. 시편의 기자는 말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시 25:4). 어떤 이들은 정반대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마치 아무도 자신들을 책망하거나 징계하거나 권면할 필요가 없다고 느낀다. 아무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주권을 세우셨다(7장 참고). 최고 지위에 있는 자로부터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까지 모두들 통치 조직에 속해있는 것이다. 심지어는 베드로나 바울조차도 다른 이들의 책망을 받았다(갈 2:11-14, 행 23:3-5). 권위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배교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다(벧후 2:10). 결코 마음을 높이 하여 다른 이들의 경고나 책망, 권고를 무시하지 말라. 당신이 실령 경험이 많은 그리스도인이나 연로한 목회자일지라도 당신은 구원을 위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다른 이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적절한 태도는 “나를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흥, 나도 당신만큼은 알아, 그리고 당신도 나보다 잘하는 것도 없잖아. 그런데 나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고 그래?”라고 반박하는 것이 아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은 말한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계할 자인 것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 구절은 평신도나 성직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그리고 또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담고 있다. 먼저, 하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지도자들을 세우셨다는 점이다. 그는 교회 안의 권위를 세우셨다. 둘째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삼상 15:22). 셋째로, 진정한 목자는 영혼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목자는 당신이 죄를 범하거나 위험한 일을 벌이는 것을 본다면, 당신에게 경고할 의무가 있다. 만일 당신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그는 당신에게 그것을 알려야 한다. 또한 당신은 그것을 화내지 말고 받아들여야 한다. 왜냐하면 그는 단지 그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로, 인도자는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다. 그는 당신에게 꼭 경고해야 하지만, 당신에게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가 당신에게 말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그와 하나님 사이의 문제이다. 당신이 그 경고를 받아들이고 행동을 바꾸느냐 아니면 자신의 길을 고집 하느냐 하는 것도 당신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심판자가 되신다는 사실이다. 그분이 후에 당신을 판단하실 때, 만일 당신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내리신 권위에 대항했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이롭지 못한 일이 될 것이다.

“한 마디로 총명한 자를 경계하는 것이 매 백 개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잠 17:10). 만일 당신이 현명하다면, 당신은 경계를 받아들일 것이다. 만일 당신이 합당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단지 몇 마디의 말을 듣는 것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만일 당신이 스스로를 책망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스스로가 멸시하는 태도를 가진 악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와는 달리, 당신이 만일 현명하다면 당신을 책망하는 사람을 존중하게 될 것이다(잠 9:7-8). 좋은 결과가 있기 위해서는 책망을 하는 사람과 책망을 받는 사람 모두가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한다.

그러면 목회자도 책망 받을 수가 있나? 성경 어디에도 목회자가 책망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시사하고 있지는 않다. 물론, 그는 같은 권위의 목회자

나 혹은 더 큰 권위를 가진 목회자에게 책망을 받아야 한다. 사실상, 바울은 디모데에게, 죄 가운데 사는 목회자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책망을 받게 함으로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배울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딤후 5:20). 그러나 많은 경우에, 책망을 받은 사람이 그의 “친구들”로부터 많은 동정과 위안을 받음으로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반항하는 마음을 가지는 일이 종종 있다. 이러한 일이 생길 때는, 아무도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예비하신 것을 배울 수가 없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딤후 3:16, 4:2).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책망과 바르게 함을 위해서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직자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함으로써 교훈하고 책망하고 권고하도록 권위가 부여되어 있다. 이것을 마음에 새김으로써 우리가 경책을 받게 될 때 올바른 태도를 가지도록 하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기도해야 한다. “당신의 길을 보여 주옵소서. 주여, 당신의 완전한 곳으로 인도하소서. 너무 늦기 전에 저의 잘못을 깨닫게 해 주시고, 제가 평생을 대거나 자신을 정당화시키지 않도록 하소서. 반항하지 않고 당신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하소서. 저를 가르치고 책망할 수 있을 만큼 사랑이 많은 인도자를 허락하소서. 당신의 진리를 가르쳐 주소서.”

원망과 불평함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에 대한 태도에 관한 논의를 마무리 짓기 위해, 중얼거림에 대하여 다루어야 한다. 유다서 15,16절에 의하면, 중얼거리며 불평하는 것은 불경건한 일이다. 그리스도인의 방법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타이르는 것이다. 바울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빌 2:14)라고 말한다. 만일 문제가 있을 경우에, 성경적인 방법은 당신이 당신과 의견이 다른 형제에게 찾아가서 차이점을 해결하

는 것이다(마 18:15). 말로나 글로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분쟁을 심는 것과 같다.(4장 참고)

평범한 사람이나 회중을 불평하게 만드는 일은 아주 쉽다. 아주 작은 불편함, 잠깐동안의 물이나 식량, 의복의 부족은 모든 사람을 시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우리의 욕망이나 열정의 노예가 된다. 이스라엘인의 예를 들어보자. 그들은 광야에 나간지 두 달째 되는 달부터 그들의 기분을 드러내기 시작했다(출 16:1-3). 출애굽기 한 권에만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그들의 인도자에게 내어놓았던 불평거리가 열 두 가지나 나온다. 단지 몇 달 안에 끝낼 수 있었던 여행길을 40년간이나 했다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그들의 불평은 하나님에 세우신 권위에 대한 불신과 경멸에서 비롯되었다.

유다서 11절은 우리에게 고라의 반역을 범하지 말 것을 가르쳐 준다. 그는 모세를 비판하고 그의 권위에 도전하였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께서는 지구가 입을 열어 그와 그를 따르는 자들을 삼키게 하셨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판하였을 때, 성경은 주께서 그것을 들으셨다고 말하고 있다(민 12:2). 당시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보다 나이도 많았고 또한 그의 가족의 일원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똑같이 책망하셨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에 대하여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셨다. 미리암은 그 벌로서 7일간 문둥병에 걸려야 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불평하고 원망해서는 안된다. 더욱이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말할 것도 없다.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빌 4:11). 만일 당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낄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못된다. 그에 대한 해답은 기도하고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 복수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모든 갚는 것을 그분께 맡기도록 하자(롬 12:9).

올바른 태도에 대한 아주 좋은 예는 다윗과 사울 왕의 관계를 들 수 있

다. 사울은 분명히 다윗에게 잘못을 했고 심지어는 그를 죽이려고까지 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는 시점까지 그의 죄를 이어갔다. 그리고 사무엘은 벌써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기름을 부어 놓기까지 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도 그 유혹을 거절하였다. 사울이 왕인 이상은, 다윗은 그에게 해를 입히고자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 주시기를 기다렸다.

당신은 혹, 불평하거나 원망하고 있지는 않은가? 만족하고 기도하는 것을 배우라. 만일 필요하다면,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배우라. 만일 전혀 도움이 되지 않거나, 문제를 악화시키거나, 당신이 겸손하고 용서하는 자세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라면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는 편이 차라리 낫다. 불평하는 것은 전염적이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

남의 일을 간섭함(Busybodies) 지금까지는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대한 태도를 논의했으므로, 이제부터는 우리의 이웃들, 특히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 대한 태도를 논의하고자 한다. 남의 일에 참견하는 사람은 항상 타인의 일에 관심이 많고 그들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일에 항상 바쁜 사람들이다. 베드로 전서 4장 15절은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고 가르친다. 바울은 또한 남의 일을 참견하는 사람을 조심하라고 가르친다(살후 3:11, 딤후 5:13). 잠언 20장 3절에 의하면, 참견하는 사람은 바보이다. 어떤 이는 모든 사람의 일들에 대하여 조금씩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온갖 종류의 문제에 얽혀 있다. 많은 경우에 그들은 교회의 징계 건에 뛰어들어서 목사님의 문제를 풀어주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그들은 도움이 되지는커녕, 문제에 기름을 더 끼얹을 뿐이다. 그러한 사람들은 이웃에 대해서는 저주이며, 교회에 있어서는 질병과 같다. 그들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알려고 하며, 자신들이 중요하고 또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느낀다. 사실상 그들에게 신임이 요구

되는 일들을 맡길 수는 없다. 결과적으로 남의 일에 참견하는 사람은 목회자로서의 자질이 없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안에 참견하려는 기질이 있지는 않은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만일 당신이 타인의 삶에 대하여 지나치게 호기심이 많다면, 하나님께, 그러한 태도를 버릴 수 있도록 구하여야 한다.

교만과 교만한 눈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눈을 미워하신다(잠 6:17). 그는 교만한 자를 멀리하시고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약 4:6). 교만은 사단을 타락하게 만든 죄이고, 또 그것을 마음에 품는 모든 자들의 타락과 멸망을 초래하는 것이다(사 14:12-15, 잠 16:18). 이생의 자랑은 그리스도인을 유혹하는 세상의 세 가지 범주들 중의 하나이다(요일 2:16). 세례요한과 예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교만을 아주 엄하게 질책하는 설교를 하였다. 이렇게 격렬한 표현들이 당시 죄인이라고 생각되던 사람들이 아니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퍼부어 졌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 따라서 우리는 가장 교만의 죄에 빠지기 쉬운 사람들은 종교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독교인은 이러한 태도를 가지지 않도록 아주 조심해야 한다. 거룩함에 대해 이야기 할 때는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하기 쉽고, 따라서 다른 이들을 비판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교만이고 위선이다. 설령 세인들이 우리를 가장 거룩한 사람들로 여기더라도, 만일 우리가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옳다는 인정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예로서, 바리새인의 기도와 그와 비교되는 세리의 기도 에 관한 성경의 기록을 읽어 보라(눅 18:9-14).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거룩한 기도는 거절하시고 세리의 가슴에서 우리나는 기도는 들어 주셨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것에 주의해야 한다. 첫째는, 당신이 거룩함의 기준과 진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결코 교만해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둘째는 교만한 시선으로 타인을 바라보지 말 것이다. 목회자들

은 특히 위의 두 가지 잘못에 빠지기 쉽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는 교만한 눈길마저도 싫어하시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행동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목회자들이여 당신들이 신도들에게 설교할 때 교만해 보이지는 않는가? 심지어는 성경을 들고 돌아다닐 때 교만해 보이는 것은 아닌가?

교만은 우리가 얼마나 영적이든 간에 항상 염두에 두고 주의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면 할수록 마귀는 우리를 교만하게 하기 위해 유혹한다. 우리는 겸손함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또한 가식적인 겸손함을 주의해야 한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남들에게 얼마나 겸허한 태도를 취하는가를 증명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사실상 그들은 자신들이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교만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당신이 스스로를 진정 겸손하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분명히 겸손한 것이 아니다. 당신이 겸손함을 구비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당신은 겸손함을 잃은 것이다.

교만과 교만한 시선을 떨리하는 길은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라.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가치 없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을 누려온 것을 생각해 보라. 이러한 종류의 기도는 대체로 수분동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몇 시간씩 걸리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 당신의 영혼이 변화를 받은 후에는, 일어나 당신이 기도한 것과 이러한 변화를 겪은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교만함을 떨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도를 주기적으로 해야만 한다.

오늘날 우리가 다루어야 할 문제들이 두 가지 더 있다. 그것들이 태도에 관한 문제라서 다루어 져야 하므로 이 장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여성 해방에 대한 태도 여성 해방 운동은 하나님의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 몇몇 있으나 많은 면들이 그와는 상치된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성경은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중요하다고 가르친다. 여성은 남성만큼 지적이며, 또한 하나님의 계획에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안에는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 있을 수 없다(갈 3:28). 성경 전체를 통틀어, 하나님

께서는 여성들을 예언자로서, 사사로서, 교사로서, 집사로서, 복음의 일꾼들로서 사용하셨다(삿 4:4, 사 8:3, 행 18:26,21:9, 롬 16:1, 빌 4:3). 이것을 우리의 일상생활의 삶에 적용함에 있어서, 만일 여성이 세상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고 또한 같은 직업을 가진 남성만큼 일을 한다고 한다면, 그녀는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믿는다.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또한 우리는 모든 아내가 자신의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믿는다(엡 5:22, 골 3:18, 벨전 3:1). 어떠한 구성 단위에서든지 최고의 권위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최고 권위를 남편이 가지게 하셨다. 그 권위와 더불어, 남편은 그의 가정을 부양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는 자신의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같이 사랑하고 아껴야 한다(엡 5:25, 골 3:19). 그렇지 않으면 그의 기도가 막히게 된다(벨전 3:7). 여자는 남자의 옆구리에서 나왔지 그의 머리카락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아내는 남편을 인도해서도 안되고 그의 발 밑에 있어도 안된다. 아내는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한다(창 2:18). 일단 결혼한 후에 그녀의 첫 번째 책임은 남편을 돕고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다. 성경은 혼외정사와 동성애를 강하게 정죄하고 결혼과 가정의 가치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4장 참고). 이러한 이유로, 소위 많은 여성해방운동들은 성경과 대치된다.

그래도 질문은 남는다. 여성은 남성들에게 복종해야 하는가? 남성이 다른 아무 여성들에게 대해서도 자신의 권위를 주장할 수 있는가? 대답은 “아니오”이다. 여자는 자신의 남편에게만 순종하면 된다. 남편 외의 다른 남자는, 성에 관계없이 권위를 가지고 있는 직책에 있을 때라야만이 여성에게도 권위를 가지게 된다. 바울에 의하면,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여성은 또한 자신을 주관하는 남자를 두어야 한다고 한다. 바울은 여성이 공회를 중단하고 질문을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 당시에 남성들이 가진 특권들 중의 하나였다(고전 14:34-36, 딤후전 2:11). 그는, 만일 남성의 권위 하에서 이루어지고 또 질서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면, 여성의 예언할

수 있는 권위를 인정했다(고전 11:5, 딤편 2:12).

영적인 문제들에 있어서, 여성은 성령의 충만을 받은 남편의 지도를 따라야 한다. 만일 그가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그녀는 남편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남편의 가정내의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벧전 3:1-2). 개인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는 문제나 교리 그리고 영적인 경험들에 관해서 여성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충실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교회 안의 모임에서의 자세들 교회 조직이나 행정, 권위에 관한 주제는 7장에서 더 자세히 다루고 있다. 여기서는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최초의 총회를 분석하고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졌나 보고자 한다. 그 총회에서는, 아주 중요하고 논란의 소지가 많은 문제가 결정되어야 했다. 그것은 유대인의 율법적 행동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필요한가 하는 것이었다. 사도와 장로로 구성된 사절단들이 교회의 목사들과 지도자들을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왔다(2, 4절). 양편은 중요한 문제들을 다 이야기하고 아주 오랜 시간 논쟁을 벌였으나(7절), 마침내 몸인 교회로서 지지할 결론에 다다를 수 있었다. 그들이 결정한 문제들에 대해 설명하는 편지들이 다양한 교회들에 보내졌다(15:23, 16:4). 그들이 처음에 가졌던 날카로운 의견대립에도 불구하고, 일단 결정이 된 후에는 한 지체로서 움직였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회는 천거서를 보내고 또 특별헌금을 모을 때도 한 지체로서 움직였다(행 18:27, 고후 8:19). 그들은 서로를 사랑했고 도왔으며 심지어는 필요할 때 서로 책망하기도 했다. 바울은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을 보았을 때” 베드로와 다른 이들을 책망했다(갈 2:14).

사도행전 15장에서 일어난 일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다수의 형제들이 주도한 민주주의적 토의였다(행 28). 이 결정 후에, 교회는 그것을 따르는데 있어서 연합되었다. 오늘날 우리들은 모임을 가지면서 종종 민주주의

를 오해한다. 그것은 교리적인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면서 다른 이들에 대해서는 귀를 막는 것이 아니다. 다른 대부분의 형제들이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결정을 내릴 때, 당신은 그 결정을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따라야 한다. 이것은 수군대거나 불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당신은 불화의 씨를 뿌리는 책임이 있다. 올바른 자세는 비교리적인 문제들에 있어서 다수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이다. 만약 당신의 형제들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 그들 중의 다수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을 것이다. 만일 당신의 형제들을 사랑한다면, 그들 다수의 의견을 따를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지도자들은 “내가 리더니까 당신은 시키는 대로만 하시오” 같은 태도를 가져서는 안된다. 바울은 하나님의 유업의 주인이 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라고 목회자들에게 말했다(벧전 5:3). 성도들과 목회자들 모두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형제사랑을 보여야 한다(롬 12:10).

그렇다면 모임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나? 참여자들은 화를 내거나 선동적이 되어서는 안된다. 어떻게 그런 태도로 모임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설교할 수 있다는 말인가? 만일 서로간에도 잘 지낼 수 없다면, 어떻게 그들이 타인을 돕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고 이야기 할 수 있을까? 모임은 업무를 다루는 장소가 되어야 하고 또한 교제와 치료, 부흥과 성령의 충만을 받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그것은 우리가 확신을 얻고 다른 이들이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듣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바로 그게 내가 믿는 거야”라고 우리를 말하게 만드는 성경의 진리를 다른 이들이 설명하는 것을 듣는 것은 정말 참신한 일이다. 그러한 경우에 모임은 수군거리고 불평, 논쟁이 아닌 상호간의 격려를 위한 장소가 된다.

우리는 외교집의 태도를 경계해야 한다. 다음과 같이 말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음, 그래도 그냥 해야지,” “만일 그들이 내 식으로 하지 않으면 나는 빠질 거야” 혹은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사람은 필요 없어.”

성결함의 가장 중요한 요소 올바른 태도는 성결함의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잊지 말도록 하자. 겸손함과 배우려는 자세,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려는 신실한 소망은 항상 더 큰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게 한다. 내적인 거룩함은 외적인 거룩함으로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외적인 거룩함으로 내적인 거룩함을 판단할 수는 없다. 우리는 자주 이러한 사실을 잊는다. 왜냐하면 외적인 거룩함을 보고 비교하는 것은 쉬우나 내적인 거룩함을 분별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태도나 자세가 훨씬 더 제어하기 어려운데 반해서, 외적인 거룩함은 때때로 가장 처음에 순종하게 되는 초보적인 것들이다. 외적인 거룩함을 위반하거나 육체의 죄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로, 잘못된 태도는 당신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 것임을 기억하라. 우리가 교만함이나 수군거림, 분쟁의 씨앗을 뿌리거나 우리의 거룩함을 손상시킬 악한 태도나 분노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살펴야 한다. 거듭났으면서도 외적인 거부감을 보이는 그리스도인, 특히 목회자로서 이러한 태도가 자신의 마음에 들어오게 허락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다는 것은 정말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제 4 장

혀 : 길들여지지 않는 지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약 3:8)

“내 입의 말과 ... 주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시 19:14)

다루기 힘든 지체 혀는 몸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부분이며 가장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다. 당신이 혀를 사용하는 것을 보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 수 있다. 혀는 마음에 있는 것을 이야기한다. 만일 당신이 악을 입에 담는다면, 악이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마 12:34).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마 15:18). 야고보는 혀에 관해 아주 강한 가르침을 펴고 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약 1:26).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에 굴레 씌우리라”(약 3:2). 그는 혀를 말 전체를 제어하는 말고삐에 비유하고, 큰 배를 제어하는 키에 비유하며, 큰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작은 불꽃에 비유한다. 작은 혀는 몸 전체를 더럽힐 수 있으며,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그것을 길들일 수 있다(약 3:1-13).

이것이 하나님이 성령침례의 증거로서 방언 말함을 선택하신 한가지 이

유이다(행 2:4; 10:46; 19:6). 우리는 회개하고, 믿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할 때 성령을 받는다. 우리의 혀는 가장 길들이기 힘든 부분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시키는 마지막 지체이다. 우리가 처음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방언을 말하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완전한 주권을 행사하시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야고보는 우리가 혀로 죄를 범하기 쉽다는 것과 혀는 가장 위험한 부분이라는 것, 그리고 혀로 범하는 죄는 우리의 거룩함을 완전히 파괴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친다. 그러면 우리가 혀로 범하게 되는 죄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뒷말과 수다(Talebearing and gossip) 이것은 가장 악한 죄들 중의 하나이다. 이것은 사탄이 하나님의 교회를 안으로부터 무너지게 만드는 술책이다. 이것은 사람에 대한 믿음을 뿌리부터 흔들며, 결백한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며, 회개하기 못하게 만든다. 그것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를 낙담케 하며, 새 신자들이 환멸을 느끼게 한다. 성경은 누구의 흉도 보지 말라고, 특히 믿음 안의 형제 자매들의 흉을 보지 말라고 가르친다(딤후 3:2, 약 4:11). “그 이웃을 그웁히 혀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시 101:5). 대다수의 사람들은 수다의 해악을 인정하려하나, 문제는 그들이 삶 속에서 그것을 적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신자들이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하기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다. 뒷말과 수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들어보기로 하자. 기본적으로 뒷말은 개인적이고 깊은 감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남을 해칠 수 있는 루머를 퍼뜨리는 것을 의미하고, 남의 잘못을 비방하는 것을 포함한다. 뒷말은 남에 대해 거짓을 말하거나 밝혀지지 않은 루머를 퍼뜨리는 것 외에도, 자신과는 상관이 없는 사실을 말하는 것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사실을 말하는 것도, 전혀 알 필요가 없는 사람에게 수다로 말해진 것이라면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조직과 권위를 교회 안에 세워 놓으셨다(고전 12:28, 7장 참조).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날 때에는 교회 안의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들어야 한다. 여하간, 교회의 다른 지체에게 말하는 필요 없는 수다는 옳은 것이 아니다. 교회 안의 평신도들은 서로 판단해서는 안된다(롬 14:10,13, 마태 7:1, 약 4:12). 교회에서는, 전체 모임을 보호하기 위해 리더가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막 18:18, 고전 6:5).

이것은 교회의 지도자가 교회 안의 죄를 다루어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평신도는 그러한 책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때때로, 어떤 일들은 분명히 하기 위해 이야기되어야 한다. 그러나, 다른 이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일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다. 뒷말과 수다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장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잠 26:20,22). 만일 성도들이 이 말씀을 진정으로 믿었다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인가?

실질적인 예를 들기 위해서, 만일 교회의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음행을 범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당신은 죄를 숨겨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당신은 권위가 없기 때문이다. 당신은 그것을 목사나 장로 등 리더에게 이야기해야 한다. 그러면 이 문제는 리더의 책임 하에 있게 된다. 그리고 당신이 그 사실을 교회 안의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당신은 뒷말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목사님께 이야기해야 하는 것은 그는 교회를 지켜야 하고 죄를 지은 형제를 도와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이에게 이야기 할 이유는 없다. 만일 그 형제가 회개했다면 왜 다른 이들에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다른 이들에게 그의 실패를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그를 도울 수 있을까? 다른 예로서, 평신도가 죄를 짓고, 회개한 다음에 다른 교회로 옮겼다고 가정할 때, 먼저 교회의 목

사는 그가 옮겨간 교회의 목사에게 그에 대해서 이야기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 다음 교회의 목사는 그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일은 평신도들에게는 비밀에 붙여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예들은 뒷말에 대한 두 가지 성경 말씀을 설명해 준다. “두루 다니며 한담(閒談)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잠 11:13).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둬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잠 17:9). 여러분은 회개하지 않은 죄를 덮어줄 권리가 없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여러분의 친구가 관여되었거나 관여되지 않았거나 마찬가지이다. 또한 당신은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 면직 당해야 하는 죄를 지은 것을 눈감아주어서도 안된다. 두 경우 모두, 교회의 리더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한다. 또한 여러분은 친구의 죄를 다른 이에게 말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죄를 지은 당사자와 교회의 리더, 그리고 하나님 사이의 문제이다. 보통,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위선자의 삶을 계속해 가거나, 그가 교회에 불명예나 치욕을 몰고 올 때 그것은 교회적인 문제가 된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교회 안에서 직책을 맡은 사람이 범죄 하였을 경우에 더 심각해진다. 예를 들어서 교회 안의 집사가 음행을 범한 다음 회개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에도 목사는 무슨 일인지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문제는 교회 전체를 욕되게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그는 집사의 자격인 아름다운 지위를 잃었기 때문이다. 만일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는다면, 죄를 지은 당사자뿐 아니라 그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교회에 대하여 회의를 가지게 된다. 이것은 목사가 이미 회개한 죄에 대해서 공적인 발표를 것은 아니다. 만일 그가 회개했다면, 목사는 그로 침묵을 지키게 하고 아무에게도 왜인지 말해서는 안된다. 많은 경우에, 목사는 교회의 직책에서 정지시키고 일정한 기간 침묵시킬 수도 있다. 물론, 다른 성도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가 추측하지도 말고 다른 이들과 수군대서도 안된다.

만일 다른 성도 중 하나가 당신을 비방하는 말을 했거나, 잘못된 일을 했거나, 아니면 어떤 영역해서 경솔했다고 들린다면 당신은 어찌할 것인가? 먼저, 사랑은 악을 생각지 않는다. 그러므로 당신은 먼저 그 루머를 믿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는 잊어버리라. 만일 기도한 후에도 그것을 잊을 수가 없다면, 상대방을 찾아가서, 완전한 이야기를 직접 듣고, 깨닫기 해결하라(마 18:15). 만일 당신이 어떤 사람에 대해 아주 심각한 루머를 듣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만일 그것을 무시할 수가 없다면, 목사에게 가서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牧사는 그 일에 관련된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목사가 그 루머가 사실이 아니라고 확신하게 된다면 그는 그것을 들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고 느낀다면 그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는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어떤 결과가 생기든 간에, 여러분은 루머들이 더 진전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만약 목사가 당신에 대한 심각한 루머를 듣게 된다면, 그는 당신을 개인적으로 불러서 그가 들은 것에 대하여 이야기할 것이다. 만약 당신이 상황을 설명하고 그것이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면, 당신은 잘못된 태도를 가져서는 안된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퍼뜨렸는지 찾으려고 하지 말고, 목사가 당신을 도우려 하는 것을 인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그가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라. 만일 누가 그런 소문을 퍼뜨렸는지 찾으려고 한다면, 당신은 복수하려는 마음과 악의를 나타내는 것이 된다. 목사로 하여금 잘못된 소문을 퍼뜨린 사람을 꾸짖게 해야 한다. 만일 당신이 결백하다면, 목사에게 그 소문을 전해준 사람은 당신에게 좋은 일을 한 것이 된다. 특히 그가 그 소문을 다른 사람에게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을 경우에 말이다.

분쟁의 씨앗을 심음 뒷말에 관한 주제는 아주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형제들 사이에 분쟁을 일으키게 하는 주된 원인이기 때문이다. 분쟁을

심는 것은 가장스러운 일로 명명된 7가지 중의 하나이다(잠 6:19). 가장스러운 것이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며 당신을 천국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계 21:8). 분쟁의 씨앗을 뿌리는 것은 이 사람 저 사람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중요한 사실들을 퍼뜨리거나 불평을 함으로써, 미움과 불신, 분열을 일으키는 일이다. 뒷말로서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은 장소와 주제와 대상에 상관없이 자신이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다. 이들은 비밀로 들은 일들을 떠벌리고 다니며, 우정을 통해서 알게 된 비밀마저도 마구 떠들어댄다. 그들은 누구라고 서슴없이 비판한다. 당신 자신을 이 영역에서 살펴 보라. 혹시 당신은 남 말하기를 좋아하지는 않는가? 당신은 타인의 실패담을 듣기를 좋아하지는 않는가? 당신은 타인을 비판하거나 남의 탓으로 돌리기를 즐기지는 않는가? 당신은 문제와 다툼을 불러일으키지는 않는가?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주의해야 한다. 당신이 뛰어난 설교자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만일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면, 당신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맹세하는 것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 정함을 면하라”(약 5:12).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마 5:35).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예수께서는 왜 이러한 명령을 하신 것일까? 맹세하는 것은 신의 이름을 남용하면서 사실이라고 주장하거나 무엇을 약속하는 것이다. 맹세하는 것은 정식으로 하나님이 증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 가르침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는 어떤 일에도든지 맹세하지 말고, 또 무슨 일을 하거나 어떤 조직에 가입한다고 맹세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율법은 주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허용했으나, 우리는 하늘로도 땅으로도 심지어는 우리 자신의 목숨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가르치셨다. 그 이유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고 또

우리의 맹세를 실행시킬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마 5:35-37). 하나님은 자신으로 맹세하실 수 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신의 말씀을 실행시킬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분은 말씀하시는 순간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도 있다.

만일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 맹세하라는 법의 요구를 받는다면, 우리는 단지 “인정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인정한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확인할 수는 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는 말은 항상 사실이어야 하고 또한 우리의 약속은 맹세처럼 잘 지켜져야 한다. 우리는 이번만은 진실을 말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하여 “맹세해”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우리가 맹세하는 대상에 대한 통제력이 없으므로 맹세하지 않는다. 대신에 우리는 항상 진실을 말하여야 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약속을 지켜야 한다.

주의 이름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출 20:7). 이 계명은 오늘날 두 영역에서 적용될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마 12:28-31). 이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부속되어 있다. 이 계명은 주의 이름을 온전히 사용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모든 불경스럽고 헛되며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들을 경계한다. 이 계명은 또한 다른 이방종교와 마술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을 정죄한다. 하나님의 이름은 찬양과 예언, 복음전파와 가르침, 경배와 묵상 기도 중에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다. 주의 이름을 존중하는 자들에게는 축복이 있다(말 3:16).

불행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계명을 간과하고 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나 주, 예수, 할렐루야(히브리말로 “주를 찬양합니다”라는 의미)같은 단어들이 의미없이, 심지어는 장난스런 태도로 말해지는 것을 듣는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이러한 말들을 하는 것은 일종의 습관이 되어 버렸다. 만일 그들이 행복하거나 화나거나 슬프거나 실망했을 때는

그러한 말들을 단지 상투적인 말로 해 버린다. 왜 하나님께 관계되는 말들을, 진실로 하나님과 교제함이 없이 사용하는가? 이것은 또한 찬양과 경배의 음악과 시들을 부적절한 태도로 사용하는 것에도 적용된다.

우리는 유대인으로부터 교훈을 배울 수 있다. 그들은 주의 이름을 만홀히 일컫는 것에 대하여 지극히 주의하므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발음하여 하지 않는다. 그들이 구약성경을 인용하거나 옮겨 적을 때는 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에 헬라어로 주를 의미하는 Kurios로 대치한다. 예로서 이사야 40장 3절의 “주”가 여호와를 의미하는 대목이 마태복음 3장 3절에서는 그 단어가 Kurios나 “주”로 대치된 것을 볼 수 있다.

만일 당신이 “예수”나 “주”, “하나님”같은 단어들을 진실한 찬양, 경배나 기도의 자세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습관을 버리는 것은 어떨까?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주의 이름을 만홀히 하는 죄를 범할 수도 있다.

속어(Slang) 목회자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모두는 속어를 사용할 때 주의하여야 한다. 많은 속어들이 나쁜 의미를 담고 있으며 우리는 그것이 내포한 의미를 모르고서 사용하기 쉽다. 그렇다면 저주하는 말들을 완곡히 말하는 것은 어떠한가? 만일 우리가 어떤 말들을 사용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왜 우리가 그 파생어나 대체어를 사용해야 하겠는가?

더러운 대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훼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골 3:8).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엡 4:29). 우리는 성령의 전이다. 더러운 농담이나 더러운 행동은 우리에게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점잖지 못한 일들을 연상시키는 말들은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나와서는 안된다. 찬양과 부도덕한 말들이 한 입에서 날 수 있는가? “쌈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 물과 쓴 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잔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약 3:11-12). 바울은 우리들에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회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가르친다(엡 5:4). “어리석은 말”은 게으르고 무감각한 말을 가리킨다. “회롱의 말”은 헬라어 유트라펠리아(eutrapelia)에서 나온 것인데, 스트롱(Strong)의 신약 성경 헬라어 사전에 보면, 경멸적이고 상스러운 농담을 가리킨다. 그것은 아비하고 음탕한 농담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음란하고, 교묘히 성을 조장하는 대화에 끼여들어서는 안된다. 그들 중 어떤 일들은 입에 담기에도 부끄러운 것들이다(엡 5:12). 이 가르침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무시된다는 것은 심상치 않은 일이다. 많은 빛 바랜 이야기들이 모임의 성격에 관계없이 이야기되고 있다.

저주함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롬 12:14).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약 3:10). 이 성경 구절들은 누군가를 저주하는 죄에 관련된 것들이다.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롬 12:21). 구약에서는 눈은 눈으로 갚으라고 가르쳤으나, 신약에서는 예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가르치셨다(마5:44).

어떤 목회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특별한 권리를 부여받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권위로서 잘못을 범하는 신자들을 저주하려고 한다. 어떤 목회자는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한 여인과 그 가족에게 “당신들 그래서 잘되지 못할 거야” 등등의 말로 저주함으로써 앙갚음을 했다.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인정받지 못한다. 우리가 바로 앞에서 살펴본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반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위는 잘못된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성경에는 우리로 그러한 저주들을 합리화시키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 나온다. 우리는 그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타인을 저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할 것이다. 그 세 가지 경우들은 열왕기하 2장 23,24절과, 사도행전 5장 3절부터 10절 사이,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0절과 11절에서 볼 수 있다.

먼저, 벤엘에서 나온 어린아이들이 엘리사를 조롱한 장면이 있다. 그들은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불렀다. 당시 대머리는 구약성경에서 “가치 없는 인간”을 의미하던 경멸과 멸시의 상징이었다. 그들은 엘리사에게 “올라가라”며 조롱을 했다. 그것은 “네가 엘리야가 변형돼 올라갔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해 봐라”라는 의미였다. 엘리사는 그들을 주의 이름으로 꾸짖었다. 나중에 암콤폴 두마리가 나와서 그들 중 마흔 두 명을 죽였다. 여기서 먼저 주의해 보아야 할 것은 이 일은 율법 아래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즉 예수께서 가르치시기 이전, 그리고 성령의 침례가 주어지기 이전의 일이었다. 또한 우리는 엘리사가 그들을 저주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들은 벤엘 출신이었고, 그곳은 금송아지를 모시고 있던 북 이스라엘의 두 도시 중 하나였다(왕상 12:29).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와 하나님의 능력을 조롱하고 있었다. 율법에 따르면, 이 사람들은 그들의 우상 숭배를 인하여 벌써 죽음으로 정죄되었던 것이다(신 13:12-15). 하나님께서는 벌써 그들을 정죄하셨고, 문제는 단지 심판이 언제 일어나는가 하는 것뿐이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심판을 바로 행하시지는 않으므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보고 지나친다고 생각하기 쉽다(전 8:11). 이 경우에는,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조롱할 때까지 심판을 유보하신 것이다. 엘리사가 그들을 저주했나 하지 않았나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측면으로 생각해서는 별 의미가 없다.

두 번째 경우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이다. 이 부부는 거짓말로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령을 속이려고 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지식의

말씀을 주셔서 진실을 알게 하셨다. 베드로는 개인적으로 이들에게 저주를 내리지 않았다. 그는 단순히 아나니아에게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했다. 하나님께서 지식의 말씀을 주신 직후에, 베드로는 삽비라도 그 남편이 죽은 것처럼 죽을 것이라고 예언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교회에 본보기로 삼으셨다. 오늘날 교회의 위선자들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지는 않는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는, 율법이 수여된 직후 아론의 아들이 그것을 순종치 않음으로 죽임을 당한 것처럼, 신약 교회의 초창기에 생긴 특별한 본보기였다(레 10:1-2). 두 가지 경우 모두, 심판은 본보기로서 즉시 행해졌다. 그리고 둘중 어떤 경우에서도 사람이 죄지은 자를 저주하는 일은 없었다.

마지막 경우는 바울과, 바울의 복음전파를 방해하려 한 바예수의 일화이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지식의 말씀을 주셨고 바울은 바예수에게 예언한 경우이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그분이 하시려는 것을 알게 하셨고, 바울은 그것을 그 사람에게 나타내었다. 바울은 그에게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 하리라”라고 이야기하였다.(행 13:11). 여기에서 개인적인 원한은 개입되지 않았다. 진정한 복음의 일군은 결코 남을 미워하지 않으며 복수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들은 저주할 권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죄인이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증명하는 것이다. 남을 저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바울이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롬 12:14)라고 기록한 다음에 반대의 일을 행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누군가 잘못을 범했을 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여 그가 그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가 당신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어야 할 것이다. 누구든 우리에게 잘못을 범한다면, 우리는 은밀히 하나님께서 그를 도울 수

있도록, 우리가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다.

욕설, 비방하는 것(Reviling) “후욕하는 자나…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고전 6:10).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후욕하거나…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고전 5:11). 욕설을 하거나 매도하는 것은 말을 남용하는 것이다. 욕설하고 매도하는 것은 무례하고 오만한 말로 남을 호통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성령의 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육신의 감정을 따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서라도 여러분이 타인에게 욕을 하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 여러분이 잘못된 대우를 받거나 온당치 못한 판단을 받게 되더라도 말이다. “그래도 사람은 감정적인 존재인걸” 하는 핑계도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의 감정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성령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고린도 전서 4장 12절과 13절에는 타인이 우리에게 욕을 했을 때 올바르게 대처하는 방법이 있다. 사도들은 욕을 먹었으며, 핍박을 받았고, 명성에 손상을 입었으며 이 세상의 찌꺼기 처럼 되었다. 그들의 응답은 축복이었다.

바울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심판을 받을 때, 대제사장을 욕했다고 비난을 받았다(행 23:1-5).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행위였다. 그때 그는 바울을 율법에 따라 심판하려 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바울은 즉시 그를 “회칠한 담(위선자)” 라고 말했고, 그 주위에 서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한다고 바울을 꾸짖었다. 바울이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임을 깨달았을 때, 그는 사과를 했다. 그는 주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고 한 출애굽기 22장 8절을 인용하고 자신이 그 이야기를 했을 때는 대제사장에게 말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설명했다. 바울은 그가 상대하고 있던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거나, 아나니아의 대제사장 직무 찬탈을 인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역사에 따르면 아

나니아는, 그의 범죄에 대한 책임으로 로마인들에 의해 면직되었다가 불법적으로 대제사장직을 찬탈했다. 바울은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에도, 그의 대제사장이라는 직무때문에, 대제사장을 욕할 수 없었다.

심지어는 천사장인 미가엘 조차도 마귀에 대해 훼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했다. 모세의 시체에 대해 변론할 때, 그는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유 9)라고 말했을 뿐이다. 미가엘은 의심할 바 없이 사탄도 처음에는 기름 부음 입은 천사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심지어는 사탄과도 말다툼을 하지 않았다. 유다는 이러한 미가엘의 훌륭한 태도를, 권위를 멸시하고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태도와 비교하였다(8절, 10절).

마찬가지로 바울도, 배교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점까지 타락한 자들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 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훼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훼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벧후 2:10, 11). 이 사람들은 아무의 말도 듣지 않으려 한다는 사실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견책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그들에게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들을 멸시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안다(전 9:10). 이들에게는 주님, 그분의 말씀, 그의 교회나 그분이 세우신 지도자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 그래서 그들은 마치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아무런 두려움 없이 훼방을 하는 것이다.

베드로와 유다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천사로부터 배워야 한다. 배교한 천사를 하나님께 보고해야 하는 입장에 있던 천사들도 가혹한 말이나 잔인한 언어로서 송사하지 않았다. 그들은 저주나 욕설없이 단순히 사실을 전했다. 그들은 사람들보다 많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의 바르게

사실만을 전했다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이나 미가엘을 비롯한 천사들이 욕하고 헐뜯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을 알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성직자와 신도들이 권위자들을 향해 함부로 말하기를 꺼리지 않고 있다. 신도들은 그들의 목사들에 대해 말하며, 목회자들은 다른 목회자들에게 대해 함부로 이야기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만일 어떤 이가 죄를 범한다면, 그 문제가 목사나 장로에게 이야기되는 적절한 절차가 있다. 사실을 알아야 할 지도자에게 말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악의를 가지고 훼방하는 태도로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예의 없이 말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심지어는 천사들도 이러한 것들을 말할 때는 주의하는 태도를 보였다.

거룩함은 우리로 악을 말하지 않는 것, 아무도 훼방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아무리 악한 죄를 지은 사람도 우리가 욕할 수는 없다. 우리는 특히 리더들을 비방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비방하는 사람은 바울과 사도들이, 심지어는 천사들도 하기를 두려워하던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모든 사람을 향해 올바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겸비해야 하겠다.

거짓말과 거짓 증거함(Lying and bearing false witness) “너는 네 이웃을 향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출 20:16, 막 10:19). “모든 거짓말 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계 21:8). 이것들 말고도 다른 많은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거짓말을 싫어하시는가 보이신다. 거짓이면, 말이든 행위이든 간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다(계 21:27). 가장스러운 것 일곱 가지 중에 두 가지는, 거짓말하는 혀와 거짓증인이다(잠 6:16-19).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로울지라도 일단 약속한 것은 지키기를 원하신다. 이 모든 성경말씀들은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라는 말씀을 분명히 해준다(잠 19:5).

거짓말하는 것은 거짓이라고 알고 있는 사실을, 특히 속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진실을 감추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잘못된 인상을 주거나 주제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들어야 할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지 않는 것도 거짓말의 일종이다. 다시 말해서, 알려야 하는 사실을 감추고 있는 것도 거짓말이다. 만일 우리가 의도적으로 타인을 착각하게 만들거나 잘못된 인상을 준다면 행위로 거짓말하는 것이 된다. 거짓말이 얼마나 사소한 것인가, 누구에게 거짓말을 했는가, 무슨 목적으로 거짓말을 했는가 하는 것은 중요치 않다. 거짓말은 말 그대로 거짓말이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만일 두 사람이 논쟁을 벌인 후에 서로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그때 제 삼자가 두 사람을 화해시키기로 작정하고, 양쪽에 다른 편에서 먼저 사과를 하더라도 거짓말을 한다고 하자. 설사 그들이 화해를 했다고 하더라도, 제 삼자는 거짓말을 한 것이다. 좋은 결과가 옳지 못한 방법을 정당화하지는 못한다. 만일 부모가 자식을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한다면 어떻게? 그는 다른 곳에 간다고 말하고 교회에 갈 수 있을까? 만일 그렇다면, 그것 또한 거짓말이다. 당신은 교회에 가기 위해 죄를 짓고 모든 것이 잘 되었다고 생각해서 안된다. 믿지 않는 남편의 십일조를 내는 아내가 있다고 해보자. 그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의 십일조를 내지 않는 조건으로 그녀가 교회에 가게 허용하였다고 해보자. 그래도 그녀는 그의 십일조를 낼 수 있을까? 아니다. 이미 그녀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말을 어길 수 없다. 그녀는 남편을 속이는 것이 되고 결국은 남편의 신임을 잃게 될 것이다. 당신이 교회를 돕고 있다고는 해도, 만일 당신의 방법이 잘못돼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 목전에 죄이다.

어떤 이들은, 라합의 경우가 좋은 결과는 어떤 수단이든 정당화시킨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지

위해서 여리고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그녀는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녀는 단순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신 위대한 일들을 들었고 그분께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정탐꾼들을 숨겨 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거짓말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녀 행동의 원천이 되었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나라들이 그분을 능력을 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었다. 라합은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중의 하나이다. 만일 라합이 하나님의 율법을 알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거짓말을 통하지 않고, 그들을 구원할 다른 길을 내셨을 것이다.

구약의 다른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가 자신의 누이동생이라고 함으로서 두 번 거짓말을 하였다(창 12:10-20, 20:1-16). 그는 그럼으로써 자신의 아름다운 아내인 사라를 다른 이방 왕들이 빼앗고 자신을 죽이지 못하게 하려 했다. 두 경우 모두, 왕들이 사라를 아브라함의 누이인 줄 알고 아내로 취하려 했으므로, 비참한 결과를 빚을 뻔했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아브라함은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거짓말에 대한 책망을 받았고 한 번은 그 지역에서 쫓겨나기까지 했다. 위의 예들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 하는 거짓말이라도 옳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짓말이라는 수단없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또한 아브라함의 경우는 반쪽뿐인 진실만을 말하거나, 의도적으로 잘못된 인상을 심어줌으로서 거짓말하는 경우의 예가 된다. 왜냐하면 사라는 사실상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의 행위로도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만일 가짜 졸업장을 당신 것인 양 보인다면? 당신은 속이는 것이고 잘못된 인상을 줌으로서 거짓말하는 것이 된다. 만일 어떤 일에 사용하기 위해 당신이 일정액의 돈을 받는다면? 그리고 당신이 그 돈을 다 사용하지 않고 더 많은 액수

의 영수증을 제시한다면? 그것 또한 거짓말이 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거짓을 말해서는 안된다. 만일 우리가 이전에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어려운 상황들에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다. 하나님께 있어서는, “정직이 최선의 방법이다”라는 속담은 정말이다.

게으른 말(Idle words) 예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나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마 12:36-37)고 말씀하셨다. 그는 또한 마태복음 22장에서 누구든지 바보라고 부르지 말라고 경고하셨다.(시편 14편 1절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나,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를 바보라고 함)

혀의 중요성(Importance of the tongue) 우리는, 사람이 자기가 한 말로서 의롭다 함을 받고 정죄함을 받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혀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다. 또한 우리는 자신의 혀를 재갈먹이지 못하는 사람은 헛되고 쓸모 없는 종교의 모양을 가진 사람이고 자신의 혀를 제어하는 사람은 그의 온 몸을 제어하는 사람이라는 야고보의 가르침도 받았다. 이것은 우리가 기록해 지기를 원한다면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딤후 2:8).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루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골 4:6).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혀를 통제할 수 있도록 도우실 수 있기 때문이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숫군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시 141:3, 4).

제 5 장

눈 : 온 몸의 등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마 6:23, 24).

“나는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시 101:3).

영혼의 문 시편 기자인 다윗은 그가 자신의 눈앞에 어떤 악한 것도 두지 않겠다고 했을 때, 그의 눈과 언약을 맺었다. 그는 또한 하나님께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할 힘을 달라고 구했다(시 119:37). 허탄한 것은 가치 없고 어리석으며 진리가 결여된 것을 뜻한다. 왜 다윗은 자신의 눈이 악하고 허탄한 것을 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특히 강조했을까?

그 이유는 눈이 몸의 한 지체로서 가진 특별성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6:22-23절과 누가복음 11:34절에서 눈은 온 몸의 등불이라고 말했다. 만일 눈이 순수하다면(맑고 완전하다면), 온몸은 빛으로 가득 찰 것이다. 만일 눈이 악하다면(병이 들고 멀었다면), 반대로 온 몸은 어두움으로 가득 찰 것이다. 만일 온 몸의 등불이 어둡다면, 몸의 남은 부분의 어두움은 얼마나 더하겠는가?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는 눈은 사람의 영혼과 마음의 창이라고 가르치신 것이다. 눈은 우리가 외부에서 받아들이는 정보의 대부분을 인지하는 감각기관이다. 만일 우리의 눈이 악한 것만을 계속 보게 된다면, 우리의 생각과 행동도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심리학자들은, 우리의 생각을 형성하는 것의 90%가 우리가 보는 것의 영향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또한 실험 결과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의 65% 정도를 오랫동안 기억하는 반면에 듣기만 한 것들은 15%만을 오랫동안 기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눈이 우리의 정신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간단한 예로, 끔찍한 사고 장면을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만 듣는 것과의 차이점을 생각해 보라. 이것은 왜 “백문이불여일견(Seeing is believing)”이라는 속담이 사실인지 말해 준다.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것은 그의 생각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잘 증명되어 있다. 또한, 사람의 생각은 그의 인간 됨을 결정한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잠 23:7).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눈의 상태는 온 몸의 상태를 결정한다. 눈이 탐닉하고 즐기는 것은 온 몸이 탐닉하고 즐기게 된다. 요한이 안목의 정욕을 세속적인 3가지 것과 유혹의 하나로 정의했을 때,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요일 2:16).

야고보서 1:14, 15절은 유혹이 죄짓는 것의 첫 걸음이라고 가르친다. 욕심이 잉태한 후에는 죄악으로 자라난다. 눈으로 시작된 유혹이 몸의 죄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와는 금지된 나무의 실과가 보았을 때 그것을 따먹었다(창 3:6). 아간은 옷과 금을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로부터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리고 의심할 바 없이 아간은 처음에는 순종하려고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그 물건들을 보았을 때 물건을 보고 탐내었다(수 7:21). 다윗의 경우에는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느니라”(삼하 11:2)라고 하였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간음으로 이어졌고, 나중에는 살인으로 연결되었다. 사탄은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 높은 산 위에서 세상의 왕국들을 보여주었다(마 4:8). 이러한 모든 경우들이 안목의 정욕이 얼마나 강력한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이 눈을 통해서 얼마나 쉽게 오염될 수 있는지 알고 있다. 그는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온갖 종류의 유혹거리를 우리의 눈앞에

내어놓고자 한다. 먼저, 그것은 우리가 전혀 과거에 마음에 생각지 않았던 일을 연상시키는 방법이다. 둘째로, 이러한 장면들은 우리의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다가, 나중에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받거나 낙담했을 때 다시 돌아와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이다. 셋째로, 자꾸 그러한 장면들과 생각들에 접하게 되면 점차적으로 우리는 그것들에 익숙해진다. 우리는 점차적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심지어는 불가피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될 지도 모른다. 결국, 사탄은 우리가 어떤 일들을 상당히 오랜 기간 생각하게 된다면 죄를 지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한 장면들을 연상하는 것 자체도 죄이고, 결국은 몸으로 죄를 짓게 될 수도 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눈을 유혹으로부터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어떤 것들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보게 된다. 예를 들어, 우리는 천박한 옷차림을 어디서나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그러한 장면들로부터 완전히 분리될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눈과 마음을 훈련시킬 수는 있다. 우리는 유혹을 즐기거나 일부러 연장시켜서는 안된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나 행동의 죄를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성경말씀들 오늘날의 사회에서 우리가 마음먹기만 한다면 완전히 통제 할 수 있는 세 가지 시각적 유혹의 원인들이 있다. 그것들은, 음화(淫畵)와 텔레비전과 영화이다.

심리학자들과 사회학자들 그리고 몇몇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이 텔레비전이 사람의 심리, 특히 어린이들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시작하였다. 다음의 것들은 최근에 실시된 세 가지 실험의 결과로서 밝혀진 것들이다. 다음의 사실들은 종교적 관점이 아닌 과학적인 관점에서 기술된 것이라는 사실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우리들의 견해가 아닌 전문가의 연구결과이다. 그들은 텔레비전의 영향력과 그 위험성을 폭로하였다. 텔레비전의 강력한 영향력에 대해서 읽으면서, 스크

린에 투사되는 끊임없는 유혹과 악에 대해서 유의하라. 텔레비전의 영적인 위협과 심리적인 영향력이 텔레비전을 보는 것이 죄가 되게 만든다.

1977년 뉴스위크 2월 21일 자의 “텔레비전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 기사의 요약.

1. 부모 다음으로 텔레비전은 아이의 신앙과 태도, 가치관과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침.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는, 350,000편의 상업 광고와 18,000개의 살인 장면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게 됨.
2. 폭력적인 장면을 보는 것은 공격적인 행동을 유발함. 그것은 또한 타인의 폭력에 대한 저항감을 약화시킴.
3. ABC 방송국의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범죄의 약 22%는 텔레비전에 방영된 범죄 장면을 모방한 것이라 함.
4. 텔레비전은 서서히 편집증을 유발시킴. 그것은 또한 시청자의 삶에 폭력에 대해 과장된 두려움을 유발시킴.
5. 텔레비전은 부모와 차식사이, 혹은 부부사이나 친구사이 같은 정상적인 인간 관계를 왜곡시킴.
6. 텔레비전은 아동의 성장과정에 악영향을 미침. 아이들을 지치게 만들고 성장과정이라는 정상적인 과정을 지겨운 것으로 느끼게 만들.
7. 텔레비전에 중독된 아이는 정상적인 상상력을 발휘하지 못하며, 상황에 즉각적이고 감각적으로 반응하게 됨.
8. 텔레비전은 방관적인 태도를 기르게 함—실제의 삶에서 아동을 유리되게 함.
9. 텔레비전은 배움의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을 극복할 의지를 상실하게 만들. 아동의 주의 집중시간을 줄어들게 하고, 따라서 아동의 주의를 끄는 더 많은 방법이 필요하게 됨.
10. 텔레비전은 사회생활의 주체가 됨. 다시 말해 아동에게 인생에 대해 잘못된 인상을 심어주고 또한 사람의 역할에 대해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줄 우려가 있음. 예로서 부자가 되고 권력을 소유하기 위해 불의를 눈감아 주는 것 같은 행위나, 죄를 짓는 것이 이득이 된다는 생각 등을 들 수 있다.

11. 광고는 텔레비전의 기만 방법 중 가장 강력한 것이다. 예를 들자면 상품을 사면 소비자가 더 아름다워 보이거나 매력적으로 보인다거나, 어떤 약을 먹으면 모든 병이든 고칠 수 있다거나, 인스턴트 식품을 먹으면 건강에 좋다는 식의 광고들이 있다.

1978년도에 윌리엄 머러 출판사에 의해 출간된 “텔레비전을 없애야 하는 4가지 이유”의 요약. 이 책의 저자인 제리 맨더는 현재 특별한 이유로 인해 비영리 광고단체를 운영하고 있다.

1. 텔레비전은 시청자의 지각을 상실하게 만든다. 실제적인 세상경험의 기회를 박탈한다.
2. 텔레비전은 잘못된 가치관을 심는다. T.V.의 상업 광고는 잘못된 경제적인 가치관을 생성하고 또한 경제적 통제의 한 수단이 된다.
3. 텔레비전은 또한 건강에 해롭다. 텔레비전의 화면이 눈에 좋지 않을 뿐더러 시청자의 게으름을 유발하기 쉽다. 심리적으로는 화면과 뇌의 효과로 인해 건강에 좋지 않다. 텔레비전은 시청자의 의식을 포기하게 만들고, 그들이 빠져들고 있는 대상물 중의 하나와 같이 될 수 있다고 암시한다. 텔레비전은 상상력의 발달을 저해하고 실제에 대한 잘못된 인상을 심어준다. 그것은 우리를 피곤하고 지치게 하고 무관심하고 때로는 과민하게 만든다.
4.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별로 가치가 없는 것들이다. 그 특성상 T.V.는 두려움이나 악의, 욕정 같은 감정들을 나타내게 되고, 사랑이나 평화 그리고 행복 같은 깊은 감정이나 삶의 형언하기 어려운 것들은 표현하지 못한다. 텔레비전이 시청자의 유익이나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사용된다고는 믿기 어렵다.

호주 국립대학 연장교육센터의 텔레비전에 관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텔레비전은 시청자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을 잃게 한다. 따라서 자부심을 잃게 만들고, 정체성상실과 건망증을 유발한다.
2. 텔레비전은 시청자를 사회로부터 동떨어지게 할 가능성이 있다.
3. 텔레비전은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유발한다.
4. 텔레비전은 안정제나 흥분제 사용 증가의 주된 원인이 되어왔다.

우리는 여러분이 상기의 자료들을 읽어보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위의 것들은 간단히 요점만을 소개한 것이기 때문이다. 뉴스위크지의 자료는, 부모들과 교사들, 학생들과의 인터뷰를 실어서 더 신빙성이 있다. 텔레비전의 해악과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증명하기 위해, 최근의 신문과 잡지에 나온 텔레비전에 관한 기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이 자료들 중 상당수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시의 무어 목사에 의해서 제공된 것이다.)

1. “죄악의 텔레비전 수상기를 태우다” 미시간주 배틀크릭시의 한 나사렛 교회에서는 아이들의 마음이 텔레비전에 의해 오염된다고 생각해서 텔레비전 수상기들을 불태웠다.
2. “침례교 신자들 유혹을 불태우다” 오하이오주 클레버랜드시의 남침례교 신도들은 사도행전 19장의 마술에 관한 책을 불태우는 성경 말씀을 읽고는 감동을 받아서 텔레비전 수상기들을 불태웠다.
3. “우주비행사의 가족들은 달 착륙 장면을 보기 위해서 텔레비전 수상기를 빌릴 예정임.” 달 표면에서 걸었던 제임스 어윈의 가족들은, 불시간도 없고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에 나오는 폭력적인 장면들이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텔레비전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
4. “텔레비전 중독은 가정 생활에 악영향을 미침” 오스틴시의 아메리칸 스테이트지 1977년 3월 20일자.

5. “작가들과 비평가들에 의해 어린이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텔레비전이 비난받다.” 와코시의 트리뷴 헤럴드지 1974년 4월 8일자. 엘리스터 쿡은 텔레비전이 교회나 학교보다도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한다. 그것은 일시적인 유행을 번지게 하고 청소년문제들을 유발시킨다.
6. “텔레비전은 아이들의 호기심을 무디게 함” 이것은 북캐롤라이나주 샬럿데시의 유치원 보육교사인 헬가 룬퀴스트에 의해서 밝혀진 사실임.
7. “살인사건 재판 중의 텔레비전에 대한 심의“ 한 15세 소년이 텔레비전에 방영된 폭력적인 장면을 본 후 83세의 노파를 살해함.
8. “ ‘경찰청 사람들’의 줄거리가 시카고에 사는 5명의 10대 소년들을 감옥에 들어가게 함” 이 젊은이들은 텔레비전에 방영된 강도 짓을 흉내냄.
9. “소년, 여인을 죽인 것을 자백하다” 17세의 한 소년은 텔레비전의 살인 추리극을 흉내내다 한 여인을 살해함.
10. “6명의 소년, 일본의 텔레비전 쇼를 흉내내다 살인을 저지름”
11. “심리학자들, 텔레비전의 폭력에 대해 경고함” 심리학자 필립 노블은 폭력성을 이유로 자신의 자녀들에게 만화조차도 보지 못하게 함.
12. “미국의 텔레비전 프로는 멕시코 사람들에게는 너무 폭력적임” 멕시코는 37개의 미국 인기 프로들에 대하여 자국내 방영을 금지시킴.
13. “지나친 텔레비전 시청은 아이들에게 해로움” 의사들은 아동의 눈과 정신적 건강을 위해 텔레비전을 대체할 다른 생산적인 활동을 찾을 것을 권고함.
14. “아이들에 의해 개탄된 텔레비전의 폭력성” 던칸 레오나르도라는 유명한 영화배우와의 인터뷰
15. “안녕 텔레비전” 텔레비전을 치운 후 가정의 삶을 되찾은 한 진솔한

가정의 이야기가 1978년도의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실림.

16. “깜박이는 폭력” 1979년 3월 19일 타임지 기사. ‘전사’라는 영화가 길거리의 싸움과 폭력배사이의 집단 난투극, 그리고 적어도 세 건의 살인사건에 영향을 끼쳤다는 주장.
17. “텔레비전의 발명가는 ‘내가 텔레비전에 대해서 가장 좋아하는 사실은 그것을 끄는 스위치가 있다는 점입니다’라고 말한다.” RCA사(역주-미국의 유명한 가전제품 회사)의 블라디미르 주리킨 박사는 텔레비전이 특히 젊은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며 전혀 교육적이지도 않다고 말했다.
18. “텔레비전과 함께 사는 것을 배움” 1979년 5월 28일 타임지.

이 모든 것들은 텔레비전의 영혼과 정신, 감정과 육체에 미치는 해악을 잘 지적해 주고 있다. 텔레비전은 육체의 정욕을 조장하고, 끊임없는 유혹의 원인이 된다. 또한 우리의 시간을 도둑질해 가고, 가정의 삶을 왜곡시키며, 아동의 성격과 도덕성을 비뚤어지게 한다. 또한 범죄를 조장하고 정신적으로도 해롭다. 이러한 사실들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텔레비전을 멀리하도록 결정하는 데 충분한 것이 아닐까? 게다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된 목회자들은 몸된 교회로서 텔레비전이 영적인 생활에 해롭다고 이미 규정하였다. 목회자들은 성도의 일을 온전케 하고 교회 안의 잘잘못을 판단할 권위를 그리스도로부터 부여받았다. 이러한 중대사항에 있어서는, 몸된 교회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반박에 대한 대답들 텔레비전에 관한 이 입장에 대해서 몇몇 종류의 반론들이 있었다. 종종, 많은 프로그램들이 좋고, 적어도 나쁜 것은 아니라고 주장되었다. 예들 들자면, 사람들은 뉴스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역사물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나쁘지 않다는 것은 사실이고 텔레비전 수상기 자체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어떤 프로그램들을 보는

것은 죄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심지어는 뉴스조차도 편파 보도를 하기 쉽고 또한 폭력이나 범죄 반역을 미화할 수도 있다. 때로는 상업 광고도 옳지 못한 주장들을 내세운다. 그리고 또한 좋은 프로그램에서조차 저속하고 불경한 말이나 장면이 나오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도 없다. 물론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의 본성이다. 일단 사람들이 텔레비전을 보기 시작하면, 그들의 좋은 의도와는 관계없이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들은 뭐든지 보게 된다. 경건하지 않으나 흥미 있는 프로그램을 보는 도중에 텔레비전을 끄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다. 그것을 보는 사람은 아마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것이다. “딱 한 번 보는 건데 뭐 어때?” 그러나 그 사이에 텔레비전의 교묘한 영향력은 이미 시작된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누구든 자신에게 이로운 프로그램만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러한 방식으로 자신을 훈련시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정말로 유익하고 깨끗한 프로그램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좋은 프로그램만을 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텔레비전 보는 것 자체를 포기하는데 주저할 이유가 없다. 만약 그들이 정말로 좋은 프로그램만을 보기 원한다면, 전혀 보지 않는 것과 별 차이가 없게 될 것이다. 그들은 ‘순종’과 더 큰 영적 진보를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포기하는 데 주저해서는 안된다. 텔레비전을 통해 전달되는 진정한 지식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그것을 보지 않고도 사회나 시류에 대해서 더 좋은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

두 번째 반대는 텔레비전은 악한 것을 방영하기는 하지만, 어차피 같은 일들을 매일 매일의 삶 속에서 접하게 되므로 상관없다는 논리이다. 이것을 대답하며, 우리는 세상의 죄에 대해서 듣고 보는 것과 그것을 신성한 가정에 초대하는 것은 다른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해야만 한다. 이것은 유혹이 여러분의 마음 속으로 들어오는 것(죄는 아니지만)과, 그 유혹을 마음 속에서 즐겨서 마침내 욕정이 되게 하는 것(명백히 죄임)과 마찬가지로의 차이점이다. 가정은 개인의 평화와 안정의 장소이다. 그는 모든 세상을 깨끗

하게 할 수는 없을 지는 몰라도, 그 자신의 집은 깨끗이 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 하루 종일 세상의 죄에 시달리다가, 안식과 평화, 사랑과 거룩함이 있는 집에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텔레비전을 집에 들여놓는 것은 그것에 방영되는 죄악을 허가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특히 아동의 눈앞에 그것이 방영되게 하는 일은 더 그렇다. 죄가 존재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과, 그것을 자신에게 허락하고, 즐기고, 바라보는 것을 탐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다.

결 론 자주 텔레비전을 보는 그리스도인의 위치는 어떤 것일까? 그는 과연 어떻게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들은 즐기면서 악은 미워할 수가 있을까? 명백히 그가 사랑하는 것은 잘못된 곳에 있다. 이것은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요일 2:15). 만일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가정에 텔레비전을 들여놓는다면, 그의 영성은 곧 떠나갈 것이다. 그러한 환경에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릴 것이고 영적으로 유약해 질 것이다. 물론 가정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다른 가족들이 이 경우에 있어 아무런 선택권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텔레비전이 그들의 삶을 주관하지 못하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들이 그것을 보게 된다면, 텔레비전은 그들의 영성을 도둑질해 갈 것이다.

딱 한 번 하나의 프로그램을 보는 것이 죄라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때때로 보는 것조차도 위험스럽다. 자주 텔레비전을 보는 것은 쉽게 죄악으로 흐를 수 있다. 왜냐하면 성경은 육체적 욕망에 탐닉하는 것과 시각적으로 악을 즐기는 것을 정죄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령 받은 백성에게 여기에 대한 확신을 주셨다. 그러므로, 로마서 14:23과 야고보서 4:17이 여기서 적용된다. 믿을

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이고, 선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인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아주 조심스럽고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취해진 것이다. 그러므로 가볍게 이해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전도서 7장 29절에서의 현자의 말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제 6 장

성경적인 장신구와 옷차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땅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딤후 2:9).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신 22:5)

외적인 몸가짐은 거룩함의 중요한 요소이다. 많은 성경구절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옷을 입고 자신을 단장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다. 우리는 위의 두 구절을 포함한 성경의 말씀들을 살펴봄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외적 몸가짐에 관한 성경적인 원칙을 찾을 것이다.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러한 성경구절들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먼저, 의복의 형태는 성경이 쓰여진 시대 이후 급진적으로 변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의복에 관한 가르침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해야 한다. 또한, 남성의 옷차림에 대해 논란이 시작되기 전에는 남성의 의복에 대해 몇 가지 규칙이 있었으므로, 만일 우리가 이 논제를 거룩함에 연관지을 수 있다면 이것은 남성과 여성에게 똑같이 적용되리라 본다.

아담함 먼저,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9절에서 아담한 옷을 입는 것에 대

해 이야기한다. 아담함이라는 말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옷차림과 행동거지에 있어서 점잖고 정숙한 것이다. 바울은 여성들이 어떻게 자신을 단장해야 하는지 이야기하면서, 아내들은 그들의 구원받지 못한 남편들을 그들의 선한 행실로써 구원 얻게 할 수 있다고 말한다(벧전 3:2). 정숙한 옷차림에 대한 필요성은 아담과 이브의 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원래 그들은 무죄한 상태로 창조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혀져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선과 악을 구별하는 열매를 먹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고 또한 자신들이 벗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동물의 가죽으로 옷 입히셔야 했다. 그때 이후로 사람이 정숙하게 옷을 입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되어 왔다. 사탄이 사람에게 그 반대의 일을 행하려 한다는 것을 주의하여 보라. 한 귀신들린 남자가 한 일들 중에 한 가지 일은 그의 옷을 벗는 일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 그는 정상적으로 옷을 입고 있었고 또한 온전한 정신 가운데 있었다(눅 8:27, 35). 정숙하지 못하게 옷을 입는 것은 정욕적인 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자신의 몸을 과시하고 이성을 정욕으로 유혹하려는 욕망을 나타내는 것이다. 경박함은 특히 남자들에게 강한 유혹과 부추김이 된다. 남성은 여성보다 더 시각적으로 유혹받기 쉽기 때문이다. 다윗은 이러한 유혹에 굴복해서 간음죄를 범했다(삼하 11:2), 그리고 남자들은 경박하게 옷을 입은 여인을 보고 시각적인 죄를 범하기 쉽다. 그러한 경우에 남자뿐만이 아니라 상대방 여성에게도 잘못이 있다.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정숙한 옷을 입는 일이다.

정숙한 옷차림 그러면 이제부터 이러한 원칙들을 오늘날 우리가 관련되어 있는 질문들에게 적용해 보도록 하자. 정숙한 옷차림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정숙하게 옷을 입는다는 것은 이성에게 점잖지 못하게 몸을 드러내는 것을 삼가는 일이다. 정숙하지 못하게 옷을 입는다는 것은 이성에게 몸을 드러냄으로서 이성을 유혹하는 것을 말하고 혹은 깨닫

지 못하는 사이에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의 몇몇 가지는 정숙한 옷차림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들이다; 셔츠, 목이 패인 옷, 치마의 길이, 너무 끼는 옷, 속이 비치는 옷 등등. 남성이나 여성이나 정숙한 옷차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옷차림의 기준은 반소매이상의 셔츠와 무릎 아래로 내려오는 치마이다.

허영 다음으로 바울은 여성들에게 정절로 자신을 단장하고, 땅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염치란 부끄러움을 알고 존경심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정절이란 침착하고 참을성 있으며 자신을 제어할 줄 아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말로 해서 그것은 허영심의 반대말이다.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미워하시므로(3장 참조), 천박한 겉치레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 자아를 만족시키기 위한 옷차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므로 여성들은 외적인 옷차림에 의존해서는 안될 것이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벧전 3:3-4).

검소한 옷을 입음 허영심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은 값비싼 옷을 입는 것이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빌 4:5). 이것이 우리가 금이나 진주나 비싼 의복으로 우리를 꾸며서는 안되는 이유이다. 값비싼 옷은 사회, 문화적 배경이나 개개인의 수입에서 다르게 정의될 수 있다. 그것을 구분하는 방법은 내가 입은 옷이 친척이나 같은 믿음의 지체들에게 내 부를 과시하는 수단이 되지 않는나 자문해 보는 것이다. 그것이 질투심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을까? 그것을 입는 것이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부에 대해 선한 청지기직을 하는 것인가? 많은 영역들에서 주의 일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동안 우리가 필요치 않은 옷이나 자동차나 비싼 보석에 탐닉하는 것은 명백히 하나님께 슬픈 일이다. 하나님께서 미국을 물질적으로

축복하시고 특히 많은 그리스도인을 축복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다. 그분은 우리가 우리의 번영을, 우리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얻는데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남성과 여성의 구별 신명기의 말씀은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을 일깨워 준다. 바로 남성과 여성의 구별이 그것이다. 남녀간에는 생물학적 차이점 외에도, 정신적 감성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하나님께서는 남성 여성의 구별을 위해 몇몇 가지 사회적인 방법을 세워 놓으셨다. 말하자면, 옷과 머리의 길이(7장 참조)이다. 이러한 구별은 하나님께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분은 남성과 여성의 각기 다른 삶의 역할을 지정하셨기 때문이다(3장 참조).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동성애를 막는 중요한 방책이 된다(9장 참조). 의복에 있어서의 성의 구분 원칙은 남성이 치마를 입고 여성이 남성의 옷을 입는 유니섹스(Unisex) 성향에 의해 왜곡되고 있다.

신명기 22장 5절은 오늘날에도 유효함 많은 사람들이 이 구약성경의 구절은 오늘날의 사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우리는 그러나 이 구절은 오늘날에도 적용되고 또한 다른 많은 성경구절들이 그것을 뒷받침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 먼저, 어떤 이들은 성경이 쓰여진 시기에는 남성과 여성 양쪽이 긴 겹옷을 입었기 때문에, 의복으로서의 분명한 성 구분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양쪽이 긴 옷을 입었다는 것은 사실이나, 또한 남성이 입던 긴 옷과 여성이 입던 긴 옷 사이에 분명한 구분이 있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팔레스타인 지방의 역사와 문화를 살펴보면 그것을 알 수 있고, 성경 또한 그것을 증명한다.

더 심각한 반대는, 신명기 22장 5절은 율법의 일부로서 주어졌기 때문에 오늘날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다.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같은 장의 9, 10, 11절이 오늘날에는 지켜지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그 구절들은 다른 종류의 씨앗을

섞어 뿌리는 것과, 황소와 당나귀를 함께 밭에서 일시키는 것, 한가지 옷을 다른 종류의 실로서 짜는 것을 금지한 구절들이다. 이것을 대답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이 구절들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려내야 한다. 5절은 남성과 여성의 도덕적인 구별을 가르친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며 또 오늘날에도 유효한 것이다. 9절부터 11절의 말씀은 죄와 세상으로부터의 분리를 요구하는 가르침의 예표이다. 우리는 그들의 형식적인 요소들을 지킬 필요는 없지만 예표 안에 포함하고 있는 교훈은 지켜야 한다. 오늘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구분은 다른 종류의 씨앗들과 동물들 그리고 섬유들의 구분이 아니고 거룩함과 불경함,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의 구분이다. 두 가지 종류의 율법, 도덕적 율법과 형식적 율법의 차이점은 5절에서만 “가증한”이라는 단어가 쓰여졌고 다른 구절들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특히 5절은 사람이 이성(異性)의 옷을 입는 것은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가증한 것이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좋아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을 바꾸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 여호와와는 번역치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말 3:6).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그분의 심판을 내리거나 돌이키시는 하시지만 그분의 성품은 변하지 않는다. 그분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시고, 또한 절대적으로 죄를 미워하신다.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피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형식적인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는 없다(단 한 가지의 예외는 사도행전 15장 29절이다. 만일 그것이 부분적이거나 형식적인 것으로 간주된다고 하더라도 지켜야 한다). 형식적 율법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어떤 특별한 찬양의 방법들과 세상과의 구분에 관한 것들이다. 많은 경우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싫어하고 멀리해야 할 것들을 정해 주셨으나 그것들을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라고

고 부르지는 않으셨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동물들은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고 또 정결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셨다(레 11장). 그것들은 하나님께나 오늘날의 우리에게 가증한 것이라고 불리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성의 옷을 입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므로 자동적으로 그것은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가증한 것이 된다. 어떤 가증한 것도 새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하고 불 못에 던지우게 될 것이다(계 21:8, 27).

신약의 가르침 신약의 여성들을 위한 이 기준은, 베드로가 구약의 여인들의 예를 통해 뒷받침함으로써, 또한 오늘날 우리가 따라야 할 기준이 된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벧전 3:5) 우리는 구약의 여성들이 신명기 22장 5절의 말씀을 따랐던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베드로는 구약의 그 기준이 오늘날의 기준이 되기를 의도했던 것이다.

몇몇 다른 신약의 말씀들이 현재도 하나님께서는 성의 구분의 중요히 여기신다는 것을 증명한다.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 남성은 짧은 머리를 여성은 긴 머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친다(7장 참조). 고린도전서 6장 9절~10절은 남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가르친다. 남색자는 성의 경계를 넘어서 여성처럼 행동하는 남성을 말하는데 여자처럼 옷을 입는 것은 남색행위의 한 요소가 된다. 남색은 동성연애와는 다른 것이고 성경에도 별도로 언급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라. 남색은 동성애에는 못 미치나, 행동이나 용모에서 이성처럼 보이게 하는 모든 시도를 말한다. 이 성경구절은 다른 성을 흉내내며 행동하거나 다른 성의 옷을 입는 것을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잘 말해 준다.

의복에 있어서의 성의 구분 우리가 성의 구분을 현대 서구사회에 적용해 보면, 남자는 드레스나 스커트나 블라우스를 입어서는 안되며, 여성은 바지를 입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월은 마침내 우리가 여성뿐

만이 아니라 남성들까지 가르쳐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최근 미국에서는 한 남자 직원이, 그의 사무실 여직원들은 바지를 입을 수 있는데 반하여 자신은 치마를 입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해 법원에 불평등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자가 치마를 입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데에 동의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그들은 남자 목회자가 치마를 입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여자가 바지를 입는 것보다 더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다.

신명기의 말씀은 모든 문화에 적용되도록 기록된 것이다. 신명기 말씀 안의 남자의 의복이라 함은 전통적으로 그 문화권 안의 남성이 입는 모든 의복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은 문화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스코틀랜드의 일부 지역에서는 남자가 킬트(Kilt, 치마처럼 생긴 스코틀랜드의 민속의상)를 입는 것이 적절한 일이지만, 같은 의상을 미국에서 입는 것은 부적합한 일이다. 만일 어떤 형태의 의상이 전통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남성이나 여성 중 한쪽에 의해서만 사용되어 왔다면, 그것을 다른 성이 입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물론 다른 문화권에 속한 사람처럼 서구식으로 옷을 입기로 한다면 그는 서구의 옷입는 방식을 따라야 할 것이다.

오늘날 세상에서 바지가 남성의 옷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심지어는 여성을 위해서 디자인된 바지마저도 남성의 바지와 아주 비슷하게 만들어 졌기 때문에 그것들은 “남자의 의복”이라는 개념 안에 포함된다. 포함된다는 것은 일부분으로서 속한다는 것이고 또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모든 형태의 바지들은 명백히 남성의 의복과 연관되어 있고 또한 그러한 형태와 기능을 가지고 있다. 청바지와 같은 바지들에 있어서 소년과 소녀들이 입는 것이 같은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역사적으로, 여자가 바지를 입는 것은 잘못이라고 인식되어 왔다. 사실상, 제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여성이 바지를 입는 것이 미국 내에서조차 거의 인정받지 못하였다. 그때, 여성들은, 남성들이 전장으로 나가는 동안,

공장 내에서 남성들의 위치를 차지하기 시작했다. 이 당시에 여성들의 그들의 머리를 자르는 것과 담배를 피우는 것과, 술을 마시는 것이 일반화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바지는 남자의 의복으로 간주되었다. 오직 사회가 혼란하고 여성들이 남성들의 역할을 전횡할 때 여성들이 바지를 입기 시작했다.

심지어는 오늘날에도 바지가 남성의 의복이라는 증거가 많이 남아있다. 바지는 남자의 기본적인 의복이고 또한 남자를 상징하는 것이다. 항상 바지만을 즐겨 입는 여성을 주의 깊게 본 일이 있는가? 그들의 말씨나 동작의 독특한 버릇에는 분명한 변화가 있고 그들의 여성적인 태도는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다리를 꼰다거나하는 식으로 여성적이지 않게 행동하기도 쉽게 된다. 만일 드레스를 입는다면 그 여성은 훨씬 더 여성적으로 행동하고 또 여성적으로 보일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고 또 원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또한 여성이 입는 대부분의 바지들은 여성의 드레스보다 조심성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이 또한 여성이 바지를 입어서는 안되는 또 다른 이유이다.

한때는 대부분의 보수적인 교회들이 이 문제에 대해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이 이 문제에 대해 타협을 했을 때, 그들은 흡연과 음주 그리고 다른 거룩함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타협을 했다.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개신교 목사들은 동정녀 탄생을 부인한다. 따라서 다른 교회들이 의복에 대해 이러한 가르침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논의의 대상도 되지 못한다. 그들은 변했지만, 하나님께서 변하시지 않았다. 우리는 성경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세상이 우리의 길을 잃게 해서 마침내 하나님 말씀의 근본적 가르침마저도 부인하게 할 세상의 흐름을 따를 것인가?

지금껏 우리가 다룬 것 이외에는 의복에 대해 특별한 제한은 없다. 성경에는 예를 들어 모자 같은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가르침이 없다. 정숙하고 기쁨이 있는 옷이라면 우리가 입어도 좋은 옷들이다. 물론, 좋은 취향과 관

습이 상황에 따라서 특정한 옷들은 어울리지 않게 할 수도 있다. 특히, 영적 지도자들은 타인들 앞에 좋은 인상을 남겨야 하고 단정한 정장을 해야 한다. 만일 경제적인 사정으로 정장을 하기가 어려운 사정이라면, 거룩함의 잣대로 그를 판단해서는 안된다. 야고보는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과 돈이 많아 옷을 잘 입은 사람을 교회 안에서 차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약 2:1-9). 그러나 혹 가난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깨끗하고 단정하게 입을 수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大使)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우리가 좋은 대사가 되기 위해 새 옷을 입을 필요는 없지만, 단정하고 깔끔한 옷을 입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세상으로부터의 구분 이 시점에서, 외적인 모습에 영향을 미치는 거룩함의 다른 중요한 요소를 고찰해 보기로 하자—그것은 바로 세상으로부터의 구분이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분의 백성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기를 원하셨다(1장 참조). 이것은 외적으로도 세상과 구별됨으로서 세상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포함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들의 식량과 의복, 그들의 농사법과 찬양하는 것, 그리고 그들의 안식일로서 이방인과 분명히 구별시키셨다. 누구든 유대인을 행동을 살핌으로서 구별해 낼 수 있었다. 결과로서, 성경 속의 고대 민족들 중 유대인만이 그들의 전통적인 문화와 종교적인 유산을 지켜낼 수 있었다. 이집트인들이 옛날 바로 왕의 시대와 같은 문화와 종교, 언어를 가지고 있지 않다. 페르시아와 시리아, 그리스와 로마인들도 그들의 고대 문화와 종교, 정치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다. 히타이트와 바벨론, 에돔과 앗시리아, 팔레스타인과 암몬 같이 이스라엘과 공존했던 다른 민족들과 나라들조차도 독립국으로 살아남지 못했다. 그러나 유대인들만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힌 시절과, 로마의 점령, 그리고 국토없이 1900년을 지내면서도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켜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을 다른 나라들과

구분시켰고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게 한 것이다.

비슷하게도, 그리스도인이 택하신 자들로서 남기 위해서는 내적 외적으로 구별됨이 있어야 한다. 의복과 장식에 있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르게 하기 위해 많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으셨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로 구별함을 지니고 동시에 정숙함과 겸손함, 그리고 성의 구별을 지니게 하게 하기 위해 특정한 기준을 선택하셨다. 요점은 의복과 행동 그리고 장신구에 대하여 거룩함의 기준을 지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것들은 그리스도인과 유혹, 죄, 세상사이에 거리를 만든다. 그것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구분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구별함의 원칙들과 병행해서, 또한 우리를 세속적으로 보이게 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피해야 한다. 어떤 형태의 머리모양과 옷차림은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지 않을 지는 몰라도, 너무 세속적일 수 있다. 다른 문화와 시대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을 지는 몰라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서는 그것들이 불경스러운 모임이나 태도를 상징할 수도 있다. 한 사람의 외모는 그 사람의 삶의 방식과 신념, 그리고 태도에 대해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예를 들어서 히피족은 그들의 머리모양과 옷차림으로서 자신들의 반항의식과 정치적 생각, 그리고 성적인 방종을 나타내려 하였다. 중국인들과 일부 서양인들은 마오 망토를 입음으로서 그들의 공산주의 사상을 나타내었다. 최신유행이나 특정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패션을 주의해야 할 일이다. 스스로에게 그러한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죄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좋은 본이 될 수 있을까 자문해 보라. 이것이 나의 반항심을 나타내는 것은 아닌가? 혹은 이것이 교회 안팎의 사람들에게 좋은 모범이 되는 것인가? 혹시 이것이 다른 믿음의 지체들에게 거치는 반석이 되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세상의 일시적 유행이나 유행난 취미를 따르는 것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서,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너무 많이 빠질

수가 있다. 또한, 경쟁심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도 있다. 이러한 태도는 겸손함과 거룩함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우리는 세상과 그 욕망들에 사로잡혀서는 안된다. 아마도 우리는 어떤 일들을 세상과 너무 친근하게 보인다는 이유만으로도 피해야 할 것이다.

세상과의 구별이란, 세상과 벗되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선을 긋고 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목사는 이것을 성도들에게 분명히 알려야 한다. 신도들은 자신들이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목사가 세워놓은 기준을 순종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기본적인 거룩함의 기준들을 지킬 수가 있다. 만일 어떤 이들이 특정한 영역에 대해 순종하지 않는다면, 반항하는 마음과 타협이 점점 강해져 마침내 거룩함을 완전히 손상시키게 될 것이다. 혹은 그 반대로, 목사가 너무 가혹하고 참을성이 없어서, 현명치 못하게 성도들을 반항하게 하고 새 신자를 교회에서 몰아낼 수도 있다.

화장(Paintings of the face) 이 주제는 허영심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특히, 화장은 염치와 정절로 자신을 단장하라고 가르친 바울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염치는 존경심과 남 앞에서 자신을 나타내기를 꺼리는 겸손함이지 뻔뻔스러운 자기주장이 아니다. 화장은 명백히 다른 성을 매혹하기 위한 수단이다. 화장은 관능성을 강조함으로써 남성들의 진정한 사랑이 아닌 욕정을 불러 일으킨다. 구약성경이나 역사를 통해 화장은 뻔뻔스러움, 자신을 나타냄, 유혹과 매춘과 관련을 가지고 있다. 역사에 따르면, 성적으로 어필하기 위해 눈꺼풀을 화장하는 것은 기원 약 3000년 전 고대 이집트에 처음 등장하였다. 이러한 행동은 잠언 6장 25절에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네 마음에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흘리지 말라” 이 성경구절이 말하는 여자는 주변의 다른 구절들에서 악녀나, 이방여인, 매춘부 혹은 음란한 여자라고 불린다. 나중에 얼굴에 화장을 하는 것은 남자를 유혹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유명한 예로서, 열왕기하 9장 30절을 읽어보라. 예후는 이스라엘의 기름부음 받은 왕으로서 주님의 말씀

을 미워한 아합의 가족을 멸절시키는 임무를 가지고 있었다. 아합의 아내인 이사벨은 예후가 오고 있다는 말을 듣고는,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예후를 유혹하고자 한다. 그를 유혹하는 방법으로, 성경은 그녀가 자신의 얼굴을 칠했다고 말하고 있다. 예후가 도착했을 때, 그는 그녀의 전략을 알았고 그녀를 죽이라고 명령했다.

이사벨과 자신의 나라를 구한 에스더의 현저한 대조를 살펴보자. 그녀는 그녀의 임의대로 페르시아 왕 앞에 무엇이든 내어놓을 수 있었다. 다른 모든 왕비들은 모든 종류의 화장품들과 장신구들을 요구해 받았으나, 에스더가 요구한 것은 무엇이었나? 아무것도 없었다(에 2:13-15). 그녀는 왕을 유혹하기를 원하지 않고 그녀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지기를 원했다. 그녀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기다렸다.

다른 두 개의 성경구절이 화장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 말해준다. 그것들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들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화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말해주기 때문이다. 예레미야 4:3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이스라엘을 자신의 연인들에게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 화장하고 장식을 하는 여자로 묘사하셨다. 비슷한 구절은 에스겔 23장 36-44절에서 발견된다. 40절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자신들의 눈을 칠하고 장신구를 두른 두 여인에 대하여 묘사한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마지막 구절들에서 이 두 여인은 간음의 죄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화장하는 것을 간음이나 매춘과 연관지어 생각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경 어디에서도 화장을 덕 있는 여인과 연관짓는 것을 찾아볼 수 없고, 항상 간음이나 매춘과 연관을 짓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화장과 연관지어서 생각하시는 것이므로, 우리는 이러한 행위를 피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릴 수 있다.

역사적으로, 1700년대와 1800년대의 영국 국회에서 여성의 화장을 금지하기 위한 법안이 상정되었다. 대부분의 미국 식민지들에서 이러한 행위

는 직접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거나, 사회에서 나쁘게 생각되어졌었다. 브리태니카 백과사전을 보면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야, 화장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고 마침내 사라지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심지어는 그 당시에도, 화장을 하는 것은 드문 일이었다고 제한되어 있었다. 그 이전에는, 자신의 머리를 자르고 화장을 하는 여자는 창녀나 비슷한 사람으로 간주되었다. 1945년까지도 대부분의 보수적인 교회들은 얼굴에 화장을 하는 것을 죄라고 여겼다. 그러나 그들은 서서히 흡연, 음주나, 춤추는 것처럼 화장하는 것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우리에게, 화장이 그저 단순한 유행이나 근대화의 산물이 아닌 오늘날의 교회들이 다른 많은 악들과 함께 받아들인 고대 풍습의 재현임을 알게 해준다. 영국과 미국의 개척 부흥사는 그것을 정죄하였다. 로마 제국의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하지 말도록 끊임없이 가르쳤다. 다시 한번, 우리는 현대의 많은 교회들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성경을 따를 것인가? 결정해야 한다.

얼굴을 칠하는 것은 바울이 가르친 염치와 정절로 자신을 단장하는 것과 반대된다. 우리는 성령께서 이 영역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구하여야 한다.

보석 보석과 장식으로 자신을 치장하는 것은 허영심의 한 형태이며 절제에 대한 가르침에 위배되는 것이다. 바울은 여성이 땀을 머리카락, 은, 혹은 값비싼 옷으로 자신을 치장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다. 치장하는 것은 더 아름답게 보이게 하기 위해 장식하고 꾸미는 일이다. 베드로는 그들의 외모를, 머리를 땀을 머리카락, 금을 두르는 것과 좋은 옷으로 꾸미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다. 땀을 머리카락은 그 당시에 정교히 머리카락 꾸미던 것을 말하는 것으로 특히, 진주나 금실을 머리 사이에 섞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성경구절들은 모든 화려하고 비싼 과시에 대해서, 심지어는 너무 비싼 의

복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율법과 베드로가 거룩한 단장의 예를 찾기 위해 사용한 구약의 구절들을 살펴 보도록 하자.

우리의 이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 출애굽기 33장 1절과 11절 사이에 나타난다. 이스라엘 백성은 방금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에 경배하는 죄를 범한 참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친히 약속하셨었다. 그러나 그의 공의와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중앙에 임하시지 못하게 되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사 대신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들었을 때 그들은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들의 슬픔과 회개를 나타내기 위해 그들은 몸에 아무 장식도 걸치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목이 끈은 백성이라고 하시고 “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라고 말씀하셨다. 따라서 그들은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들의 허영심을 버리기를 원했다.

다음, 모세가 성막으로 걸어갈 때, 모든 백성들은 그들의 장막문 앞에 서서 그것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헌신의 결과로서, 주께서 구름가운데 영광으로 나타나셨고 모든 사람들이 보았다. 모든 백성들이 주를 찬양하였고, 그분은 모세에게 마치 벗에게 이야기하듯 말씀하셨다. 불필요한 장신구를 제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갈구했던가를 증명해 주었다. 그것은 그들이 자신을 부인한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었다. 이것은 우리가 이러한 종류의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누릴 수 없고 또한 진정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은 자신을 보석으로 꾸미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허영이며 겸손함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이다.

장신구를 두르면 가지게 되는 허영심에 대해서는 이사야 3:16-26에 잘 나타나 있다. 이스라엘인들은 교만해졌고 그것은 하나님을 노하게 했다. 그 결과로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교만의 상징인 모든 장신구를 제하겠다고 말씀하신다. 다음은 스트롱 헬라이어 사전과 차일드사전, 미국 현대어성경에서 나열한 장신구와 값비싼 옷들의 예이다: 발을 위한 방울들, 머리를 묶는 망, 달처럼 생긴 둥근 머리장식, 목걸이, 팔찌, 긴 머플러, 테 없는 모자, 다리에 매다는 장신구들, 머리띠, 금속판(현대어성경에서는 향수상자), 귀걸이, 반지, 코걸이, 페스티벌용 의상, 소매 없는 망토, 넓은 주름옷, 지갑들, 유리들(거울들), 좋은 린넨, 두건, 자수 장식이 달려있는 여자의 가슴 옷. 많은 종류의 지갑들이 정교하게 장식되어 있었고 매우 비쌌다. 거울들과 향수상자는 종종 목이나 허리띠에 달려 있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그 착용자들로 하여금 허영심을 가지게 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사실상, 그것들을 착용하는 가장 주요한 이유는 허영이다.

이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겸손함과 중용을 나타내야 하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말해서, 그것은 값비싼 보석이나 옷을 착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것들을 착용하거나 입는 동기는 잘 살펴져야 한다. 의문이 생기는 것들에 대해 결정할 때에는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 보라: 이것이 바울의 절제에 관한 가르침에 적합한가? 이것이 너무 화려하거나 야하지 않은가? 왜 내가 이것들을 입거나 착용해야 하나? 이것을 입거나 착용하는 것이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가? 그것을 착용하는 것이 실제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때에는, 그것이 너무 사치스러운 것은 아닌가? 그것은 과연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는 일인가?

몇 가지 실제적인 예들을 들어보자. 대체로 손목시계와는 달리 귀걸이나, 목걸이, 팔찌 등은 분명히 장신구이다. 손목시계마저도 그것이 너무 비싸고 그것을 착용하는 사람의 마음이 올바르지 않다면 허영이 될 수 있다.

최근에 신자들 사이에 보석류를 착용하는 일이 늘고 있다. 그리고 이것

은 절제의 정신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오늘날 보석을 착용하지 않는 신자들은 칭찬을 받을 만하다.

기본적으로, 신자들은 목사의 지도를 따라야 한다. 왜냐하면 그는 그 교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튼,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지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겸손히 구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신자들에게 이 문제에 대한 확신을 주신다. 어떤 문제들에 있어선, 목사가 그의 개인적인 확신이나 충고를 성도들에게 설명해 주더라도 신자들에게 그것을 따를 것인지에 관한 자유를 주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어떤 것들은 죄가 아닐지라도, 그 뒤에 숨어있는 동기가 그들로 죄를 짓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더 값싸고 덜 화려한 것들을 고를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우리는 옷도 잘입고 좋은 취향을 가지는 것을 더 선호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야하거나 허식하지 않으면서도 옷을 잘 입을 수 있다. 많은 경우에 가장 단순하고 품위 있게 입은 사람들이 가장 고상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다른 이유를 말하자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더 헌신하기 위해 어떤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어떤 행위들이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지는 않을 지라도, 그것들을 피함으로써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닐까?

인도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조심해야 한다. 여기서는 우리의 개인적인 확신을 더욱 필요로 한다. 죄가 되지 않는다 해도 어떤 것들은 피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좋은 인도자가 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성경에 그것들에 대한 특별한 기준이 나와 있지는 않으나, 지도자는 보통 그의 행동으로서 자신의 기준을 결정한다. 보통 성도들은 목회자와 그의 아내가 자신들을 위해 설정한 기준보다 약간 떨어지게 생활한다. 만일 당신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작은 반지를 끼고 있다면, 성도들은 당신이 착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큰 반지를 끼려 할 지도 모른다. 어

떻게 당신이 그 차이점을 상대방에게 설명할 것인가? 따라서 목회자는 자신의 성도들을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도록 강한 확신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강한 기준을 자기자신을 위해 설정해야 한다. 만일 의심이 생기다면,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렇겠지만 특히 목회자는, 세상으로 인도할 가능성이 있는 쪽 보다는 더 나은 거룩함으로 인도할 가능성이 있는 쪽을 택하여야 한다.

어린이들을 위한 충고들 또 다른 한 가지 질문이 있다, 그것은 “이러한 원칙들이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가?”라는 것이다. 성경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 22:6)라고 말한다. 우리는 거룩함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물론, 어른들에게는 조심성 없는 옷차림이 어린이들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공중 앞에서 수영복이나, 팔과 등이 드러나는 옷과 같이 아주 노출이 심한 옷은 입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라났을 때 위험한 선택으로 남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이 보석이나 화장을 하게 해서도 안되겠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은 그들에게 잘못된 태도를 가지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자아이들은 바지를 입어서는 안되고 그들의 머리를 잘라서도 안된다. 남자아이들은 드레스를 입거나 머리를 너무 길게 해서 안된다. 이러한 것들은 나쁜 예가 될 뿐만 아니라, 성경의 성 구분의 원칙은 어린아이들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인 부모는 그들의 자녀가 어린 시절부터 거룩함에 대해 배우며 자라게 할 의무가 있다. 이것이 성경적인 방법이다. 그리고 또 이런 방법만이 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지금껏 살펴본 것들을 요약하면, 성경은 무엇을 입고 무엇을 입지 말라는 상세한 규칙을 말한 적은 없다. 우리는 딤후전 2:9과 벰전 3:1-5 그리고 신명기 22장 5절의 가이드 라인이 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 놓으신 율법이 있고 또한 우리의 완전함을 위해 섬기는 교회

의 권위가 있다. 분명 우리는 과도한 장신구나, 야한 복장 그리고 세속적인 것들을 경계해야 한다. 성경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를 교만하게 하거나, 심지어는 교만하게 보이게 하는 어떤 것이라도 버려야 한다. 사탄도 천사장의 하나로 창조되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러나 그의 아름다움이 그를 교만하게 했을 때 타락하고 말았다. 간단히 말해 우리는 세속적인 것들의 본이 되지 말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본이 되어야 한다.

초대 교회의 역사 그리스도인의 옷차림에 대해서 마무리지으면서 초대 교회에서는 이것에 대해 어떻게 가르쳤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들이 믿었던 바의 좋은 예는 A.D. 3세기에 터툴리안이 쓴 “여성의 복장에 관하여”라고 쓴 글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초대교회의 유산 “A Treasure of Early Christianity, Anne Fremantle, editor” 참조). 이 글에서, 그는 루즈와 머리염색, 눈 화장과 보석 그리고 장신구를 반대하였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절제와 희생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하였다. 그는 만일 하나님께서 음욕을 간음과 같이 간주하신다면, 야한 의복으로서 음욕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들도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라고 기록했다. 그는 또한 사치와 보석 장신구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포함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의 인용구를 보라. “당신은 겸손해야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고상함의 한계를 넘어서는 안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자신의 피부를 독으로 괴롭게 하고, 그들의 뺨을 루즈로 칠하며, 그들의 눈가를 검게 칠하여 눈을 더 크게 보이게 하거나 하는 여자들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의심할 바 없이 그들은 하나님의 성형 실력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투쟁이나 포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러한 옷이나 외투에 당신을 맡기지 마시고... 만일 우리가 하늘의 것을 원한다면 세속적인 장신구들을 버립시다”

의상과 장신구에 연관된 거룩함에 대한 성경구절은 구약과 신약에서 이미 살펴보았다. 그것들은 초대교회의 신자들에 의해서 지켜졌고 기독교국

이라 불리는 나라들에서 20세기 이전까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종교 개혁자들과 부흥사들, 그리고 과거의 종교부흥운동은 그것을 가르쳤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한때 그것을 지켰으나 점차적으로 그것을 저버렸다.

오늘날의 도전 마지막 결정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정숙함과, 겸손함, 그리고 중용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간직할 것인가? 성의 분별을 계속 지키고, 세상으로부터의 구분을 계속 지킬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압박과 또 근대화라고 불리나 사실은 옛 죄악의 답습인 세상의 조류를 따라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이며 우리가 진리를 붙들고 완전한 거룩함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가 당신의 말씀에 의해서 세워진 이정표를 지키고, 우리 영적인 조상들의 가르침과 성령의 인도를 따르게 하소서.

제 7 장

머리에 관한 성경의 진리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연고니라”(고전 11:14, 15).

머리에 관련한 신약성경의 가르침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16절에 잘 나와있다. 이 구절은 여자는 긴 머리를 가져야 하고 남성은 짧은 머리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친다. 자세한 것을 공부하기 이전에 왜 그런 것인가 하는 이유를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자.

여성이 머리를 자르지 말아야 하는 이유

1. 자르지 않은 머리는 권위에 대한 순종의 상징이다.
2. 천사들은 여자가 이 ‘표’를 가지고 있는지 살핀다.
3. 여성이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머리는 그녀의 쓰는 것이 된다. 만일 그녀가 자신의 머리를 깎는다면 그것은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다.
4. 본성은 여성에게 자른 머리나 민머리에 반하여 긴 머리를 가지라고 가르치고 있다.
5. 긴 머리는 여자의 영광이 된다.

6. 여자는 교회의 예표이고, 긴 머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교회의 순종의 예표가 된다.
7. 그것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의 구분을 유지하시는 방법들 중의 하나이다.

남성이 짧은 머리를 가져야 하는 이유

1. 남성의 짧은 머리는 권위의 상징이다.
2. 자신의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리스도인 자신의 머리(권위)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긴 머리는 성경적으로 덮는 것이다.
3. 본성은 남자가 짧은 머리를 가질 것을 가르친다.
4. 긴 머리는 남자에게 있어서 수치이다.
5. 남자는 그리스도의 상징이다. 남자의 짧은 머리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권위를 상징한다.
6. 그것은 남성과 여성을 외적으로 구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들 중 하나이다.

이러한 이유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약에서 언급된 머리 모양의 중요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약과 신약의 연관성을 먼저 알아야 한다. 구약성경은 우리의 가르침과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롬 15:4, 고전 10:11).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갈 3:24). 구약은 우리가 세우심을 받은 터의 일부이다(엡 2:20). 구약성경 안에는 우리가 신약의 깊이와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많은 예표와 그림자가 있다(골 2:16,17; 히 8:5, 10:1). 특히 구약의 말씀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하나님께서 머리 모양에 얼마나 많은 중요성을 부여하셨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구약 성경에서 머리는 완전함과 힘의 상징이었다 유대인들 사이에는

머리숱이 많은 것은 완전함과 힘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반대로 머리숱이 없는 것은 정반대를 의미했다; 부족함, 잃어버린 영광, 나약함의 상징이었던 것이다. 예를 들자면, 열왕기하 2장 23절에 나오는 어린아이들은 일부러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불렀다. 구약성경에서 대머리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대머리를 의미한다기 보다는 무가치하고 부족한 사람들은 호칭하는 말이었다.

머리를 자르는 것은 불명예와 애통함을 의미했다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머리를 자르는 행위는 부끄러움(에스라 9:3; 느헤미야 13:25)과 애통함(이사야 22:12; 에스겔 7:18; 아모스 8:10)을 의미했다. 이사야서 3장 17절에서 24절에서, 교만한 여인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은 잘 정돈된 머리 대신에 대머리가 되게 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그들이 존귀함을 잃어버리고 또 부끄러움에 처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예레미야 7장 2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잘라진 머리를 이스라엘의 타락과 그로 인해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태를 상징하기 위해 사용하셨다.

머리는 영광의 상징이었다 여인의 긴 머리는 에스겔서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축복의 한 상징이었다. 잠언 16장 31절에 보면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머리를 교훈을 주실 목적으로 사용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의 머리를 자름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날 것인가를 보이라고 말씀하셨다(겔 5:1-4, 12). 먼저, 그의 영광이 성전의 안뜰에 가득하였다(10:3).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뜰로 옮겨갔고 결국은 성전을 떠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10:19).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과 또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머리를 이용하셨다. 머리가 없는 에스겔은 영광을 잃어버린 에스겔을 상징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자르지 않은 머리는 하나님께 구별되는 것의 표였다. 머리에 관한 다른

중요한 의미들은 나실인에 대하여 공부해 보면 알 수 있다(민수기 6:1-21). 이 말은 히브리어 나지르(nazir)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는데, 스트롱의 히브리어 및 갈대아어 사전은 이 말을 “구별된, 즉 헌신된”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나실인들은 여호와께 성별되어야 했던 사람들이다. 이 구별은 세 가지 외적 표시로써 보여져야만 했다. 나실인은 포도나무의 열매는 어떠한 것이 라도 피해야만 했고, 시체를 만져서는 안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머리를 잘라서는 안되었다. 이들 중에서 마지막 표시만이 나실인을 외적으로 바로 알아볼 수 있는 경우였다. 남자나 여자도 다 나실인이 될 수 있었다(2절). 나실인의 서원은 일정 기한을 통해서 행해질 수도 있었고, 평생을 통해서 이루어 질 수도 있었다. 삼손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실인이 된 것과는 달리, 바울은 일정한 기간 나실인의 서원을 했다(행 21:20-27, 사 13:7). 그러므로 머리는 구별의 표시였다. 머리술이 많은 것이 힘과 완전함과 영광을 상징했으므로, 머리가 자라나는 정도는 그 사람의 하나님께 드리는 힘과 노력을 의미했다. 머리는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였다(민 6:7).

나실인은 그들의 머리를 어떠한 경우에도 자를 수 없었고 그냥 자라나게 두어야 했다는 사실을 주목하여 보라. 구별의 기간 동안 그는 거룩했다. 서원이 끝날 때 그는 머리를 자를 수 있었다(5절). 그가 자신을 더럽힐 수 없었던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구별의 표가 그의 머리 위에 있었기 때문이다(7절). 만일 나실인이 그의 서원을 깨뜨리고 더럽혀진다면 그는 그의 머리를 밀어야 했다(9절). 왜 그런가? 만일 그가 그의 머리를 자르지 않았다면, 그의 행위가 비록 그렇지 않더라도, 그것은 그가 아직도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그의 행동과 외모는 상충된 것이므로 그는 위선자가 된다. 또한, 만일 그가 그의 서원을 깨뜨린다면 그는 그 서원을 처음부터 다시 이행해야 했다(12절). 그가 서원을 깨뜨린다면 그는 의롭다는 인정을 받지 못했다(겔 3:20, 18:24, 33:12,13절 참

조). 그가 서원의 기간을 마쳤을 때는 머리를 다시 자를 수 있었고 그 자른 머리를 제단에 화목제로 드려야 했다(18절). 그 드러진 머리는 '구별을 위해 드러진 머리털'이라고 불렸다(19절).

나실인에 대해서는 다른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다. 7년째 되는 해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안식년이라고 불린다. 안식년에는 나무나 포도덩굴은 가지치기를 받지 않으며, 땅도 갈지 않고 내버려둔다. 특히 포도덩굴에 있어서는 전혀 소산물을 거두지 않는다(레 25:5,11). 히브리어에서 '소산물을 거두지 않는다'라는 말은 '나지르(nazir)'이다. 그 단어는 민수기에서는 "나실인"이라는 말로 번역되었다. 사실상, 이 단어를 스트롱사전은 '가지를 치지 않은 포도나무 줄기(마치 머리를 자르지 아니한 나실인처럼)'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 이러한 '나실'의 포도덩굴은 전혀 가위를 대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자랄 수 있도록 내버려졌다. 이것으로 나실인의 머리가 얼마나 길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다. 나실인의 머리는 잘라지거나, 태워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자라면서 하나님께 드려졌다.

요약으로, 구약성경에서 머리는 무엇을 의미하였던가? 그것은 힘과, 완전함, 영광의 상징이었다. 머리가 없는 것은 무가치함과 영광이 떠나간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나실인이라고는 믿지 않는다. 그러나 나실인의 예를 통해 머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헌신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외적인 표적이라는 것을 배우기 위해 공부했다.

신약의 가르침 이제 우리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1절~16절에 이르는 말씀을 공부할 준비가 되었다. 천주교회에서는 이 구절을 여성이 기도할 때는 반드시 어떤 종류의 천을 머리에 쓰고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로 해석하고 가르친다. 개신교회들은 오늘날의 교회에는 이 구절이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통 이 구절을 완전히 무시한다. 많은 근본주의 교회들이 시작할 무렵에는 이 구절을 여성들은 머리를 길러야 한다는 것으로 믿었고 오늘날도 일부 교회들은 이 가르침을 그대로 유지해 오고 있다. 우리는 모든 성

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임을 믿는다(딤후 3:16). 우리는 성경의 어떤 부분이든지 무시되어서는 안된다고 믿는다. 모든 성경구절은 귀중하고 값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구절을 분석해 보자.

바울의 영적 권위 1절과 2절; 바울은 우리가 그를 따르고 그가 전해준 규례와 가르침을 지키라고 권하고 있다. 그것은 다음 부분에서 그가 이야기한 머리에 관한 가르침에서도 적용된다.

이양된 권위에 대한 원칙 2절과 3절;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머리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육체는 그분의 안에 거하시던 영에게 순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하신 영의 계획과 목적을 위해 자신의 몸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복했다(빌 2:8).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는 남자의 머리이다. 그리고 남자는 여자의 머리이다. 이것은 단순히 한 남자는 그 가정의 가장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영적인 권위와 그 가정의 대표로서의 권위를 부여받은 것이다. 아담이 최초로 창조된 것 같이, 오늘날 일반적으로 남성은 모든 인간, 남자와 여자의 대표격이다(출 20:5). 여성의 해방과 관계없이, 아내는 그녀의 남편에게 순복해야 한다(엡 5:22, 골 3:18, 뱀전 3:1).

4절: 남자는 그가 기도하거나 예언할 때 머리에 무엇을 써서는 안된다. 그렇게 함으로서, 그는 머리인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예언하는 것은 설교하는 것과 간증하는 것을 포함한다.

5절: 다른 한편으로는, 머리(head)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기도나, 설교나 간증을 하는 여자는 자신의 머리인 남자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남성과 여성은 자신들의 위치를 바꾸려고 해서는 안된다. 여성이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성에게 주신 위치를 상징하는 것이다. 15절에 따르면 긴(전혀 잘려지지 않은) 머리는 하나님께서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것이다.

6절: 만약 여성의 머리가 무엇으로 덮여 있지 않다면, 그것은 불명예요

부끄러움이었다. 이것은 그녀의 머리가 심하게 잘렸거나 아니면 밀었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은 그녀의 영광이 떠나갔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7-9절: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창 1:26). 그는 인류의 대표격이며 그의 머리가 무엇인가에 덮여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육체를 입은 인간 중에서 남자는 가장 권위 있는 존재이다. 그리고 인류는 남자에게서 나왔다(창 2:22). 이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성의 머리는 무엇인가에 의해 덮여야 한다. 성은 구분되어야만 한다.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고, 여자의 머리(hair)는 여자의 영광이다(15절).

10절: 심지어는 천사들까지도 이 주제에 관련되었다. 우리는 천사들이 우리의 구원을 살펴보고 싶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벧전 1:12). 우리는 또한 교만과 반역이 사탄과 다른 많은 천사들이 타락하도록 만들었다는 것도 알고 있다(딤후전 3:6, 사14:12-15). 여기서 우리는 여성이 천사들 때문에 능력 곧 표(mark, sign)를 자신의 머리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녀는 심지어 천사들에게까지도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천사들은 여자가 헌신과 하나님의 능력의 표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사탄처럼 반역을 하고 있는지 보고 있다. 더 나아가, 여자는 교회의 상징이며, 교회가 자신의 머리인 그리스도에게 순복하고 있는가를 상징한다. 그러므로 여자의 잘려지지 않은 머리는 권위에 순종하는 교회에 대한 상징이다.

11-12절: 바울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열등하지 않다고 가르친다. 또한 남성은 여성이 없이는 온전할 수 없다고 가르친다. 이것은 특히 교회에 있어서는 사실이다. 아무튼 누군가가 머리로 선택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대표와 권위자로서—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선택하셨다.

13절: 바울은 가르치는 방법의 일부로서 질문을 던진다.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합당한가? 그의 대답은 그렇게 하는 것은 그녀에게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이다(5절).

14절: 그냥 관습이 아니라 본성이 남성의 머리는 짧아야 하고 여성의 머

리는 길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친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이 면에 있어서 성의 구분을 지키는 것이다.

15절: 여성의 머리는 그녀의 영광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긴 머리는 다음 구절들의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쓰는 것으로 주어진 것이다. 이 구절은 모자나 스카프 같은 쓰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는 그녀가 머리에 쓰는 것은 바로 그녀의 머리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만일 기도하거나 타인에게 전도할 때마다 머리에 무엇을 쓰기 위해서 멈추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이다. 항상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있고 또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살전 5:17), 이것은 모자나 스카프를 항상 머리에 쓰라고 말하는 것이 된다. 바울은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헬라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6절의 “쓴”이라는 뜻의 헬라어는 카타칼루프토(katakalupto)이다. 스트롱 사전은 이것을 “완전히 덮다 혹은, 가리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15절의 “쓰는 것”이라는 뜻의 헬라어는 페리볼라이온(peribolaion)이다. 스트롱 사전은 그 뜻을 “어떤 것을 덮은 것, 덮개나 베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5절과 6절은 여성의 머리가 완전히 덮이거나 가려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15절은 그녀의 머리가 덮개이며 베일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분명히, 긴 머리는 5절과 6절, 11절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 덮는 것이다.

16절: 하나님의 자녀는 다투기를 좋아하지 아니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논란하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된다. 교회는 머리에 있어서도 바울이 전해준 것과 다른 규례를 가져서는 안된다. 어떤 이들은 이 구절이, 만일 누구든지 이 가르침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는 순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만일 그 말이 사실이라면 바울의 모든 가르침은 헛된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분쟁과 불순종을 용인하는 것이 된다.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러한 규례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않아도 됩니다” 2절과 16절을 같이 읽어보면, 바울이 그의 가르침을 지키고 변론을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분명히 볼 수 있다.

머리에 관한 성경 가르침의 이유들 성경이 남자는 짧은 머리를 가지고 여성은 긴 머리를 가져야 한다고 가르치는 이유를 요약해 보자. 기본적으로, 여성의 긴 머리는 남성과의 관계를 말해준다. 그것은 자신이 남성의 영광인 것 같이 또한 그녀의 영광이 된다. 그것은 그녀가 남자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말해주며 또한 가정에서는 남편에 이어 두 번째라는 것을 말해준다. 그녀의 남편에게 순종함으로써, 또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그녀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반역하지 않는 것은 천사들에게도 표가 된다. 그것은 그녀의 영광과 그녀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표가 된다. 그것은 그녀에게 덮는 것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녀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또한 간증할 수가 있다. 여성이 머리를 기르고 남성이 머리를 자르는 것은 본성이 가르치고 있으며, 또한 각 개인이 자연의 섭리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정상적인 욕구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머리는 하나님께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개념인 성의 구분을 제공한다(신명기 22:5과 6장 참고). 이 모든 것에 대한 증거로서, 우리는 많은 나라들의 현대화와 서구화 현상을 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여성이 머리를 자르는 것은 여성이 남성의 의상을 입는 것, 흡연하는 것, 술 마시는 것 그리고 도덕적인 기준을 내리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져 왔다.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 여성의 긴 머리는 나실인의 경우처럼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의미해 왔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의 백성들에게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증거를 가지라고 요구해 오셨다. 이스라엘인들은 좋은 실례가 된다. 그들은 1900년간이나 국토를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국가적 주체성과, 문화, 그리고 종교를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고대 민족

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가 그들을 구분해 왔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구분되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분의 표식으로 어떤 것도 선택하실 수가 있었다. 그분은 독단적인 이유가 아니라 위에서 열거한 이유로 인해서 머리를 선택하셨다. 우리가 이 명령을 인식하게 되면, 어떻게 이것이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구분하게 되는 가를 알게 된다.

상징 여성이 긴 머리를 가지는 것에 대한 다른 이유로서, 우리는 어떻게 이 가르침이 상징으로서 들어맞는가를 보아야 한다. 남자는 그리스도의 상징이다. 여자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상징이다. 이 상징은 3절과 또한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2절에 나와있다. 그러므로, 남자가 긴 머리를 가지는 것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 여자가 자신의 머리를 자르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복하지 않으며 교회가 그 영광을 잃어버렸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 논증의 많은 것들은 예표에 의존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아름다운 성경의 예표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우리가 모든 예표들의 중요성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것들에 많은 중요성을 부여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왜 그것이 필요한지를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구약성경의 성도들을 생각해 보라. 명백히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계획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다. 그들에게는 감추어져 있던 많은 것들이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계시로 허락되었다. 예를 들어서, 그들이 예식시(時)에 사용하였던 기름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의 예표이다. 피를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 홍해의 물 그리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였던 구름들은 모두 오늘날 우리가 받는 구원의 예표이다(고전 10:1-2). 광야에서 들려졌던 늦뱀은 십자가 위에 매달렸던 그리스도의 예표이다(요 3:14). 성막의 복잡한 구조들은 오늘날 우리의 구원의 많

은 부분에 있어서 적용이 된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의 순종은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을 이해하고 또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준다. 그들이 불순종함으로서 예표를 깨트릴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다.

모세를 예로 들어 보자. 그는 예표를 이해하지 못했고 또한 그렇게 요구되지도 않았다. 그는 단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만 하면 되었다. 그는 이스라엘에게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한 번은 반석을 치라고 요구받았고, 또 다른 경우에 있어서는 반석에 대고 이야기하라고 요구받았다. 그러나 그는 두 번째에도 반석을 때리고 말았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심각한 잘못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으로 인해서 모세를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지 않으셨다(출 17:6; 민 20:8-12). 이 한 번의 불순종이 모세가 전 생애를 통해서 준비해 오고 바래왔던 것을 성취하지 못하게 하였다. 왜 그런가? 고린도전서 10장 4절이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말해준다. 예수께서는 단 한 번만 맞으셔야 했던 것이다. 그래서 모세의 불순종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예표를 깬 것이 되고 말았다. 명백히 이것은 하나님께는 심각한 일이었다.

머리에 관한 가르침이 몇몇 예표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주의하여 그것을 순종해야 하겠다. 우리는 그것을 가볍게 여겨서 무시할 수는 없다. 그것으로 생길 수 있는 어려움이나 다른 이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것에 관계없이, 우리의 의무는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이 진실한 사랑의 참된 정의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던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니”(요 14:15).

무엇이 긴 머리인가? 실제적인 문제로써, 많은 사람들이 여성이 가져야 하는 긴 머리에 관한 정확한 정의를 원한다. 나실인에 대한 교훈에서 그것은 자르지 않은 머리카락이나 자연스럽게 자라도록 내버려 둔 머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달리 어떤 정의를 내린다고 해도 그것은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

머리가 자연스럽게 자라도록 내버려둠으로써 우리는 바울이 14절에서 말한 선생인 자연이 여인들 각각의 적절한 머리 길이를 결정하게 할 수 있다. 또한 6절은 만약 머리가 잘린다면 그것은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세 가지 머리 길이가 언급된 것을 알 수 있다. : 긴 머리(자르지 않은 것), 짧은 머리(자른 머리) 그리고 민머리.

남자의 머리는 최소한 여성과 구분될 만큼은 짧아야 한다. 이 길이는 시대나 문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우리 시대와 문화에서는, 머리가 권위와 도덕에 대한 도전의 표식으로서 이용되어 왔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남자의 머리는 잘 정돈되어 충분히 짧아서 아무도 그가 반항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남자의 적절한 머리길이를 결정함에 있어서 우리는 다음의 질문들을 숙고해 보아야 한다. 그것이 우리 사회의 일반적 여성들의 머리보다 짧은가? 그것이 교회나 그리스도에게 비난거리가 되지 않는가? 그것이 사회의 권위에 대한 반항은 아닌가? 혹은 목사님께 반항하는 것은 아닌가? 교회의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거치는 돌이 되지 않는가(고전 8:9-13)? 그것이 그가 구원받은 세상의 좋지 못한 요소들과 연관시키는 면은 없는가? 그것이 세상의 변덕이나 유행과 일치하지 않는가? 불신자들에게 좋은 증거가 될 수 있는가? 동일한 이 질문들이 또한 수염에 대해서 적용될 수도 있다. 많은 나라들이 남성의 머리에 대해서 법 규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한국과 싱가포르를 예로 들자면, 그들 나라는 남자가 칼라나 귀, 눈썹 아래로 머리를 기르는 것을 금지했었다.

지금도 예수님이 여성같이 긴 머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오해를 해소할 적절한 기회라고 본다. 먼저 그는, 어떤 이들이 믿는 것처럼, 나실인이 아니었다. 그는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거주했던 나사렛 사람이었다. 그는 포도주를 마셨고 시체를 만졌으므로 나실인의 서원을 한 것도 아니었다. 예수님이 긴 머리를 가지고 있는 모든 그림들은 최소한 몇 세기 후에 그려진

것들이고, 성경적인 그리고 역사적인 근거가 희박하다. 로마의 조각상과 동전의 주조, 그리고 다른 역사적인 자료들이 그리스도 당시의 남자들이 짧은 머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그 당시에 남자들이 어깨까지 내려오는 머리를 하고 있었다는 역사적인 증거는 없다. 만일 그리스도가 긴 머리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는 자신의 가르침과 자신이 의도한 본성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

머리 염색 몇몇 구절들이 머리를 염색하는 것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잠언 16장 32절에 따르면, 흰머리는 영광의 왕관이라고 했다. 머리색을 바꾸므로써, 영광은 사라지게 된다. 예수님 자신도 자신의 머리카락 색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셨다(마 5:36). 4장에서 이미 언급된 화장을 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똑같이 적용된다. 볼과 눈썹을 칠하는 것과 머리를 염색하는 것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비슷하게, 가짜 속눈썹을 다는 것과 자연스럽게 못한 색깔과 길이의 가발을 하는 것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머리를 자르는 것과 짧은 가발을 착용하는 것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남성과 여성 모두를 위한 가장 안전한 방법은 머리색을 바꿀만한 어떤 것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태도 여성의 긴 머리를 향한 태도에는 두 가지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어떤 여자들은 긴 머리를 가꾸고 유지하는 일에 대해서 잔뜩 골이 나 있다. 하지만 적당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긴 머리를 현대적이고 단정하며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많은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하겠어”라고 이야기 하지만 머리라는 특정한 질문에 이르러서는 그들은 발뺌하기 일쑤다. 머리를 기르는 이유를 깡그리 잊어버리고마는 그런 자세는 자기애와 게으름, 헌신의 부족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한 것을 보여준다.

다른 위험한 태도는 교만과 겉치레이다. 순종의 상징인 긴 머리를 가지고서도 자기과시의 태도를 가지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너무 과다한

공을 들이거나 머리숱을 많이 보이게 하고 사치스러운 헤어피스를 사용하는 것은 자신에게 주의를 집중시키게 하고, 긴 머리의 참된 뜻은 외면하게 만들기 쉽다. 이것은 긴 머리의 목적과 선한 증거를 멸절시킨다. 많은 이들이 교회 예배와 대두모 집회들 가운데서 길고 아름답고 거룩한 머리에 좋은 인상을 받았지만, 또 다른 많은 이들이 자기 과시적인 머리모양들을 보고 당황하고 거부감을 가지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는 사도들의 시대에도 존재했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 바울은 여성이 ‘장식한 머리’를 가지는 것을 금지했다. 그것은 ‘정교하게 꾸민 머리모양’을 의미했다. 베드로는 ‘땡은 머리’에 과도한 장식을 하는 것을 경고했다(벧전 3:3). 이 성경구절들은 당시에 커다란 머리 장식물과, 또한 빈번히 명주실과 금 동전을 붙여서 과도히 수놓은 머리모양들이 유행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래서 머리를 가꾸는데 있어서도 절제와 중용이 필요했었다. 거룩함을 위해 의도된 것을 오용함으로써 자신의 거룩함을 버리는 것은 여자에게 있어서 부끄러움이 될 것이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1:1-16의 말씀을 무시할 것인가? 결론으로서,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당연히 우리는 그것을 외면하거나 불편하다는 이유로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것은 모세가 반석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다. 만약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구절들을 같은 방법으로 외면하지 않도록 막아줄 수 있을까? 만약 머리에 관한 가르침을 외면한다면, 같은 장에 나와있는 ‘성찬을 행하라’는 가르침도 외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목회자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중립적이어서는 안된다.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는 그의 성도들에게 그것을 가감없이 전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와 성도들 다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목회자는 성경이 무엇을 의미하는 가를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만약 그가 성경구절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구할 필요가 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 다음에는 그것을 자신의 성도들에게 전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돈과 사람들의 기분을 맞추려고 하는 샅꾼이다. 진정한 목자는 비록 자신의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일지라도 설교할 만큼 성도들을 사랑해야 한다. 그는 귀에 달거나 쓰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한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라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내의 책무를 맡김으로서 불순종을 조장해서는 안된다. 만일 어떤 계명이든 빼놓고 가르치려는 사람은 아예 선생이 되지 않음으로서 더 큰 책망을 피해야 할 것이다(약 3:1). 목회자는 자신의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

여기서의 질문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 1절로 16절의 말씀을 외면할 것인가? 아니면 그 가르침을 정확히 지켜야 할까 하는 것이다.

제 8 장 하나님의 성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고린도전서 6:19; 3:17)

우리의 몸 위에 인용된 두 성경구절은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는 것을 가르친다. 그러한 이유로, 우리는 몸을 더럽혀서는 안되며 거룩하게 보존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몸으로 지을 수 있는 모든 죄에 적용된다. 이 장에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손상시키고 또 더럽히는 몇 가지 실제적인 것들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위의 성경구절들은 더 많은 것들을 포괄하고 있겠지만, 특히 육신적으로 우리를 더럽힐 수 있는 것들을 의미할 수 있다. 이 장에서 우리는 음식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술, 담배 그리고 마약에 대해서 이야기 할 것이다.

음식 창조 직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식물과 곡식 그리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제외한 다양한 과일들을 음식으로 주셨다. 모든 녹색 풀들은 동물들의 먹이로 주어졌다(찬 1:29-30, 2:16-17). 홍수 이후에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식물과 동물까지도 포함한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식량으

로 주셨다. 단 한가지의 제한은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다(창 9:1-4). 하나님께서 식량을 식물로 주셨을 때 한 가지의 열매를 제한함으로써 하나님의 주 되심과 또 아담에게 그 관계를 기억하게 하셨다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동물들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분만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제한을 두셨다. 그것은 바로 피였다.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서 주어진 모세의 율법은 식생활에 관한 다양한 규칙을 포함하고 있었다.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인들은 되새김질을 하고 굽이 갈라진 모든 동물들을 먹을 수 있었다(레 11:3). 이 제한에서 금지된 동물들은 낙타와 토끼, 산토끼 그리고 돼지였다. 비늘과 지느러미가 없는 물고기 또한 부정했다(레 11:10). 썩은 고기를 먹거나 다른 짐승들을 잡아먹는 스무 종류의 새들도 부정한 것으로 기록되었다(레 11:13-19). 메뚜기와 딱정벌레, 배짱이를 제외한 모든 날아다니는 곤충들도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음식에 관한 율법의 주된 목적은 이스라엘 사람을 다른 나라 사람들과 구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율법들의 또 다른 목적은 불결한 음식을 먹지 않게 함으로서 그들이 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자면, 돼지고기는 병균에 감염되거나 올바르게 조리되지 않았을 때는 선모충병의 원인이 되었다. 당시에는, 도살과 조리, 소독이 우리의 상황과는 많이 달랐기 때문에, 음식에 관한 율법은 의학적으로 유익이 있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우리는 신약의 교회가 모여 유대인의 음식에 관한 율법이 그 당시의 교인들에게 적용되는가를 의논하기 위해 모인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이방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네 가지 규칙을 발견할 수 있다. ① 우상의 죄악으로부터 멀리할 것. 이것은 우리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과 우상숭배시에 성행하던 성적인 타락등, 우상숭배와는 아무런 연관도 가지지 말라는 것을 의미한다. ② 음행을 멀리할 것.

제 8 장 하나님의 성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고린도전서 6:19; 3:17)

우리의 몸 위에 인용된 두 성경구절은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는 것을 가르친다. 그러한 이유로, 우리는 몸을 더럽혀서는 안되며 거룩하게 보존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몸으로 지을 수 있는 모든 죄에 적용된다. 이 장에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손상시키고 또 더럽히는 몇 가지 실제적인 것들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위의 성경구절들은 더 많은 것들을 포괄하고 있겠지만, 특히 육신적으로 우리를 더럽힐 수 있는 것들을 의미할 수 있다. 이 장에서 우리는 음식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술, 담배 그리고 마약에 대해서 이야기 할 것이다.

음식 창조 직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식물과 곡식 그리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제외한 다양한 과일들을 음식으로 주셨다. 모든 녹색 풀들은 동물들의 먹이로 주어졌다(찬 1:29-30, 2:16-17). 홍수 이후에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식물과 동물까지도 포함한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식량으

로 주셨다. 단 한가지의 제한은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다(창 9:1-4). 하나님께서 식량을 식물로 주셨을 때 한 가지의 열매를 제한함으로써 하나님의 주 되심과 또 아담에게 그 관계를 기억하게 하셨다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동물들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분만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제한을 두셨다. 그것은 바로 피였다.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서 주어진 모세의 율법은 식생활에 관한 다양한 규칙을 포함하고 있었다.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인들은 되새김질을 하고 굽이 갈라진 모든 동물들을 먹을 수 있었다(레 11:3). 이 제한에서 금지된 동물들은 낙타와 토끼, 산토끼 그리고 돼지였다. 비늘과 지느러미가 없는 물고기 또한 부정했다(레 11:10). 썩은 고기를 먹거나 다른 짐승들을 잡아먹는 스무 종류의 새들도 부정한 것으로 기록되었다(레 11:13-19). 메뚜기와 딱정벌레, 배짱이를 제외한 모든 날아다니는 곤충들도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음식에 관한 율법의 주된 목적은 이스라엘 사람을 다른 나라 사람들과부터 구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율법들의 또 다른 목적은 불결한 음식을 먹지 않게 함으로서 그들이 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자면, 돼지고기는 병균에 감염되거나 올바르게 조리되지 않았을 때는 선모충병의 원인이 되었다. 당시에는, 도살과 조리, 소독이 우리의 상황과는 많이 달랐기 때문에, 음식에 관한 율법은 의학적으로 유익이 있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우리는 신약의 교회가 모여 유대인의 음식에 관한 율법이 그 당시의 교인들에게 적용되는 가를 의논하기 위해 모인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이방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네 가지 규칙을 발견할 수 있다. ① 우상의 죄악으로부터 멀리할 것. 이것은 우리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과 우상숭배시에 성행하던 성적인 타락등, 우상숭배와는 아무런 연관도 가지지 말라는 것을 의미한다. ② 음행을 멀리할 것.

여기서 사용된 ‘음행’이라는 말은 간음과 동성연애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성적인 죄악을 의미한다(9장 참고). ③ 목을 매달아 죽인 것을 멀리할 것. 여기에 관한 언급은 레위기 17:13-14 절이다. 동물을 죽일 때는 항상 도살해서 짐승의 몸에서 피가 흘러나오도록 해야 했다. 만일 동물을 목을 매달아 죽인다면, 피가 그 안에 남게 되므로 그 고기를 먹는 사람은 금지된 피를 같이 먹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④ 피를 멀리할 것. 피에 관한 것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율법은 여기에 포함된다. 피를 먹는 것만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살인이나 자살 같은 모든 피 흘림은 같이 금지되어 있다(10장 참조).

그 결과로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피를 포함한 음식을 먹지 않고, 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지 않으면 된다.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언급된 레위기의 율법 중 어떤 것도 사도행전 15장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바울은 음식에 관한 율법들은 장차 올 것의 그림자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것들은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미리 나타낸 것이다. 특정한 모세의 음식에 관한 율법에서, 바울은 말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 으로 너희를 꾀론하지 못하게 하라”(골 2:16-17).

Ⅲ 피를 마시는 것과 피를 포함하고 있는 고기를 먹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식생활에서 금지된 두 가지 것들 중의 하나이다. 왜 그런가? 우리는 이 법칙이 모세의 율법수어 이전에 제정되었고 또한 계속된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한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안에서 여러 번 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다(창 9:4; 레 7:26; 17:10-14; 신 12:23-25; 행 15:20,29; 21:25). 그 이유는 동물과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이다(레 17:14). 현대과학은 피가 산소와 영양분을 몸의 각 부분에 전달해 준다고 밝힘으로서 그 사실을 증명하였다. 모든 세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피를 통해 생명을 나타내셨고 또

죄를 속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히 9:22). 결과적으로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 피를 먹어서는 안된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또 한가지의 제한점이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8:1-13과 10:23-33에서 이 주제에 대해서 가르친다. 이 구절들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음식간의 관계이다. 바울의 기본적인 가르침은 다음과 같다: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사람은 우상과 우상의 제물에 관해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다만 한 분의 하나님만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도 아무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고전 8:4).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몇 가지 원칙들을 고수함으로써 다른 이들이 우리를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식사시에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은 먹지 않는다. 또한 우리는 우상의 제물을 준비하는 것을 도와서도 안된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우상숭배자들에게 우리가 그들의 우상숭배를 묵인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만일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말하자면, 이 문제에 대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형제가)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본다면, 이것은 그에게 거치는 반석이 될 수가 있다. 두 가지 경우에도,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해를 끼치게 된다(고전 8:7-9). 이런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우상이나 다른 영에게 음식을 바치는 행사에 참여해서는 안된다.

이제, 어떤 이가 그리스도인이 출처를 알지 못하는, 그러나 사실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가져다준다고 가정해 보자. 그리스도인이 그것을 먹으면 죄를 짓게 되는 것인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 줄을 알기 때문이다. 바울의 시대에는, 상당량의 고기가 이방인의 제단에 바쳐졌고 그 제사장들은 그것들을 먹을 수 없었으므로, 제사 후에 남은 음식을 시장에 내다 팔았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그것을 먹는 것이 죄

인가 하는 질문이 일어났다. 만일 그렇다면, 어떻게 시장에서 파는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인가 구분할 수 있다는 말인가? 바울의 대답은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고전 10:25)였다. 만일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이 제공될 법한 잔치에 초대받아 가게 되었을 때는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 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고 바울은 가르친다(27절). 만일 그 음식이 그 잔치에서 우상에게 바쳐졌거나, 어떤 사람이 그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이라고 말을 해준다면, 그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것은 그 그리스도인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28-29절). 우리는 또한 우상숭배는 사실은 사탄을 숭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상숭배와는 아무런 연관도 맺지 말아야 한다(20절).

마지막 때에는, 어떤 선생들이 일어나서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딤후 4:3)이라고 했다. 그러한 결혼이나 특정한 종류의 음식을 반대하는 가르침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반된다. 결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 지고 음식은 기도와 감사에 의해서 정결하게 된다(4-5절). 신약성경에는 특정한 종류의 음식에 관한 제한은 없다.

절제와 폭식 우리는 식사 습관에서 항상 절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성령의 전이고 우리의 몸을 더럽혀서는 안된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 수 있고 무엇을 먹을 수 없는지에 대한 목록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성령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다. 실제적인 문제로서, 우리는 몸에 맞지 않는 음식들은 피해야 한다. 만일 어떤 음식이 당신의 몸을 괴롭게 하거나 아프게 한다면, 그것을 피하라!

우리는 음식을 탐해서는 안된다. 과도한 식탐은 죄가 될 수도 있다(잠 25:16). 예수께서는 우리가 폭식으로 비만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어떤 이들은 심지어는 토하기 직전까지 먹기도 한다(눅 21:34). 어떤 이들

은 건강을 이유로 술, 담배는 하지 않으면서 건강에 치명적인 수준으로 폭식을 하기도 한다. 과식과 적절하지 못한 식사 습관은 많은 병의 원인이 되고 결국은 생명을 단축시키게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남용하는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의 절제 못함을 비판하면서 자신 스스로는 식사 습관의 영역에서 똑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불신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는가? 목회자가 너무 많이 먹고 또 운동 부족으로 뚱뚱 하다면 어떤 인상을 남기겠는가? 우리는 음식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또한 상식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삼가야 한다.

절제는 중용과 자기통제를 뜻한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육체의 운동이나 감정적인 활동을 할 때 우리의 슬로건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자신을 지배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것은 모든 일에 절제하는 것에서 가능해 진다(고전 9:25).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잠 16:32).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마치 성벽이 없는 성과 같다(잠 25:28). 우리는 우리의 몸을 복종시켜야 한다(고전 9:27). 우리는 오순절 날에 일어났던 일처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령을 제외하고는 어떤 것에도 복종시켜서는 안된다(롬 6:12-13).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우리는, 우리를 중독시킬 만한 것이나 술 취하게 할 만한 것같이, 우리 스스로를 자제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것들도 허용해서는 안된다. 만일 우리가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한다면 죄에 대한 저항력도 약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없게 된다.

음료 율법은 음료에 대해서는 자유로웠으나(신 14:26), 구약성경 내에서도 하나님께서 독한 술을 정죄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잠 20:1, 사 5:11). 신약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이야기한다(고전 10:31).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생각하면서, “이것을 먹거나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될까”하

고 자문해 보아야 한다. 이것은 우리를 중독 되게 하거나 자제력을 잃게 만드는 것들을 먹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전 6:12).

커피와 차, 그리고 탄산음료 이러한 음료들은 카페인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자극이 약한 각성제가 된다. 이것은 몸에 해롭거나 중독성이 아닌 이상 꼭 나쁜 것은 아니다. 만일 당신이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한잔 마시지 못해서, 신경과민이 된다거나 짜증이 난다거나 혹은 몸이 아프거나 한다면 당신은 그 습관을 깨 버리는 것이 좋다.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를 제어하거나 지배하게 해서는 안된다. 우리의 몸은 성령의 소유이다. 만일 우리가 그 외에 다른 것에 굴복한다면, 우리는 그것의 종이 된다(롬 6:16). 결론은 다음과 같다: 만일 커피나 차, 콜라나 다른 어떤 것이라도 몸에 해롭거나 습관성이 된다면, 그것들을 제어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알코올이 섞인 음료 성경은 술취하는 것에 대한 경고로 가득 차 있는데 특히 포도주에 대해서 경고한다. 잠언은 포도주와 다른 독주에 대해서 몇 가지 정죄를 하고 있다.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잠 20:1).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잠 23:31). 두 번째 구절은 명백히 발효가 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는 것에 대한 경고이다. 포도주와 혼합된 술의 결과는 고뇌와 슬픔, 말다툼과 수다, 상처와 충혈된 눈, 성적 범죄와 점잖지 못한 대화, 비틀거림과 무신경 그리고 중독이다(잠언 23:29-35). 포도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부해지지 못할 것이다(잠 21:17).

구약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께 헌신되고 구별된 사람들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금지되어 있었다. 나실인들은 그것을 마실 수가 없었다(민 6:3, 사 13:7). 세례요한도 술을 마시지 않았다(눅 1:15). 왕과 그의 자손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왜냐하면 술은 그들로 하나님의 법을 잊게 만들고 정의를 배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잠 31:4-5). 제사장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성막에서 섬길 때에 술을 마실 수가 없었다(레 10:9, 겔 44:21). 오늘

날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구분된 사람들이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계 1:6, 벰전 2:9, 롬 12:1). 그러므로, 우리가 독주를 마셔서 되겠는가?

포도주를 마심으로 기인한 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노아는 술에 취해서 자신의 몸을 욕되게 했으며 또한 다른 사람들을 당황시키고 죄를 짓게 하는 원인을 제공했다(창 9:20-25). 롯은 술에 취해서 자신들의 친말들과 근친상간을 저질렀다(창 19:32-38). 다른 많은 구약의 성경구절들이 술취하는 것을 정죄한다. 이사야는 술취함을 정죄하였다(사 5:11). 그는 또한 독주가 사람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선지자들을 실수하게 만들고, 길을 잃게 하고 결국은 영적인 통찰력을 잃게 한다고 말했다. 포도주는 마치 창녀가 그러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다(호 4:11). 하박국은 이웃으로 술 취하게 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고 선포하였다(합 2:15).

신약성경에서는, 술취함은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죄로서 간주되고 있다(고전 6:10, 갈 5:19-21). 예수님과 바울과 베드로는 술취함에 대해 경고하였다(눅 21:34, 롬 13:13, 엡 5:18, 벰전 4:3). 감독과 집사와 나이든 부녀들은 특히 술을 마시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다(딤후 3:3,8; 딤후 1:7, 2:3). 이러한 모든 구절들을 살펴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알코올이 포함된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은 명백해 진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포도주 마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성경구절들을 오용함으로써 자신들의 음주를 정당화하려고 시도한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포도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공부하는 것이 좋다. 아래의 연구는 스토롱의 히브리어 및 갈대어 사전과 신약 헬라어 사전에 기초를 두고 있다.

구약성경에서 '포도주'라고 번역되는 두 가지 중요한 히브리 단어가 있다. 다른 아홉 가지의 '포도주'를 나타내는 단어들은 아주 제한된 경우에만 사용되었을 뿐이다. 야인(Yayin)은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인데, 그것은 모

든 종류의 포도주를 포괄적으로 의미한다. 그것은 주로 발효된 포도주를 의미한다. 야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몇몇 구절들은 분명히 발효된 포도주를 말하고 있다(창 9:21; 19:31; 삼하 13:28; 예 1:10; 잠 20:1; 23:31; 31:4). 또 야인은 신선하게 만들어진 발효되지 않은 포도주를 의미한다(사 16:10, 렘 48:33).

포도주를 의미하는 자주 사용되던 또 다른 히브리 단어는 티로쉬(tiyrosh)이다. 티로쉬는 거의 모든 경우에 방금 만든, 발효가 되지 않은 포도주를 의미한다. 이 단어는 십일조로 드러지던 포도주를 의미하는 경우에만 사용되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발효가 이루어지기 전에 포도주의 십일조를 먼저 원하셨기 때문이다(신 12:17, 14:23, 느 13:5). 이 단어는 “곡식과 포도주”라는 어구에서 사용되었다(창 27:28, 37, 신 7:13 외). 그것은 많은 장소들에서 “새 포도주”라고 번역되었다(잠 3:10, 율 1:10 외).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단 포도주”라고 번역되었다(미가 6:15). 1956년 성경전서 한글 개역판에서는 그냥 ‘포도주’라고 번역하였다(역자주-이 단어는 또한 이사야서 65장 8절에서 사용되었는데 “포도송이의 즙”을 말하고 있다). 이 구절들로 볼 때, 포도주나 새 포도주라고 번역된 티로쉬라는 단어는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헬라어 오이노스(oinos)는 신약성경에서 포도주를 말하는 원래 단어이다. 그것은 보통 발효된 포도주를 의미하나 히브리 단어처럼 발효시키지 않은 포도즙도 의미할 수 있다. 적어도 세 군데 이상의 신약 성경구절에서 오이노스를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마태 9:17; 막 2:22; 눅 5:37). 이러한 성경구절들은 발효되지 않는 새 포도주는 현 부대에 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 포도주가 발효될 때는 현 포도주를 터뜨릴 것이기 때문이다. 글레우코스(gleukos)라는 헬라어 단어는 새 포도주라고 번역되어(행 2:13) 단 한 번만 사용되었다. 그것은 방금 만든 포도주(포도즙)나 단 포도주를 의미한다.

우리가 살펴본 결과로서, “포도주”라고 신구약에서 나온 단어는 발효되거나 발효되지 않은 포도주 모두를 의미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또한 신약성경 당시의 역사로부터, 포도주는 가정에서 음용되기 전에 많은 비율로서 희석되었고 또 포도즙을 보관하는 방법도 잘 알려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과 또한 성경이 포도주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사실로 비추어 볼 때, 성경 속의 포도주에 대한 언급들이 강한 술을 마시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고는 보기 힘들다.

우리는 구약성경 속의 사람들이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증명하려 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술을 마셨다. 그리고 또한 많은 해로운 결과가 따라온 것도 알 수 있다. 또한, 그들은 율법아래에 있었으므로 그것을 극복할 힘이 없었다. 율법은 단지 사람들이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줄 뿐이었다. 만약 율법이 완벽한 것이었다면, 은혜시대는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에 맞추어 살아야 하고 또 할 수 있다.

어떤 이들은 예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기적을 가지고 그들이 술을 마시는 것을 합리화한다(요 2:1-11). 하지만 예수께서 만드신 포도주가 술 취하게 하는 것이라는 증거가 없다는 것을 주목하라. 10절에서 손님들이 취했다는 언급은 없다. 단지 앞서서 주인이 내온 포도주 때문에 취했다는 이야기가 있을 뿐이다. 술취함은 죄이고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죄짓기를 원하지 않으신다(갈 5:21, 약 1:13).

또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충고는 어떤 이들을 혼동시킨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딤후 5:23). 바울은 디모데에게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즙을 마셔서 원기를 회복하고 위통을 다스리라고 충고하고 있는 것이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비위생적인 물을 마시지 말라고 충고했음직하다. 아니면 순전히 의학

적인 목적으로 포도주를 사용하라고 권하고 있는 것이다. 분명히 바울은 디모데에게 몸에게 오히려 해를 주기만 할 강한 술을 마시라고 권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성경이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에서 포도주가 사용되었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대신에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라고 나와있다(마 26:29, 막 14:25, 눅 22:18). 의심할 바 없이, 이러한 단어들은 성령의 뜻에 따라 선택되었다. 결과적으로, 마지막 만찬에서 포도즙이 아닌 발효된 포도주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사실상,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사용하는 것은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이유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빵을 누룩을 넣는 것은 술이 발효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양쪽 다 곰팡이의 일종인 누룩에 의해서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고린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취하였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은 성찬예배 전의 그들의 만찬에서였다(고전 22:20-22). 이것은 각각의 사람들이 자신의 음식을 가져왔던 식사모임이었다(21절). 그리고 몇몇은 명백히 발효된 포도주를 가지고 왔다. 어떤 경우든지, 성경은 그들의 알코올이 함유된 음료를 마시는 것을 인정하고 않고 만일 어떤 언급이 있다면 정죄하고 있는 말뿐이다. 이 말씀의 목적은 성찬예배의 형식을 규정하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이들도 성찬예식을 술취하는 빌미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포도주”라는 단어는 신구약 전체에서 발효된 것과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 둘 다를 의미할 수 있다는 것과 여러 구절들에서 둘 중에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명백히 구분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이러한 구절들이 해석되는가에 관계없이, 두 가지 사실은 명백하다. 먼저, 술취함은 육체의 일이고 또 술취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둘째는, 알코올의 해악이 성경 속에서도 또 오늘날의 사회에서 잘 알려져 있다는 것이다. 가난함과 병, 시간

과 돈의 낭비, 속병과 폭력, 악한 생각과 가정 파탄, 성적인 죄와 육체적 정신적 상해, 그리고 그것이 원인이 되는 죽음. 증거로서, 1978년에 미국 보건국이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텍사스 신문 1978년 9월 18일 텍사스 오스틴시), 7%의 미국인이 알코올 중독자라고 밝히고 있다. 알코올은 매년 20만 명의 미국인을 죽게 하는 주원인으로 밝혀져 있고 교통사고와 살인사건 원인의 반과 자살 원인의 삼분의 일을 차지한다. 그것은 간 경화와 뇌 손상, 그리고 최근에는 구강암과 인후암, 식도암, 간암, 폐암의 원인으로 규명되었다. 그것은 또한 지능 지체를 포함한 미숙아 출산의 주 요인이 되고 있다. 생산 감소와 병원비를 포함해서 연간 약 430억 달러가 알코올 때문에 낭비되고 있다. 알코올이 사람들로 얼마나 죄를 부추기는 지는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우리는 그것을 매일 볼 뿐이다. 분명히, 이것에 대한 성경의 경고는 잠언 23:29-35절의 내용과 21:17절의 이야기가 정말임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다.

성경뿐만이 아니고 사회도 알코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마시는 것은 상관없지 않을까요?”라고 묻는다. 개개인은 저마다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들은 다음의 이유들로 인해 술을 마시지 않는다. 먼저, 어떤 사람이든지 술을 아주 조금만 마셔서 정신적으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거나 전혀 취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피할 수 없게, 술을 마신 사람의 행동과 태도는 어느 정도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면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완벽히 제어할 수 없게 되고 때때로 해서는 안되는 일을 하게 된다. 그는 죄와 유혹으로부터 더 이상 자신을 완전히 지킬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술의 종이(그리고는 사탄의 종이) 되고 만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몸을 그것에 굴복시켰기 때문이다(롬 6:6). 우리의 몸은 성령의 거하시는 전이므로, 우리는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주관하기를 원치 않는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몸에 해롭고 우리를 쇠약하게 만드는 어떤 것도 사용

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것은 우리의 몸을 더럽히는 일이다.

둘째로, 모든 사람이 술 때문에 생기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아주 적은 양의 술이라고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아예 만지지도 않는 것이다. 만일 스스로 술을 잘 다룰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을 지라도 그는 쉽게 자신의 형제를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할 수 있다. 이것 자체만으로도 로마서 14장 21절의 절제하는 이유가 된다. 어린이들이나 십대 청소년들, 그리고 연약한 지체들은 좋은 모범으로부터 유익을 받을 것이고, 나쁜 모범들로부터 상처를 입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모든 모양의 악을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살전 5:22). 술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이것을 순종하는 방법은 아예 처음부터 피하는 것이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우리 자신을 생각해야 하고 또한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눈에도 주의해야 한다. 어떤 이들에게는, 아예 피하는 것이 극단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술로 생기는 모든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예방책이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이것은 매우 힘들거나 혹은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이것은 힘든 일이 아니다. 성령은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랑과 욕구로서 우리는 완전한 새 피조물로 만드신다(고후 5:17). 그분은 술에 대한 집착을 완전히 사라지게 함으로서, 우리가 아예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도 않게 하실 수 있다. 또한, 성령은 우리에게 모든 기쁨과 평화, 안식과 만족을 주신다(롬 14:17). 술은 일시적인 쾌락과 일시적인 문제 회피는 줄 지 모르나, 성령께서는 영원한 기쁨과 우리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신다.

마약과 다른 약물들 우리가 하고 있는 술의 해악에 관한 논의는 마약에도 적용된다. 왜냐하면 술 자체가 마약의 일종이기 때문이다. 마리화나를 예로 들자면 술과 같은 종류의 해악을 가져다준다. 그것을 사용하면, 자신

을 제어할 수 없게 되고 정신적 육체적인 중독을 가져온다. 그리고 또한 더 심한 마약을 사용하도록 인도한다. 이것의 정신적 육체적인 해악을 살펴보기 위해서 1979년 12월 호 리더스 다이제스트지의 “마리화나 주의보: I. 뇌와 성(性)에 미치는 폐해들, II. 젊음의 적”이라는 기사를 읽어 보라. 강한 마약들은 명백히 중독적이고 육체적인 손상을 가져온다. 그리고 범죄의 주요 원인이 된다. 기본적으로, 어떤 마약이든지 술취함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게 할 수 있고(자신의 통제력을 잃는 것), 죄에 빠지게 할 수 있고, 육체적인 손상과 정신적인 의존증을 가져오게 할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우리는 이 논의를 불법적 마약으로부터 일반 의약품에까지 확산시켜야 한다. 우리는 절제와 자기 통제력을 길러야 하고, 두통약과 수면제 그리고 다른 약들을 혹 사용하게 될 때라도 남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담배 한때는 기독교내의 모든 종파가 흡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었다. 오늘날에는 다른 일들에서와 마찬가지로 타협하는 태도가 많은 교회 내에 팽배해 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흡연을 거부한다. 왜일까?

우리의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전을 더럽히지 말라고 명령하신다(고전 6:19, 3:17). 더럽힌다는 것은, 지저분하게 하거나 모욕하는 것, 완전함을 망치거나 오염시키는 것을 말한다. 명백히 담배는 우리의 몸을 더럽힌다. 오랫동안 성직자들은 담배가 사람을 더럽게 만들고 몸에도 해악을 끼친다는 사실을 인지해 왔다. 성령께서 과학이 증명하기 오래 전에 그것이 해로움을 가르쳐 주었다. 물론,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담배가 없었기 때문에 성경은 담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다. 담배는 컬럼버스의 미 대륙 발견 후 미국 인디언들에 의해서 소개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필요적절할 때에 그분의 영으로 충만한 교회를 통해서 기준을 세우셨다(마 18:18, 행 15:28). 이 구절

은 담배와 마약의 경우에 적용된다.

현대 과학은 사실상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미국 텔레비전에서의 담배광고는 금지되었다. 모든 담뱃갑과 담배광고에는 “경고: 담배는 당신의 건강에 해롭습니다”라는 문구를 넣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흡연은 폐암과 폐기종의 주요 발병원인이다. 흡연은 또한 다른 많은 암들과 호흡기 질환, 뇌졸중과 심장질환 등의 원인이 된다. 미 공중 위생국 장관의 보고에 의하면 약 35만 명의 미국인이 매년 담배로 인해 사망한다고 밝히고 있다(1979년 리더스 다이제스트 4월 호). 영국의 왕립의사학회는 최근의 조사에서 ‘담배 한 개비는 흡연자의 수명에서 5분 15초를 단축시킨다’고 발표했다(1977년 7월 5일 텍사스 휴스톤의 휴스톤 연대기 참고). 같은 연구는 흡연자 3명중 1명은 결국 흡연으로 인해 사망한다고 밝혔다. 대략 5000만 시간 정도의 근무기간이 이 흡연으로 인한 병으로 인해 낭비된다고 한다. 흡연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해 약 275만 달러가 매년 미국에서 낭비되고 있다(뉴 잉글랜드 의학지 1978년 3월 9일). 심지어는 세상마저도 담배가 사람의 몸을 더럽히고 해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게다가, 앞부분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흡연은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형성하게 되는 습관들 중의 하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 습관을 끊어 버리고자 노력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없이 실패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형태의 흡연도 하지 않는다.

결론 “그런즉…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케 하자”(고후 7:1).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롬 12:1).

제 9 장 성적인 관계들

“(너는) 간음하지 말지니라”(출 20:14)

“음행과...멀리하라”(행 15:20)

성경은 결혼과 성적 관계에 대한 가르침에서 아주 분명한 선을 긋고 있다. 신구약의 많은 성경구절들이 간음과 음행을 정죄하고 있다. 일반적인 의미로서 이 두 단어는 모든 불법적인 성적 관계를 의미한다. 기본적으로 성경은 모든 종류의 혼외 성관계를 금지하고 있다.

결혼 먼저 그 기원과 목적, 그리고 본질을 살펴보기로 하자. 결혼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다. 그는 하와를 창조하신 후 아담에게 아내로 주었다. 하나님이 결혼을 제정하신 목적은 남자에게 돕는 배필을 주시게 위함이고, 남편과 아내 사이의 교재를 허락하기 위함이었으며 또한 재생산을 위함이었다(창 2:20, 2:24, 2:18). 그분의 계획은 남녀가 자신의 집을 떠나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었다(창 2:24). 이 연합은 인생 전체에 걸쳐서 단 한 번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짝지어 주셨기 때문이다. 율법 아래에서 이혼이 허락된 것은 사람의 완악한 마음 때문이었다. 마태복음 19:3-9에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과 모세의 율법을 대체시키셨다. 그 성경구절에 따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시험하려고 이혼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만일 예수께서 유대인이 가르친 것처럼

사람이 자신의 아내를 떠나 이혼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면, 그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자로 정죄할 참이었다. 반대로 만일 예수께서 이혼을 정죄하셨다면, 그들은 예수를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는 자로 고발할 계획이었다. 그들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께서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라고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성경에서 이혼을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셨다(말 2:15,16). 성경은 왕과 성직자, 집사들에게 항상 일부일처제를 강조한다(신 17:7; 딤후 3:2,12; 딤후 1:6). 일부다처제는 성경 속에서 두 번째 살인자로 기록된 라벡에 의해 창시되었다(창 4:19,23).

논의를 계속하기 전에, 성적인 연합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들 사이에 흡인력도 생기게 하셨다. 기독교 내의 어떤 전통들은 성을 품위 없고 비천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 가르침은 성을 인류의 맥을 잇기 위한 필요악이며 그것을 누려서는 안되고 더욱이 거룩한 사람들은 그것에 몰입하면 안된다고 가르쳤다. 그것은 단지 사실이 아니다. 성적 관계의 목적은 재생산 외에도 결혼의 완성이고 남녀사이의 연합을 공고히 하는 것이다. 결혼을 금지하는 사람은 잘못된 교리를 전파하는 것이다(딤후 4:1-3). 히브리서 13장 4절은 성적 관계에 대한 진리를 말해주고 있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히 13:4). 레위기의 율법에 의하면, 많은 종류의 성적인 범죄들이 죽음으로 다스려졌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악을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데 대한 좋은 증거가 된다. 모든 죄가 위험한 것이고 사람을 불 못으로 던질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성적인 죄에는 특히 더 심각한 점이 있다. 왜냐하면, 성적인 죄는 혼인의 신성함을 더럽히기 때문이다. 음행을 하는 자들은 한 육체로 합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목적하신 것과 같은 결과이다(고전 6:15-16). 성과 결혼은 두 사람의 연합을 포함하고 또 자녀양육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신성한 것이다. 남녀의 결합에 의해서 아이가 태어난다. 한 아이는 남녀가 연합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영혼으로 말미암아 사람과 하나님이 만드는 합작품이다. 그 연합에 의한 결과로서, 그 영혼은 영원한 존재로서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온전한 결혼 가운데서 정상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길 원하신다. 이것이 결혼을 신성하게, 그리고 성적 범죄를 다른 범죄보다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이유이다.

다른 죄와는 달리 성적인 죄가 한 번 이루어지면 그것을 완전히 회복하거나 죄인을 원래의 순수한 상태로 되돌릴 길은 없다. 예를 들어, 도둑은 자신이 훔친 것을 돌려줄 수가 있을 것이다. 거짓말쟁이는 자신의 거짓말을 정정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곧 잊어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적인 죄는 돌이켜질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은 때때로 당사자의 평생을 따라다닌다.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그런 과거가 있다면, 그는 목회자로서 부적격하다. 왜냐하면 그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하고 좋은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딤후 3:2,7; 딤후 1:6; 눅 9:62). 이것은 그러한 죄는 다른 죄보다 더 용서받기 힘들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죄의 결과가 다른 죄와는 달리 회복하거나 그 결과를 돌이키기가 어렵다는 말이다.

이 주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들을 생각해 보자. 신약성경에 있었던 최초 교회 지도자들의 회의에서 구약성경의 혼외정사에 대한 교훈이 모두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유대 율법에 뿌리를 두고 있는 4가지 교훈 중에 '음행을 피하라'는 교훈이 들어간 것은 성령과 교회 지도자들에게 당연하게 보였다(행 15:19-29, 21:25).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것처럼, 음행은 모든 불법적인

성적행동을 포함한다.

간음은 많은 성경구절에서 금지되었다(출 20:14, 레 18:20, 신 5:28). 결혼한 부녀와 간음하는 것에 대한 벌은 연관된 두 사람의 죽음이었다(레 20:10, 신 22:22). 구체적이거나 혹은 한정된 의미로 사용될 경우에, 간음이 라는 말은 양자 중 적어도 어느 한 쪽이 결혼을 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행한 경우를 일컫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성관계의 경우를 일컫지는 않는다. 간통은 인간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악들 중의 하나이다(마 15:19-20; 고전 6:9-11; 갈 5:19-20).

음행 한정적인 의미로 사용하자면, 음행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범하는 성적 죄를 의미한다. 율법은 음행의 대가를 죽음으로 정하고 있다(신 22:20-21). 결혼은 음행의 유혹을 피하기 위해 제안된 방법이기도 하다(고전 7:2). 음행은 신약성경에서 자주 언급되고 금지되었다(고전 6:13-18; 갈 5:19; 엡 5:3; 골 3:5; 살전 4:3).

근친상간은 가까운 친척간에 일어나는 간음을 의미한다. 이것을 금지하는 율법은 스무 가지나 있다(레 18:6-18, 신 22:30). 아버지의 아내와 간음을 범한 자는 율법에 의해 죽음을 당했다(레 20:11). 이 죄는 고린도 교회에서도 있었다(고전 5).

수간 수간은 짐승과 성행위를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죄는 사람뿐 만 아니라 관련된 동물 모두 다 죽음으로 다스려졌다(출 22:19, 레 18:23, 20:15-16, 신 17:21).

강간도 죽음으로 다스려 졌다(신 22:23-27).

불결함은 순결함과 반대되는 모든 것들을 의미한다(고후 12:21, 갈 5:19, 엡 4:19, 5:3, 골 3:5, 살전 4:7, 벧후 2:10). 그것은 모든 종류의 성적 도착을 의미하는데, 로마서 1장 24절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또한 아동학대 같이 다른 곳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들을 의미한다.

호색은 모든 종류의 부정한 행위와, 음란하고 외설적인 것들을 의미한다

(막 7:22, 고후 12:21, 갈 5:19). 음란한 마음을 부추기는 것과 정욕과 성적인 죄를 조장하는 것들은 실제로 성적인 죄가 일어났는가에 관계없이 다 이 범주 가운데 속한다. 그러므로 정욕적인 환경과 세상적인 활동이 벌어지는 장소들은 다 이 정의 가운데 포함된다. 영화들과 텔레비전 방송, 춤추는 것, 음탕한 이야기들이나 농담들, 음화들은 호색함을 부추기는 것들의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어떤 책들과 노래들, 어떤 음악들도 또한 음란한 것이 될 수 있다. 음란한 욕망을 품는 것과 정욕적 생각을 하는 것이 죄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여야 한다. 예수께서는 정욕을 품고 여인을 바라보는 것도 간음이라고 말씀하셨다(마 5:28). 그러나, 유혹이 마음속에 들어올 지라도 그것을 즐기거나 생각 중에 정욕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면 죄가 아니다(약 1:14-15, 마 4:1-11).

여기서, 페팅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한다. 강하게 포옹하는 것은 명백히 성적으로 자극적이고 유혹적이다. 이러한 페팅은 음탕한 생각으로 발전할 수 있고 또한 음행으로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만일 그 목적이 육체적인 즐거움을 주고 욕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라면 이러한 페팅은 피해야만 한다. 그것의 예를 들자면, 이성 친구사이에서의 페팅을 들 수 있다. 심지어는 약혼한 사이에서도 키스와 끌어안는 것은 절제되어야 한다. 연애와 페팅 그리고 성적인 자제력에 대해서는 허버트 마일이 쓴 '결혼 전에 가져야 하는 성적인 이해'(Sexual Understanding Before Marriage)라는 책에 잘 나타나 있다(존더반 출판사 1971년).

수음 자위행위를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이것은 오늘날 매우 일반적이고 또 중요한 논의이다. 성경은 이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우리는 일반적인 성에 관한 성경의 말씀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이것은 각자가 그의 마음에서 대답해야 할 문제이다.

마태복음 5:28에서 예수께서 가르치셨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마 5:28). 바울은 디모데에게 청년의 정욕

을 피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며 깨끗한 마음을 가지라고 충고하였다(딤후 1:19, 2:22). 우리는 방금 전에 욕정적이고 음탕한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됨을 보았다. 수음이 자주 성적인 환상과 연관되므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마음속에 음욕을 품거나 부적절한 환상을 하지 않고 수음을 할 수 있는가 자문해 보아야 한다. 적어도, 당신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성적인 관계를 상상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에 반대된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또한 우리는 자위행위가 우리의 몸이나 마음이나 양심을 더럽힌다고 느끼게 만드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것이 죄의식과 의심을 불러일으키지는 않는가?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 삶 속에서 해결해야만 한다.

또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성교의 목적이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남편과 아내간의 밀접한 관계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계획하셨다. 성교는 기쁨과 사랑의 표현을 나누는 것이다. 자위행위는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다. 이것이 습관적으로 자주 하는 수음이나 수음에 정신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한다.

팀 스탠포드(존더반 출판사)에 의해서 쓰여진 러브 스토리는 이 문제에 대한 좋은 방법을 제시한다. 독신인 저자는 성경구절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심리적인 필요와 죄의식, 환상 그리고 습관적인 수음을 피하는 방법을 말해준다.

이 문제에 대한 결론으로서, 당신은 당신의 생각과 유혹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 성경은 우리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후 10:5).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하나님이 올바른 대답을 주실 것을 믿고 또한 죄를 이기며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으로 믿자.

남색하는 것(남자의 여성스러움) 남색은 고전 6:9-10에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죄로 규정되었다. 그것은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동성애와 자주 병행한다. 흠정역 성경은 '남색하는 자'와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는 자'를 위의 구절에 같이 나열하고 있다. 헬라어로, 전자는 말라코스(malacos)이고 후자는 아르세노코이트스(arsenokoites)라고 한다. 성경이 같은 구절에서 다른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서, 그것은 서로 다른 것으로 보인다. 영어-헬라어 신약 주석은 전자를 '쾌락에 빠진 사람'이라고 후자를 '남색자, 비역질 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였다. 스토크 사전은 말라코스를 '보들보들한 옷, 비유적으로 미동'이라고 정의하였다. '미동은 성적 도착을 만족시키는 소년'을 의미한다. 다른 구절들에서, 이 단어는 부드러운 옷이나 망토를 의미하는 '부드러운'이라고 번역된다(마 11:8, 눅 7:25). 성경은 여자처럼 행동하는 남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은 여자처럼 옷 입는 남성들과 여자를 위해 만들어진 옷을 입는 사람들을 포함한다. 이러한 행위는 복장도착(Transvestism)의 가장 난잡한 형태이다. 또한 이것은 신명기 22장 5절에서 명백히 정죄되었다. 이 구절은 남자와 여자 모두가 상대방 성에 속하는 옷을 입을 것을 금하고 있다(6장 참조). 그리고 바울은 남자가 머리를 길게 기르는 것과 여자가 짧은 머리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전 11:14-15; 7장 참고). 이러한 성경구절들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두 성 사이에 구분을 두시고자 하신 것은 분명하다. 남자는 여성스러워서는 안되고 여성은 행동이나 습관, 옷 입는 것에서 남자 같아서는 안된다.

동성연애 동성연애(Homosexuality)는 남색(Sodomy)이라고도 불리고, 여성의 동성애는 레즈비언리즘(Lesbianism)이라고 불린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명백히 기술했고 있으며 또한 아주 여러 군데에서 이것을 정죄하고 있다. 이것은 오늘날에 크게 대두되는 문제이므로, 그것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들을 살펴보자. 율법은 동성애를 죽음으로서 정죄하고 있다(레 20:13). 그것은 가증한 것이라고 불려지는데, 가증한 것이란 사람을 천국에 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 중의 하나이다(레 18:22, 계21:27). 창녀와 동성애자는, 그들이 그러한 행위로 번 돈은 하나님의 전에 가지고 오지도 못할 정도로 멀리

되었다(신 23:17-18).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이 성경구절에서 남창이나 동성연애자가 번 돈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금지하는 대목에 사용된 말이다. 구약성경의 동성연애를 금하는 가르침은, 음행을 피하라고 이야기한 신약성경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었는데 음행은 모든 불법적인 성적인 행동들을 의미한다(행 15:19-29).

동성애에 관해 가장 눈에 띄는 예는 창세기의 소돔성에 대한 이야기에 잘 나타나 있다(창 19:4-11). 사람의 형태를 한 두 천사가 롯의 집을 방문했을 때, 소돔 사람들은 그들을 강간하려고 했다. 그들은 “그들을 상관할 수 있도록” 롯에게 손님들을 내보내라고 요구했다. 안다(Know)라는 말은 성관계를 완곡하게 이야기하는 성경의 표현이다. 롯이 그것을 거절했을 때, 그들은 방문객들에게 보다 롯에게 더한 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했다. 그들은 천사들 대신에 롯의 두 처녀 딸을 취하기도 거부했다. 마침내, 천사들이 롯을 집안으로 잡아 이끌고 문을 닫은 후, 그들을 눈멀게 했다. 심지어는 그 때에도 그 사람들은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망시키시게 한 죄악들 중의 하나였다. 어떤 이들은 그 성 사람들의 죄는 동성애가 아니고 이방인에 대한 불친절이라고 주장한다. 이 견해는, 유다서 7장에서 그들의 죄는 “다른 색을 따라 가는 것”이라는 동성애에 대한 명백한 언급에 의해서 반박된다. 사실상 유다는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주변 성들이 멸망당한 이유는 그들의 음행과 동성애 때문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벧후 2:6-22참조). 또한 하나님께서는 천사가 그 성으로 들어가기 이전부터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다.

비슷한 이야기가 사사기 19:22~25에서 발견된다. 성경에 “비류의 자식”이라고 불린 베냐민 길브아의 어떤 사람들이 자신들의 마을에 방문한 한 남자를 공격하려고 한다. 그들은 그 남자의 첩을 빼앗은 후에야 물러섰다. 그리고 그들은 그 첩을 죽을 때까지 강간했다. 다른 지파들은 이 사람들을 처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베냐민 지파는 그들을 감싸고 돌았다. 결과적

으로 배나민 지파를 거의 멸절시키게 하는 시민전쟁이 일어났다.

또 다른 구약성경에서는 명백히 동성애가 일어났다고 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일어났었다는 상당한 암시를 보이는 장면이 있다. 어느 날 노아는 포도주에 취해서 자신의 장막에 잠들어 있었다(창 9:20). 성경은 그의 아들이 함이 노아가 벌거벗은 것을 보고 그의 형제들에게 말했다고 했다. 그의 형제인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로 걸어 들어가 그들의 아버지를 옷으로 덮었다. 노아가 깨어서 “그 작은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는 함의 자녀들은 셈과 야벳의 종이 되리라는 저주를 내린다. 노아가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인지했다는 것을 주목하라. 또한 성경의 단어들이 함이 어떤 특정한 행동을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정적으로 그 저주의 강도는 얼마나 큰 죄가 범해졌는지 말해준다. 만약 함이 단지 그의 아버지를 바라보기만 했다면 그것이 아주 큰 죄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특히 당시의 동양사회는 현재의 서양사회와는 달리 가족구성원들은 아주 친밀했고 또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크게 강조되지 않았었다. 만약 동성연애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함이 받은 저주를 보아 그것이 일어났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구약성경에는 동성애에 대한 다른 언급들이 있다. 왕 아사와 여호사밧과 요시아는 하나님의 뜻과 또 자신들의 개혁의 일환으로 소돔인들을 유다에서부터 몰아냈다(왕상 15:12, 22:46, 왕하 23:7). 유다의 큰 죄 중에 하나는 소년들을 창남으로 팔려가게 허용하는 것이었다(을 3:3). 이 성경구절들이 뜻하는 바는 소돔인들은 이 같은 행위를 이방신을 경배하는 방법으로 행하였다는 것이다. 당시의 이방종교는 동성애와 매춘을 그들의 경배 행위 중에 포함시켰다. 어떤 이들은 바로 그것이 동성애가 구약성경에서 정죄받은 유일한 이유라고 주장한다. 아무튼 이러한 주장은 신약성경의 그것을 금하는 구절들, 특히 로마서의 구절들을 반박할 수 없다.

바울은 로마서의 첫 장에서 인류가 점차로 배교를 향해 가는 과정을 분

명하게 이야기한다. 그는 먼저 모든 사람이 두 가지-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으로 시작한다. 결과적으로 사람은 핑계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롬 1:20).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도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 대신에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의 형상을 경배하는 죄를 범했다(21~23절).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러움 가운데 내버려두었고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24절). 그들은 창조자보다 피조물들을 경배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욕가운데 내버려두었다.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역리대로 썼다(26절). 마찬가지로,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같은 남자들을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 하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그릇된 일을” 하였다(27절).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진 마음가운데 두셨다(28절).

이 구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는 동성연애가 사람이 하나님을 안 후에 타락해서 이를 수 있는 마지막 단계임을 배운다. 그것은 사람의 몸인 피조물을 찬양하는 행위이다. 그것은 본성에 어긋나게 행동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것이다. 결혼의 목적을 다시 돌아볼 때, 동성애가 출산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그것은 여자가 남자의 돕는 배필이 되는 방법도 아니다. 그것은 남자와 여자가 한 육체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일부일처제가 지켜지는 것도 아니다.

로마서의 말씀은 동성애와 레즈비어니즘이 죄라는 것을 명백히 하고 또 배교의 열매라는 것을 이야기 해준다. 이것은 동성연애자가 배교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한 개인으로서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지금의 시대는 배교의 시대라는 것을, 그리고 배교의 시대에는 더 많은 동성애가 벌어진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마지막 때에는 이 죄악이 더 관영한다. 그것은 사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결혼이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여성이 남성의 역할을 빼앗을수록, 남성이 자신의 역할을 빼앗을수록, 그리고 악령이 더 활동할수록 이 사회에서 유행하게 된다. 그러므로 동성애는 극단적인 개인적 악의 증거라기 보다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악한 시대의 산물인 것이다.

신약성경 또한 동성연애를 죄로 정하고 있다. 어떤 남색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는 없다(고전 6:9).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흠정역 성경에서는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는 자(abusers of themselves with mankind)”이고 미어표준번역에서는 “동성연애자(homosexuals)”이고, 주석성경에서는 “동성애에 참여하는 자(those who participates in homosexuality)”라고 번역되어 있다. 그리고 헬라어-영어 대조 성경에서는 “소돔인-Sodomites(동성연애자를 이르는 말)”이라고 번역되어 있다. 위의 말들은 결코 모호하지 않으며 오히려 명백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다른 성경들은 “남색하는 자”와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와 같은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다(딤후 1:10, 딤후 3:3). 두 번째 성경구절은 말세에 세상에서 관영하게 될 현상들을 열거한 구절이다. 이것과 연관지어서, 예루살렘은 환란기에 소돔과 애굽의 도시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계 11:8), 다시 말해, 예루살렘은 성적 타락과 영적 간음의 본부가 될 것이다. 결정적으로 우리는 ‘불결함’이라는 말이 성경 속의 모든 종류의 부도덕과, 성적 타락, 그리고 동성연애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후 12:21, 갈 5:19, 엡 4:19, 5:3, 골 3:5, 살전 4:7, 벴후 2:10). 이것은 롬 1:24이 분명히 말해준다.

우리는 동성연애가 거짓말하는 것이나 훔치는 것과 같이 죄라고 결론 지을 수 있다. 그것은 병도 아니고 다른 삶의 선택도 아니다. 그것이 오늘날 아주 유행하고 자주 눈에 뜨인다 해도,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먼저, 우리는 그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물론, 그것은 개인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선택한 행동의 결과이다. 그것은 사람의 죄성과 사탄이 반항적인 사람들을 유혹해서 생긴 일이다. 아무튼, 그

것에 대한 영적인 고려 이외에도, 어떤 이들을 다른 죄들보다는 더 동성애로 이끌 수 있는 몇 가지 요소가 있다. 문화의 특성이 있을 수 있고, 개인의 특성도 있을 수 있고, 더 상처받기 쉬운 신체적 특성도 있을 수 있다. 마치 어떤 이들은 더 쉽게 알코올중독이 되듯이 말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극복할 수가 있다. 그리고 명백히, 동성애가 유전적이라는 증거는 전혀 없다. 과학적 조사에 따르면 동성애는 유전적인 것이 아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라든가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식으로 만들었어”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것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든 그런 식으로 만드시고 또 그것 때문에 벌을 내리신다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일 것이다. 동성애의 경향들은 많은 경우에 심리와 환경의 결과로서 생긴 것이다. 우리는 동성애를 막고 또한 동성애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이것들을 알고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요소들이, 습관적 죄와 알코올중독과 습관적인 거짓말과 매춘 같은 행위로 사람들을 이끌기 때문이다.

인류학자들에 의해 조사된 원시사회를 포함한 모든 사회는 동성애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물론, 다른 죄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많은 사회들 가운데, 여자의 동성애는 매우 드물었고 또한 남색의 경우에도 그것이 평생동안 지속되는 예는 사실상 없었다는 사실을 알면 흥미롭다. 또 알아야 할 것은 여자 같음과 동성애는 똑같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많은 동성애자들이 여자 같은 성격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또한 많은 동성애자들이 사실상은 여성과도 관계를 가질 수 있고 또한 관계를 가졌었다는 사실이다.

심리학자들은 동성애로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밝혀 냈다. 기본적으로, 만일 아이가 다른 성의 부모를 항상 흉내낸다면 그 아이는 동성애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이것은 주로 동성의 부모를 흉내낼 수 없는 경우에 일어난다. 예를 들자면, 아버지가 집에 거의 함께 지내지 않는다거나, 아주 아이를 학대하거나, 매우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아이가 두려워하

거나 한다면 그의 아들이 어머니를 흉내낼 가능성이 아주 많아진다. 이것은 또한 어머니가 아주 애정이 깊고 아이를 압제하거나 제어하려 할 때 일어날 수도 있다. 이것은 아이에게 무의식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는 이런 영향들로 인해 사실상 다른 성의 부모의 역할을 배우게 될지 모른다. 그로 인해 그는 다른 여자들과 접촉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될 수도 있다. 그는 어머니의 압제를 싫어하고 또 어머니에게 적응하지 못하게 되어 다른 여자들에게도 이러한 감정을 가지게 될 수도 있고, 다른 여자들을 모두 어머니 같이 만질 수 없는 성인같이 보게 될 지도 모른다. 아니면, 어머니에게 너무 충성한 나머지 다른 여자들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가질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모든 반응들이 동성애로 이어지게 할 수 있는 것들이다.

다른 하나의 중요한 영향은, 첫 번째 경험과 성에 대한 인식이다. 어린 나이에 동성애를 접하게 된다면 그것이 습관으로 굳어지기도 한다. 특히 만약에 그 경험이 즐거운 기억으로 남는다면 더욱 가능성이 커진다. 어릴 때 가지는 이성과의 경험이 비참하게 끝나거나 또 사생아가 태어나기도 하고 또 낙태가 이루어 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성과의 성경험에 반발감과 죄의식, 두려움을 느낀 젊은이들을 이성으로부터 멀리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 육체적인 무능감이 같은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결정적으로, 소년기의 소외는 큰 영향을 끼친다. 적절한 동성의 친구가 없거나, 동성간의 적절한 교제와 활동이 없다면 나중에 이러한 요구는 동성애에 의해서 충족되게 될 수도 있다. 동년배들로부터의 따돌림과 놀림이 젊은이를 자신에게 쉽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동성애자와 친구가 되게 할 수도 있다.

목사가 이러한 영향들을 이해하고 있으면, 이런 불건전한 상황들을 예방하고 고치고,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 대처할 수는 있을 것이다. 만일 성도 중 하나가 이런 징후를 보인다면 상담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만일 그가 자신이 그런 식으로 태어나지 않았고 그는 단지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면, 그는 그것들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또한 부모들로 어떻게 자식을 올바른 환경 가운데서 기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빛을 준다. 특히, 우리는 아버지가 그의 아들과 따뜻한 부자의 관계를 맺고, 어머니가 가정의 권위를 가지고 혼드는 것을 자제하고, 아들이 동년배의 친구들과 올바른 우정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알 수 있다. 아들은, 특히 어머니에 의해 너무 과보호를 받으며 응석받이로 키워져서는 안된다. 우리는 또한 이런 관점에서, 더 이상 사회나 학교체제가 동성애에 관해 우리의 자녀에게 올바른 가치를 심어줄 것이라고 신뢰해서는 안된다.

부모와 교회가 성의 차이와 성 역할의 차이, 그리고 이성간의 올바른 예절에 대해 필요한 교육을 시켜야한다. 우리의 자녀들과 젊은이들은 어떤 상황을 피해야 하고 어떻게 그것들을 피할 수 있는지 배워야 한다. 그들은 그런 상황들과, 중대한 시기에 있는 그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해로운 사람들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그리고 환경에 의한 영향들이 동성애에 대한 정당화로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왜냐하면 먼저, 모든 다른 습관적인 죄들도 환경의 압박이나 나쁜 경험의 영향을 받아서 범해지기 때문이다. 그래도 사람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자신의 행동을 선택할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기에 관련된 영적인 힘을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환경가운데서, 심지어는 가족중의 일부가 비슷한 환경으로 동성애자가 된 경우에도, 그것들을 극복했다. 더욱이 사람이 순종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그것들을 이길 힘을 공급하실 것이다.

동성애는 오늘날 매우 득세하고 있다. 먼저, 어린 시절의 그러한 경험은 지우기가 힘들기 때문이고 또, 그것은 개인의 삶 속에 오랫동안 발전해서 깊이 배어들기 때문이다. 다는 아닐지 몰라도 많은 경우에, 동성애에는 영적인 개입이 있다. 그 사람은 진정으로 그것에서 벗어나고자 할지라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동성애가 악한 영들과 가까운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많은 것들이 증거한다. 먼저, 동성애는 극복하기가 매우 어렵다. 둘째, 말세와 이방종교의 경배에 유행하는 동성애는 최근에 더 날뛰는 악령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셋째,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던 그리스도인이 타락하고 나서 동성애자가 되는 경우가 그것을 말해준다. 그들은 원래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나 타락함으로 모든 지옥의 영들에게 자신의 문을 열어주게 된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동성애자들은 다른 동성연애자들을 아무런 대화도 없이 바로 알아본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동성애자들을 알아보는 통찰력이 늘어난다는 것도 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동성애는 사회적으로 뿐만 아니고 또한 영적으로 다루어 져야 하는 강한 습관임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것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한 어렵다. 다른 모든 습관적인 죄와 마찬가지로, 어떤 이들이 불필요한 유혹을 피하기 위해 극도로 조심해야 하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그것에 대해 완전한 승리를 거두고 다시는 고통을 받지 않는다. 그것을 이기는 길은 기도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다. 완전한 승리는 쟁취될 수 있고 또한 쟁취되어야 한다.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참을성과 결단력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필요하다. 시편 37:4이 여기서 적용될 수 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첫 번째 단계는 동성애의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다. 동성애는 행위로서 규정된다. 그러므로 만일 어떤 사람이 더 이상 그 행위를 하지 않고 또 그런 쪽으로 음란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그는 더 이상 동성애자가 아니다. 다음 단계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가지길 원하시는, 건전한 이성적인 욕구를 그에게 주시는 것이다. 동성애자는 절대 동성애를 그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그는 그것을 후천적인 것이요 또한 자신이 선택한, 고칠 수 있는 습관이라고 보아야 한다(인식중이든 부지

중이든간에). 그는 동성애를 범했기 때문에 동성애자이다. 그가 그런 행동을 그치기로 한다면 그는 더 이상 동성애자가 아니다.

동성애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똑 같은 사람일뿐이다. 그들을 대할 때는 우정과 예의, 그리스도인의 사랑으로서 동등하게 대해야 하며 비웃거나 깔보아서는 안된다. 그들은 다른 죄를 짓고 있는 사람보다 더 크게 개인적으로 정죄되어서는 안된다. 동성애자도 매우 신실한 하나님에 대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또한 다른 많은 면에서 매우 도덕적일 수 있다. 때때로 그들은 매우 외롭고 힘들 수도 있다. 그들은 보통 자신의 양심이 무감각해질 때까지 자기증오와 우울증, 의기소침을 겪는다. 우리가 할 일은 그들에게 다가가 성령의 체험을 소개해 주는 것이다. 그 경험을 통해서만이 그들은 그 죄를 벗어날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교인들은 그들을 정죄하거나 자신의 뜻대로 그들을 바꾸려고 해서는 안된다. 그들이 젊은이들에게 아주 위해가 되지 않는다면 예배에서 제외되어서도 안된다. 만일 예배에서 제외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면, 원래의 신자가 동성연애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또 자신의 행위를 회개하려 하지 않는 경우일 것이다. 위험은 밖에서가 아니라 안에서 일어날 때 더 크다.

동성애는 오늘날 교회 안에 아주 위험한 요소이다. 많은 큰 교단들이 동성애자를 목회자로 임명하였다. 어느 날 법원이 교회법과는 상관없이 동성애자가 선지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는 권리를 주장하고 나설지도 모른다. 목회자들은 자신의 교회를 지킬 의무가 있다. 그들은 동성애를 반대해 가르치고 설교해야 한다. 남성회와 여성회에서 그리고 특히 젊은이들이 있는 모임에서 이 주제가 명백히 다루어져야 한다. 목회자는 젊은 형제들을 만나서 연애와 애무와 음행과 동성애와 또 다른 비슷한 주제들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어야 한다. 그리고 젊은이들에게는 목회자에게 솔직한 질문을 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마찬가지로, 목회자의 사모가 젊은 자매들을 만나서 같은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을 것이다. 남자의 여성적인 옷차림이나 행동

은 교회 안에서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소위 ‘여성해방’에 대한 적절한 태도가 교회 안에서 가르쳐져야 한다(2장 참고). 세상의 영은 언제나 교회를 공격해 왔다. 그리고 또한 교회에 침투하려 할 것이다. 동성애와 남성의 여성다움은 오늘날 점점 우리의 교회들에서 심지어는 음행보다도 더 큰 문제거리가 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영역에 있어서 말세의 도전에 대항해야 한다.

동시에 우리는 의심의 영에 대해 맞서야 한다. 남자가 어떤 이들에게 여성적으로 보이는 습관과 행동양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가 동성연애자인 것은 아니다. 그는 단지 다른 이들보다 조금 더 민감하고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른다. 사실상 많은 동성애자들이 자신들의 남자다움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그들 중에 다수가 보통 남자보다도 훨씬 남자답다. 우리는 그들을 외모로서 규정할 수는 없다. 아주 남자다운 사람도 여성스러운 남자만큼 동성애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떤 이도 동성애자라고 추측하거나 빗대어 말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건강하지 못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할 수는 있다. 그것을 제외하고는, 양을 보호하고 죄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은 목회자의 의무이다.

결론으로서, 동성애는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모든 사람은 비정상적인 습관과 경험의 기억이 사라질 수 있다면, 이성애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모든 죄들은 극복될 수가 있다. 성령께서 능력을 주실 것이다. 목사와 친구들은 참을성을 가져야 하고 그 당사자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 그 당사자는 자신의 삶을 바꾸겠다는 강한 의지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욕구가 있어야 한다. 많은 이들이 동성애를 극복하였다.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동성애자들을 언급한 다음에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고전 6:9-11) 라고 말한 것처럼, 모든 죄는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받는 침례와 성령의 능력으로서 극복될 수가 있다.

제 10 장

피흘림을 피함

“살인하지 말지니라”(출 20:13)

“피를 멀리하라”(행 15:20)

기본적인 율법 하나님의 율법 중 가장 기본적인 것 중의 하나는 사람이 타인의 생명을 취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살인을 금지하는 율법의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피를 흘리는 모든 피조물을 정죄하신, 창세기 9:5~6에서 노아에게 주어졌다. 십계명은 모든 종류의 죽임을 포함하고 있다(출 20:13), 그리고 신약성경의 교회가 이 가르침을 재확인했다(행 15:20). (위 구절에 대한 검토는 8장에 자세히 나와 있음) 다른 많은 구절들이 살인을 죄로서 규정하고 있다(마 5:19, 막 7:21, 갈 5:21).

살인 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죄가 되는가? 먼저 그것은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 대한 범죄이다(창 9:6).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해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의 삶에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각 개인은 모두 유일무이하고 다른 어떤 이도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개개인이 각각의 방법으로 그분을 찬양하기를 원하신다. 살인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개인의 찬양을 빼앗고 또한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그 개인의 영역을 사라지게 한다. 살인은 또한 그 가족에 대한 범죄이다. 가족, 친구들과 다른 사랑하는 이들은

자들에게 선행을 하고, 우리를 속이고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다(마 5:39, 44).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성령의 침례나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러한 ‘완전하라’라는 기준을 만족시킬 능력이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육체적인 전쟁을 하도록 허락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싸워야 될 전쟁은 영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엡 6:12).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에 따라 살아야 할 책임이 있다(마 5:48). 우리는 어떤 이유로든 다른 인간을 죽일 수 없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원수를 죽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없고, 그들은 영원한 정죄로서 저주한다면,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명백하다.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다른 이들의 생명을 취하려는 생각을 가지게 될 만한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행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분의 말씀과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다. 우리는 산중히 행동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생사를 주관할 만한 자리에 자신을 놓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전쟁과 자기방어 이것은 전쟁과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타인을 죽이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상대방을 죽일 수가 없다. 스테반이 돌을 맞았을 때, 그는 맞받아서 돌을 던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를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다(행 7:55-60). 베드로가 칼로서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을 때, 주께서는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라고 말씀하심으로 그를 꾸짖었다(마 26:52).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방어를 위해서 살상용 무기를 가지고 다닐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불러일으킨다. 무슨 목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다니는가? 만약 당신이 그 무기를 사용해야 할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만일 당신이 누군가를 죽인다면 무엇을 느끼겠는가? 당신은 정말로 타

인을 죽일 것인가? 당신은 살상 무기를 가지고 다니기로 결정하기 전에 이 같은 질문들을 먼저 답해야 할 것이다.

군 복무와 관련해서, 우리는 애국심과 성경이 말하는 권세에 순복하는 것을 믿는다(벧전 2:13-17, 롬 13:1-7). 우리는 조국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는 없다. 전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의료요원으로서 혹은 다른 일 가운데서 그들의 삶을 희생했다.

우리는 이 가르침이 초대교회의 역사에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예일 대학의 역사학자에 의하면, “군 복무는 허락되었지만, 전투에 참가하는 것은 거부되었다. 이것은 히포리투스(Hippolytus)의 경전에서 발견되었는데, 그리스도인은 군인이 될 수 있지만 죽일 수는 없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로랜드 배인튼의 초대 기독교역사, 프린스톤의 벤 노스트란드 출판사 1960, 54페이지). 같은 책의 50페이지에는, “검투사들의 결투는 금지되었으며, 그리스도인들은 그 싸움의 증인이 될 수 없었다. 그리스도인들은 때때로 사형을 선고해야 할 어떤 관료직도 맡을 수가 없었다”라는 내용이 실려있다.

미움 살인의 의미는 요한일서 3:15에서 크게 확장된다. 여기서 우리는 살인자에게는 영생이 없다는 말을 듣는다. 이 구절의 시작부분은 먼저 미움을 살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형제나 이웃을 미워하는 자는 마치 정말로 그를 죽인 것처럼 그의 피에 대한 죄가 있다. 미움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시작될 때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낙태 사람을 죽일 수 없는 모든 이유가 낙태에 있어서도 같이 적용된다. 임신의 순간에 정자와 난자가 결합해서 살아있는 생명체가 된다는 것은 생물학적인 사실이다. 임신 후 한 달이면, 눈과 발 그리고 머리를 분명히 구분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아이는 벌써 호흡을 하게 되며 어머니를 통해서 양분을 공급받는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

가 영원한 영혼을 소유하고 있다고 믿는다. 만약 임신의 순간에 영혼이 탄생하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에 영혼이 생길까? 분명히, 태아가 사람으로 구분될 수 있는 때인 임신 후 40일 정도면 아이는 영혼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타임지 1977년 5월 14일자). 만약 영혼이 임신 후 9개월 이후에 탄생한다면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들은 어떻게 된 것일까? 만약 아이가 어머니의 자궁에서 나올 때 영혼이 생겨난다면, 시험관 아기는 어떻게 된 것인가?

성경은 관련된 모든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뱃속에 있는 태아를 자녀로 규정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아를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부터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렘 1:5). 다윗은 주께서는 그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의 하나님이었다고 언급했다(시 22:10). 그는 또한, 자신이 잉태되었을 때 사람의 죄성을 물려받았다는 의미로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라고 말했다(시 51:5).

계획적으로 아이를 낙태하는 것은 그 살아있는 아이가 죽음을 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뱃속에서 몇 달 된 아이를 죽이는 것과 태어난 후 몇 달된 아이를 죽이는 것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뱃속에 있다가 죽음을 당한 아이와 미숙아로 태어나서 살도록 허락된 아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어떤 아이는 영혼을 가지고 어떤 아이는 영혼이 없다는 말인가? 우리는 특정한 기한을 못박아 말하고 그 이전시기의 태아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 만일 우리가 어떤 아이는 영혼이 있으므로 사람이고 어떤 아이는 아니라고 한다면 그래서 어떤 아이는 살아야 하고 어떤 아이는 죽일 수 있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가지고 장난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임신은 출산의 일부이다. 남자와 여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 창조에 관여하고 계시는 것이다. 임신이 이루어진 후에는 사람이 태아에 대해서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인 인생의 고매함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살 권리가 상황을 주도해야 하는 것이다.

자연적 낙태(유산)는 단순히, 병이 있거나 살 가능성이 없는 아이를 자

연이 거부하는 행위이다. 그것은 살인이 아니고 몸이 태아를 제거하는 것이다. 만약 어머니의 몸이 약하다면, 그녀는 아이를 낳는데 어려움을 가질 것이고 또한 아이를 다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계획적인 낙태(인공적인 낙태)는 인간을 죽이는 행위이다. 이것은 가르쳐야 하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잃어버릴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낙태를 행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 의해서 정당화될 수 없다. 낙태를 하지 않고 가족계획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 계획적인 임신은 이미 임신된 개인을 멸망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용인될 수 있다. 태아가 임신되었을 때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이미 지난 것이다. 산모의 생명이 위협에 처해 있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며 또한 치료자이심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는 의로운 여인을 해산의 시간에서 구하실 것이라고 약속했다(딤후 2:15).

의사인 월크 부부는 이 주제에 대해 매우 도움이 되는 “낙태에 대한 편람”을 출간했다(1975년 오하이오주의 해이즈 출판사). 이 책에 의하면, 태아가 임신된지 8주이면 모든 인간의 신체구조가 형성된다고 한다. 18일에서 25일 사이면 심장의 박동소리도 감지될 수 있다. 뇌파는 40일 안에 발견된다. 이 책은 낙태에 대한 거의 모든 질문들을 담고 있다. 6주, 8주, 10주된 태아의 컬러사진을 담고 있는 이 책은, 소금 중독과, 흡입, 그리고 절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낙태의 사진들도 담고 있다. 태아들은 비록 작기는 하지만 완전한 사람들의 모습을 하고 있다.

이 주제에 대한 또 하나의 좋은 책은, ‘낙태, 성경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도널드 슈메이커의 책이다(미시간 그랜드 레피드 소재, 베이커 출판사). 이 책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적인 낭패나 정신적 육체적인 결함의 가능성, 산모의 건강, 강간이나 근친상간으로 인한 낙태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다. 우리는 강간피해자의 임신을 막기 위해 DES 호르몬(diethylstilbesterol)을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다. 임신 이전에 이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가능하

다.

요약하자면, 낙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답해야 할 두 가지 질문이 있다. 무슨 권리로 우리가 타인의 실수로 생겨난 죄 없는 생명을 취할 수 있는가? 만약 낙태가 무슨 이유로든 도덕적으로 정당하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는 새로 태어난 아이나, 정신 장애자나, 신체 장애자나, 고아나 늙은 사람들을 같은 이유를 가지고 제거하지 않는가?

지식 자살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 하나님은 타인의 피를 흘리든지 자기자신의 피를 흘리든지 그 피값을 요구하실 것이다(창 9:5). 자살을 기도하는, 정신이 온전한 사람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생명을 버릴 권리가 없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자살을 생각도 해서는 안된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과 평안을 주실 것이다(갈 5:22). 만일 우리가 감당하거나 처리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는 바로 기도하고 금식할 때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 그리고 그는 언제나 피할 길을 내실 것이다(고전 10:13). 자살은 사실상 문제와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이다. 사실 그것은 성공하는 도피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심판의 날에 진실을 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이 삶에서 우리의 문제와 유혹들을 이기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해결할 기회를 다시는 가지지 못할 것이며 그 결과의 고통을 영원히 받게 될 것이다. 자살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그는 하나님께서 삶과 죽음을 주관하실 권리를 빼앗는 것이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가지고 계신 계획과 목적에 반역하는 것이다.

결론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고 또한 개개인을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생명을 고의적으로 해하는 것은 죄악이다.

제 11 장

정직함과 성실함

“도적질 하지 말지니라”(출애굽기 20:15)

“도적질 하지 말라...속여 취하지 말라”(마가복음 10:19)

이 장에서는 개인의 정직함과 성실함에 관련된 다양한 질문들을 다루고자 한다. 말하자면, 도둑질, 사취하는 것, 속여 빼앗는 것과 뇌물수수 등을 말한다. 거짓말은 4장에서 이미 다룬 바 있다.

도둑질 성경의 기본적인 가르침중의 하나는 타인의 재물을 존중하는 것이다. 훔치는 것은 타인의 동의 없이 그의 재산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훔친 물건이 값진 것이든 아니든 간에 도둑질이라는 사실에는 변화가 없다.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아무리 부자이고 또 도둑질을 한 사람이 아무리 가난하다고 하더라도 도둑질은 옳지 못한 일이다. 이러한 경우에 대한 성경의 해결책은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이다(엡 4:28). 또한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살후 3:10)라고 이야기했다. 어떤 철학은 가난한 이가 어떤 물건이 꼭 필요할 때는 그것을 손쉽게 보충할 수 있는 부자로부터 물건을 훔칠 수 있다고 가르친다. 다른 철학은 주인이 자신의 물건을 잘 보관하지 않으면 그것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므로 가져가도 좋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이것들은

사람의 철학일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도 다른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단지 “도적질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 할 뿐이다.

훔치는 것에 대한 개념은 아주 분명하나, 그것을 몇 가지 실제적인 예로서 들어보고자 한다.

1. 도서관에서 책을 빌린 후 반납하지 않는 것은 도적질이다.
2. 어떤 기관의 시설을 돈을 내지 않거나 책임자의 동의 없이 가져다 사용하는 것은 도적질이다.
3. 값을 생각이 없이 돈을 빌거나, 갚으려 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도적질이다. 이것은 심지어 개 교회가 교단으로부터 건축을 위한 돈을 빌고 갚지 않을 경우에도 해당된다.
4. 말라기 3:8~12에 의하면, 사람은 십일조(수입의 10분의 1)와 헌금(자의로 드리는 정해지지 않은 액수)을 내지 않음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도적질 할 수 있다. 이 장은 십일조에 대해 공부하는 장이 아니나 그것에 대한 몇 가지 사실들을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십일조는 율법 하에서 제정된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과 야곱도 십일조를 드렸기 때문이다(창 14:20, 28:22). 예수께서 그것을 인정하셨고(마 23:23), 바울도 십일조와 헌물에 대해 설명하였다(고전 9:7-4, 히 7:5-10). 심지어 목회자들도 십일조를 드린다는 것을 주목하라(느 10:38, 히 7:9). 많은 다른 성경구절들이 우리가 십일조를 드려야 한다고 가르친다(레 27:30, 민 18:21, 신 14:22, 잠 3:9, 눅 11:42).
5. 때때로 사람들은 “이 돈은 조직에 속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는 조직의 일원이기 때문에 이 돈은 내 것이야”라는 논리로 교회나 다른 조직에 속하는 돈과 물자들을 취한다. 어떤 사람은 교회 건물을 세로 얻기 위한 돈을 자신이 취하고 그 자신의 이름으로 다른 건물에 세를 얻었다. 그는 “이 돈은 하나님의 돈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처럼 돈을 쓸 권리가 있다”고 자신을 합리화했다. 이런 논리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나는 이 나라의 국민이기 때문에 정부의 재산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권리가 있고 또한 세금도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정말로 이러한 행동을 하려는 사람은 아마도 감옥에 가게 되고 말 것이다. 심지어 예수께서도 세금을 내시고 다른 이들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셨다(마 17:24-27, 22:15-22). 이러한 비틀어진 논리들은 우리에게 십일조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할 것이나, 이미 살펴본 대로 예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들이 자주 잊어버리거나 무시하는 것은 교회 안에는 따라야할 권위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여러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는 일정액의 돈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맡겨지거나 기부되었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만일 어떤 이든지 그 돈(혹은 재산)을 관리인의 허락없이 가져간다면, 그는 그 관리인으로부터 도적질을 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로는 하나님의 돈을 도적질하는 것이다. 만일 그가 인정받지 못하는 자기 식의 방법으로 그 돈을 사용한다면, 그는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심지어는 인간의 법도 교회나 조직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고, 그러한 행위들을 도둑질로 규정하고 있다.

위에 말한 것들은 직접적이고 공공연한 도적질에 대한 예들이다. 어떤 이유이든 간에 위의 사람들은 권리나 주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것을 취하였다.

사기 단순한 도적질에 비하여, 타인의 돈이나 재산을 취하는 다른 부정직한 방법들이 있다. 신·구약 모두는 우리에게 ‘속여 취하지’ 말라고 가르친다(레 9:13, 막 10:19, 고전 6:8, 살전 4:6). 사기를 친다는 것은 속이고 기만함으로 타인의 재산을 가로채는 행위이다. 다시 한 번 사기에 대한 몇몇

실제적인 예들을 들고자 한다.

1. **상인들** : 상인들은 부정직한 저울이나 거스름돈을 덜 주거나 고의로써 고객이 지불하는 것보다 덜 주는 방법으로 사기를 칠 수 있다. 또한 그들은 하자가 있는 물건을 소비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사기를 칠 수 있다.

2. **판매원** : 판매원은 물건에 대해 과장을 하거나 잘못된 인상을 심어 줌으로써 잘못을 범할 수가 있다. 만약 당신이 판매원이라면, 당신이 아무 거짓말 없이 좋은 평을 내릴 수 있는 물건을 다루어야 한다. 물건을 팔 때는, 고객의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하고 고객이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을 감추려 해서는 안된다.

3. **돈** : 만약 특정한 목적을 위해 받은 돈을 다른 일에 사용한다면 그것 또한 사기이다. 예를 들자면, 당신이 출장시 일등석의 기차간을 위해 돈을 받았다면, 그것을 위해 그 돈을 사용해야 한다. 만약 그 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혹은 더 싼 표를 산 후에 잔돈을 자신이 가져 버린다면 그는 사기를 치는 것이다. 만약 교회 건축을 위해서 특정액을 받은 목회자가 그것보다 적은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짓는다면, 이 역시 사기를 치는 행위이다. 그는 그 돈을 기부한 사람의 허락 없이는 다른 용도에 그 돈을 사용할 수 없다.

4. **영수증** : 만약 어떤 물건을 위해서 15,000원을 받았는데, 그 물건의 값이 10,000밖에 되지 않는다면 그 돈을 받은 사람은 잔액을 돌려주어야 한다. 만일 15,000에 해당하는 영수증을 끊는다면 그는 거짓말함과 동시에 (종이로) 사취하는 것이다.

5. **문서들** : 만약 거짓된 문서 등을 위조한다면(예를 들자면, 가짜 졸업장) 그는 그것을 읽는 사람에게 사기를 치는 것이다. 만약 그것을 접수하는 사람이 그것이 거짓인줄 알면서 받아들인다면 그는 그 문서를 접수하는 조적을 속이는 것이다.

6. **정보** : 만약 어떤 사람이 무엇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요구받았을

때, 중요하고 적절한 정보를 생략한다면, 그는 최소한 사기를 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부분적인 사실만을 말하는 것은 듣는 이로 하여금 오해를 사게 할 수 있다.

7. **노동자** : 만일 특정액을 받고서 일하기로 한다면, 그는 자신의 시간을 그 돈을 받고 파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이 고용주에게 약속한 시간과 성과를 정직히 채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만일 그가 일찍 일을 끝내거나 고용주가 없다고 집으로 가 버린다면 그는 사취하는 것이다. 물론, 근무 중에는 더 나은 근무 효과를 위해 쉬어야 할 시간이 있다. 또한 사무실을 예로 들자면 할 일이 별로 없을 때도 있다. 만약 당신이 한가하다면, 약간의 개인적인 일을 하는 것도 용인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일로 바쁘고 상사가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한다면, 우리는 그의 시간을 속여 빼앗는 것이고 또한 잘못된 인상을 그에게 심어주는 것이다.

아무도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을 지켜 일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도록 하자. 시간을 잘 지키도록 노력하라. 만약 당신이 근무 중에 개인적인 용무로 자리를 비워야 할 때는 허락을 받도록 하라. 만약 이유없이 늦게 된다면, 일을 더 해서 그 시간을 채우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이고 또한 그를 증거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므로 우리를 감독하는 사람은 그들이 자리에 있거나 없거나 우리를 신뢰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속이는 것을, 아무도 보지 않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모두 아신다.

여기서 목회자들을 위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십일조를 받아들인다. 그래서 그들은 성도들에 대한 책임이 있다.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일들 중의 하나는—신자와 불신자에 관계없이—방문하는 것이다. 특히 그는 병든 사람들과 교회 결석을 한 사람, 방문객들과 새신자들을

접해야 한다.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다. 그러나 어떤 목회자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만큼의 자기 훈련도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게으름이다. 만약 당신이 목회자이고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적다면 이웃 마을에 가서 전도를 하라. 복음을 전할 기회는 항상 있는 법이다. 항상 해야 할 일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목회자들에게 하고픈 질문이 있다. “예배시간을 빼고, 일 주일에 40시간 정도는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가?”

아무에게도 빚지지 않음 롬 13:8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는 아무것도 빌 수 없고 또 할부로 아무것도 구입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아니다. 만약 당신이 열 달을 기한으로 돈을 빌다면 당신은 그 열 달이 지나기 전에는 법적으로 빚을 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성경구절은 당신이 약속한 기한에 돈을 갚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당신이 기한 내에 돈을 갚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대한 책임이 있다. 당신은 빌 수 있으나 꼭 갚아야 한다. 빈 후에 돌려주지 않는 것은 도적질이다. 갚을 생각없이 비는 것은 사기이다.

만약 당신이 분명히 갚을 생각으로 돈을 빌었는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겨 돈을 갚지 못하게 된다면, 당신은 채권자에게 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기한을 연장시켜 주도록 요청해야 한다. 만일 기한 연장을 하지 않고 갚기로 한 약속을 깬다면, 당신은 그에게 빚지게 되는 것이고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된다.

때때로 어떤 이들이 “믿음으로” 어떤 일을 시작했을 때 문제가 일어나곤 한다. 어떤 목사는 교회를 지을 자금이 없었는데, 건축 자재들을 “믿음으로” 주문하고는 건축을 시작했다. 나중에 그는 채무를 갚을 수가 없었다. 그 결과는 그 목사와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오명을 남기게 된 것이었다. 그 목사는 그의 행동으로 인해 불신자들이 교회를 비웃고 멸시하게 한 것이

다. 이러한 행동은 믿음이 아니고 어리석음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믿음으로서 건축을 하기를 원한다면, 믿음으로서 돈을 저축하고 그 돈이 모이는 데로 건축을 시작하라. 할 수 있는 만큼을 하고 다음 단계를 믿음으로서 기다리라. 왜 사용하기 전에 먼저 돈을 공급받는다든 믿음 가지지 않는가? 예수께서는 “너희 중에 누가 땅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다(눅 14:28).

또한 어떤 이가 교회 안의 형제에게서 돈을 빌었을 때 문제가 종종 일어난다. 교회에서 필요한 돈이라고 하며, 어떤 집사가 다른 성도에게서 돈을 빌었다. 사실은 그 돈은 그가 개인적으로 필요한 돈이었고 자신은 그것을 되갚을 능력이 없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그는 자신의 직함에 대한 성경적인 자격을 상실했다. 왜냐하면 그는 거짓말을 했고 자신이 갚을 수 없는 돈을 빌었으며, 다른 이가 교회에 대한 확신을 잃게 했기 때문이다.

결론은, 당신이 돈을 빌고자 할 때는 그것을 제때에 갚겠다는 의지와 갚을 방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신이 돈을 빌었을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것을 면제해 주지 않는 이상 그 돈을 갚아야 한다. 그렇지 못하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다.

토색하는 것(착취) 착취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고전 6:10). 사실상, 그리스도인들은 자칭 신자라 하나 토색하는 자들과는 교제하지 않도록 되어있다(고전 5:11). 토색한다는 것은 폭력이나 협박 혹은 권력의 불법행사로서 타인의 돈이나 이권을 강탈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경에 따르면 토색은 죄이다. 우리는 토색을 돈의 관점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꼭 돈이 관련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착취의 다른 형태는 공갈(폭로하겠다고 위협하는 것)하는 것이다. 여기에 착취의 몇몇 예들이 있다.

1. 갑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돈을 훔쳤는데, 갑의 잘 아는 사람인

을이 갑의 회사에 취직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갑에게 요청했다. 그런데 만약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시에는, 갑의 과거를 공개함으로써 갑이 해고되게 하겠다고 협박을 한 경우에, 돈이 관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을은 토색의 죄가 있는 것이다.

2. 갑은 상사가 없을 때는 항상 집으로 일찍 퇴근하곤 했다. 한 번은 을이 갑에게 사무실의 우표 몇 장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거절당했다. 그때 을은 갑이 일찍 퇴근하는 사실을 상사에게 알려줬다고 위협했을 때, 갑은 횡령의 잘못이 있는 것이고 을을 토색의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이다.
3. 한 목사가 교회의 목사관에 살고 있다. 그는 사임을 요구받아 왔는데, 그는 교회가 그에게 많은 액수의 돈을 주지 않으면 그곳을 떠나지 않겠다고 버틴다. 물론 그가 계속 머무르는 것은 교회의 문제를 일으킬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내몰 것이다. 그 목사가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가 무력을 사용한 것은 분명하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토색이다. 이런 행위를 하는 목회자들은(다른 이들도 마찬가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다. 성경은 그런 이들과는 교제하지 말라고 하며 그런 이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고 가르친다.

고리대금업 이 장에서 우리가 재정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으므로, 이 장은 고리대금업에 대한 설명을 하기에 좋은 장소인 것 같다. 구약의 여러 성경구절들이 고리대금행위를 정죄한다(시 15:5, 겔 18:8-17, 22:12). 이것은 터무니없고 비양심적이며 과도한 이자를 의미한다.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인은 가난한 사람이나 형제로부터 이식(이자)를 취할 수 없었다(출 22:25, 신 23:19-20).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다른 유대인으로부터는 어떤 종류의 이자라도 받아서는 안된다는 뜻으로 해석해 왔다. 잠언 28:8은 불공정하거나 과도한 이자는 하나님께서 특히 미워하신다는 것을 말해준

다. 신약성경은 이 주제에 대한 특별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지는 않다. 예수께서는 주인의 돈을 이자를 위해 빌려주지 않은 게으른 종이 책망 받는 예화를 말씀하셨다.

뇌물과 선물 이 주제는 성실함과 정직함, 특히 지도자들의 정직함을 다루는 이 장에서 매우 중요하다. 성경은 뇌물을 취하는 것의 죄악을 가르친다. 그것은 선물을 받음으로서 정의를 굽게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한다. 항상 뇌물이 돈만을 의미하지는 않고 어떤 이권에 대하여 주어지는 선물이나 다른 반대급부도 뇌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라. 출 23:8은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라고 말한다. 뇌물은 현명한 자의 눈을 멀게 하고 정직한 자의 말을 굽게 한다. 신명기 16:18~19절은 같은 말을 반복하고 또한 “재판장과 유사는…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굽게 판단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고 가르친다. 악한 사람은 자신의 판결을 굽게 하는 뇌물을 받는다(잠 17:23). 그리고 행악하는 자의 손은 뇌물로 가득 차 있다(시 26:10).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케 하느니라”(전 7:7).

물론, 선물을 주어야 할 때도 있고 또 받아야 할 때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한다. 이러한 성경말씀에 따르면, 선물을 주는 사람에게 당신을 얽매이게 하는 선물은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선물이 당신의 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부당한 이권을 선물을 준 사람에게 주게 만든다면, 당신은 뇌물을 받는 잘못을 범한 것이다. 만약 당신이 당연히 해야 할 직무 때문에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선물을 요구한다면, 당신이 그에게 베푸는 혜택이 합법적인 것이라 해도 당신은 토색하는 것이다. 만약 정의를 굽게 하기 위해 뇌물이 주어진다면,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은 하나님 목적에서 범죄 하게 된다. 사무엘의 아들들은 뇌물을 받음으로서 범죄한 예가 된다(삼상 8:3).

이사야 33:15~16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의 유형을 이야기한다.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이러한 사람은 속이는 것과 부당한 이득을 혐오한다. 그는 토색하지 않으며, 가난한 사람을 압제하지 않고 사람들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도 않는다. 그는 뇌물을 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누구든 그것을 주고자 할 때는 받기를 거부한다. 이것이 인도하는 위치에 처한 사람들이 취해야 할 좋은 실례이다.

여기서, 우리는 목회자들이 성도를 위해 기도하거나 그에게 침례를 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자 한다. 이것은 뇌물이 아닐지는 모르나, 받아서는 안될 선물이다. 복음과 그 혜택은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다. 아무도 축복과 치료, 침례와 구원에 가격을 매기려해서는 안될 것이다. 바울은 성령의 침례를 돈을 주고 사려한 시몬을 꾸짖었다(행 8:19-20). 선지자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의 치료를 받고 제공하려 한 선물을 거절했다. 엘리사의 하인 게하시가 몰래 나아만에게서 선물을 받았을 때에, 그는 문둥병에 걸리고 말았다. 엘리사는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 때냐”라고 물으며 그를 꾸짖었다(왕하 5:26-27). 만약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감사의 헌금을 드리고자 한다면, 교회로 드리게 하면 된다.

일반적인 주의로서, 많은 경우에 선물은 인도자를 엽매이게 할 수 있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선물을 받은 후에는 선물을 준 사람이 무엇인가를 요구하게 된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 선물은 양심을 멸망시키고 정의를 왜곡시키며 부당한 이권을 추구하게 하는 뇌물이 될 수 있다. 선물을 받을 때에 지혜롭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 상황에 따라, 당신은 선물을 거절하거나, 되돌려 주거나 최소한 그것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할 경우가 있을 것이다.

몇몇 어려운 상황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자. 당신이 직장에서 직원들을 고용하는 위치에 있는데, 잘 모르는 사람이 선물을 제공했다고 가정해 보자. 그는 그것으로 당신을 얼마에게 하거나 영향을 끼치기 위해 선물을 주려 하는지 모른다. 당신은 그들을 고용할 책임을 느끼게 될 지도 모른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당신의 행위에 아무런 잘못이 없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당신은 직업을 구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불공정한 것이다. 또한 당신은 그 직장에 더 잘 어울리는 사람을 외면하는 실수와, 당신 스스로 혹은 당신의 회사를 속이는 잘못을 범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다.

한 성도가 교회에서 잘못을 범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힌 경우를 생각해 보자. 성경적인 해결 방법은 그 성도가 다른 이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대신에 그가 목사에게 와서 케이크를 선물한다고 가정하자. 아무리 케이크가 훌륭하거나, 목사가 그를 향해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된다고 해도 그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에는 변화가 없다. 선물은 성경적인 책임과 해결책의 대안이 될 수가 없다.

다시 말하거니와, 뇌물은 항상 금전적인 것만은 아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어떤 회사의 신참 직원이고 모든 사람이 당신을 좋아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자. 그런데 동료 직원이 당신에게 부정직한 일, 예를 들자면 잘못된 서류를 접수하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그렇게 하겠는가? 아니다, 당신이 돈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당신은 직장의 안정이나 좋은 감정 혹은 앞으로 받게 될 이권을 위하여 부당한 호의를 베푸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것 또한 뇌물공여의 일종이고 부정직한 것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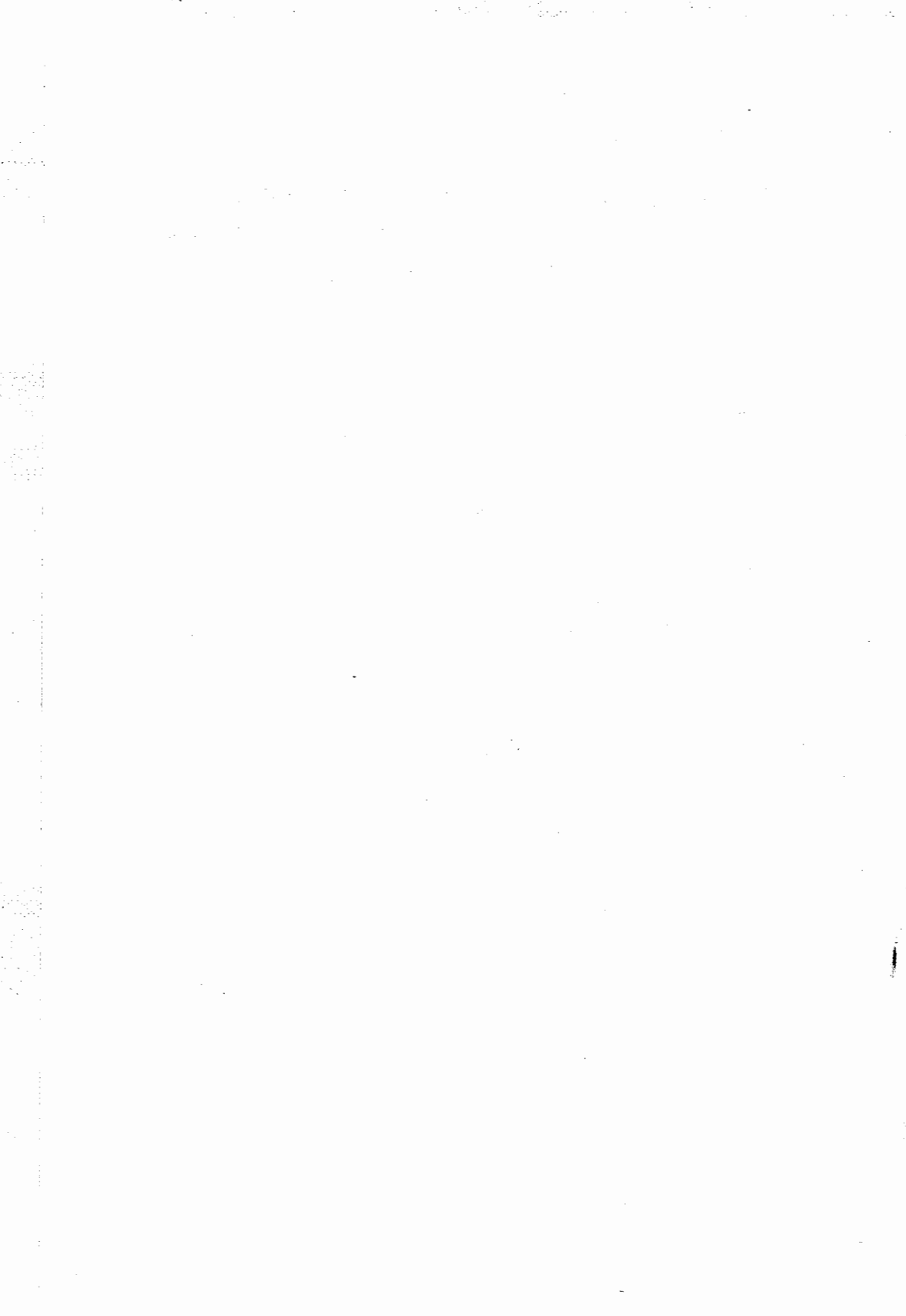
많은 사회들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또 다른 한 경우가 있다. 매우 자주, 특정 공무원과 상대하면서 일이 전혀 진행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들은 조사과정에서 당신을 통과시켜주지 않거나, 당신의 계획을 승인해주지 않거나, 당신이 돈을 주기 않는다면 당신의 영업을 정지시키기까지 한다. 이것도 뇌물일까? 당신은 그러한 돈을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없이 줄

수 있는가? 명백히 이것은 공무원 측의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잘못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이러한 관행을 말소시켜야 하고 상납행위도 근절해야 한다. 만약 당신이 공무원에게 특혜를 요구하거나 당신의 잘못을 덮어달라고 요구하며 선물을 준다면, 당신의 쪽에서 그것 또한 뇌물이 된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단지 그가 자신의 일을 잘 수행하기를 원하며 다른 사람에게처럼 당신에게 공정하게 하기를 원한다면, 잘못된 것이 없다. 당신은 그에게 아무런 불법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그가 자신의 업무를 충실히 하게 하기 위해서 여분의 금액을 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불행히도, 이러한 것은 많은 곳에서 관행이 되어 있다. 물론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돈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토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그 공무원에게 잘못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당신에게만 특혜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당신이 그의 요구들을 들어주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간단히 말해, 성경은 뇌물을 받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다. 우리는 선물이 우리를 얽매이게 하지 않을 때에만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다. 우리는 어떤 선물도 우리의 양심을 흐리게 하거나 판단을 굽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선물이나 특히, 뇌물을 가지고 타인을 얽어매려 해서는 안된다.

오늘날의 정직함과 성실함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온 세상이 타락한 것처럼 보였다(창 6:11). 타락은 행정부와, 정치계, 사업, 심지어는 종교계까지 편만해 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토색한다. 사업가들과 공무원들, 고용된 사람들, 법조인들, 모든 종류의 지도자들 심지어는 일반인들까지도 정직함에 관련된 유혹을 경험하고 있다. 오늘날 정직함은 빠른 속도로 자취를 감추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도 중시되어야 하고 또 지켜져야 한다.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는 ... 자는” 복이 있다

(시 15:4-5). 자신의 정직함을 어떤 대가에도 팔지 않는 사람은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인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마 16:26).



제 12 장

교회 안에서의 권위와 조직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다스리는 것과...”(고전 12:28)

성결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우리는 이제 교회의 조직과 권위라는 주제에 대해서 몇 가지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 이 장을 소개하기 위한 몇 가지의 질문들이 여기에 있다. 교회에서 권위의 범위는 무엇인가? 교회는 성결의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가? 교회는 성결의 기본적인 원칙들을 범하는 사람들과 교제를 끊도록 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가? 개개인의 사역자나 성도는 교회의 결정에 어느 정도까지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가?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자신들 위에 인간의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성도들 상호간의 관계에 대해서 성결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교회의 다스림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에 진정으로 권위와 조직을 세우셨다는 것을 확증함으로써 이 주제를 시작하고자 한다. 시작부터 우리는 교회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계획을 체험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부르심을 받은 신자들의 몸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바이다. 그것은 인간적인 조직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러

여러 교회들에 보냄을 받았었다(고후 8:16-24). 바울은 매 주일마다 연보를 하는 체계(system)를 세웠는데, 그래서 누군가 그 헌금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라고 편지로 권면하였다(고전 16:1-3).

사도요한도 또한 데메드리오라는 전도자(evangelist)를 위한 추천의 편지(letter of recommendation)를 보냈다. 같은 편지에서 그는 교회가 디오드레베를 복음의 사역자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경고를 보냈다(요삼 9:12). 예수님과 바울은 교회 안에서 논쟁을 진정시키고, 죄인을 판단하고, 필요하다면 절교(disfellowshipping) 내지 출교(excommunicating)하는 절차를 말씀하셨다(마 18:15~18, 고전 5:1~13).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거짓선지자들에게 대해 경고를 했다(행 20:28-30).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거짓 사도들을 시험하여 분별해 내도록 명령을 받았다(계 2:2).

이 모든 성경말씀들은 교회들 사이에서 밀접한 협력관계가 있었고 문제들을 조정하는 방법들이 있었다는 것을 밝히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거기에는 분명하게 규정된 권위의 질서(line of authority)가 있었다. 첫째로 지역교회(local church)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장로들(지교회의 목사들이나 부교역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지역교회의 업무를 도와주는 집사들이 있었다. 그 다음에 여러 교회의 그룹들이나 여러 지역들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감독들(overseers)이 있었는데, 그레테에 보내진 디도와 같은 경우이다. 여기서 보면 바울은 디도의 위에 있으며 그가 설립한 많은 교회들을 감독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의 특별한 사역은 이방인들을 복음화하도록 전도자들(missionary)을 지도하는 것이었으며 이와 같이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복음화하도록 지도하였다(갈 2:7-8).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주 대변인(major spokesman)이며 대표자(representative)였던 것 같다. 반면에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최고지도자(chief leader)였던 것 같다.

그러므로 개 교회와 각 사역자는 권위에 있어서 자기 위에 더 높은 누군가의 보호 아래 있었다. 심지어 베드로나 바울과 같은 최고 권위의 지도

자들도 서로 권면하였고 총회로서의 교회의 권위에 복종하였다. 이 두 지도자들은 사역의 보고를 하였고 예루살렘에 모인 사역자들의 모임에서 충고를 받아들였다. 이것은 교회행정이 개인적인 지위나 위치를 능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비록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지만 교회 행정(church government)을 대신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리더십의 권위(The authority of leadership) 성경은 교회 안에서 리더십의 권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계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히 13:17).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살전 5:12-13). 여기에서 이 말씀들이 개 교회(local churches)안에서와 마찬가지로 교회들 사이의 권위 구조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 보라. 또한 우리는 지도자들의 특성을 알아야 한다는 것도 주의해 보기 바란다. 우리는 권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하는 일 때문에 그들을 존경해야 한다.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존경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직분 때문에 존경하거나 두려워해야 한다. 권위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그를 존경하는 것이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롬 13:1, 2-7). 이 말씀은 사역자들과 성도들 사이에 뿐만 아니라 교회와 세상권세(civil matters)에도 적용된다. 물론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의 직분에서 해임하는 합법적인 방법들도 있으나 우리는 이런 문제들은 차후에 다룰 것이다. 여기에 권위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존경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한 다른 말씀이 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딤후 5:17).

교회 안에 리더십을 두는 목적은 “성도를 온전케하며 봉사의 일(the work of the ministry)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의 말씀으로 요약된다(엡 4:11,12). 사역자가 해야 할 일은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여 경계하며 권하는”일이다(딤후 4:2).

권위의 목소리에 주의를 하지 않는 성도들이나 목회자들까지도 이들은 위험한 위치에 있게 된다. 유다서 8절에서 유다는 “권위(dominion)를 업신 여기며 영광(dignities)을 훼방하는” 사람들은 배교자들(apostates)이라고 말하고 있다. 베드로도 또한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 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멸지 않고 영광있는 자를 훼방하거니와...그러나 이 사람들은...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벧후 2:10-13). 말세의 징조들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가 가정에서, 사회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도전을 받아 실추되는 것이다(딤후 3:2, 8).

요약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다스림을 두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전 12:28). 하나님은 그의 교회에 5종의 사역을 주셨다(엡 4:11). 교회 안에는 예언과 섬김(minister)과 권위(exhort)와 그리고 ‘다스림(rule)’이라는 여러 가지의 다른 ‘직분’들이 있다. 이 다스림 곧 행정은 개교회(local church) 안에서 존재할 뿐만 아니라 개교회 차원을 넘어서도 존재한다. 우리는 신약교회가 많은 목적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조직이 있었다는 것을 보았다. 교회는 지역교회의 회중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사역자들을 보냈고, 새로운 교회들을 설립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을 보냈으며, 사역자들을 보내어서 지역교회의 성도들을(local congregations) 조사하고 교리적인 논쟁들을 해결해 주며 헌금을 모

금하도록 하였다. 교회는 또한 인정된 전도자들을 위한 추천의 편지를 보내고, 교회 안의 죄인들을 출교하고, 지역교회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징죄하였다.

우리가 본대로 교회는 때때로 일어나는 새로운 문제들에 대한 결정을 하는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 신약교회는 사도행전 15장에서 총회를 통하여 이방인 신자들(Gentile believers)을 위한 성결의 기준을 확립하였다. 교회는 역시 사도들과 선교사들과 사역자들 및 집사들을 위한 자격들을 제시하고 이 직분들에 합당한 책임자들을 뽑았다. 예수님께서 이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명백하게 언급을 하시지는 않았다는 것을 주의하라. 어떤 한 사람이 이 새로운 문제들에 대한 결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서의 교회가 결정을 만들고 이것들을 선포하였다. 우리시대에도 교회는 여전히 새로운 성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권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대의 상황들을 고려하여 성결을 더 명확하게 정의를 내릴 권위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교회는 흡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그 권위를 유효하게 실행해 오고 있다.

교회내의 심판(Judgement)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교회는 개개인을 심판할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이나 그의 행동, 그리고 그의 신념들에 대해서 판단하지는 않는다(마 7:1, 롬 14:10, 약 4:12).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예언조차도 판단하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를 시험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전 14:29, 요일 4:1). 전 교회적으로 연관된 문제에 있어서는 예수님과 바울은 성도들 사이의 논쟁에 대하여 심판을 위한 절차를 말씀하셨다. 요약해서 말하면 한 개인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심판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만 교회는 성도들 사이의 문제와 교회 안의 회개하지 않은 죄를 심판할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마태복음 18:15-18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의 절차를 살펴보자.

1. 만약 두 성도들이 그들 사이에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당사자가 개인적으로 상대방에게 가서 그것을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물론 어떤 형제가 자기에 대해서 적대시하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한 성도가 알았다면 그는 모든 것을 그만두고 그에게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후에야 그는 제단에 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다(마 5:23-24).
2. 만약 문제 해결을 위한 시도가 잘되지 않았을 때, 그 괴로움을 당하는 당사자는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인들을 그와 함께 데리고 가서 그 상대방과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3. 만약에 범죄한 사람이 여전히 문제를 바르게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때에는 그 문제를 교회 앞에 가지고 와야 한다. 이것은 이 문제가 이제는 교회의 지도자들 곧 목사와 제직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에 의해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 문제를 심판할 권위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4. 만약 범죄한 그 사람이 교회의 판결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는 출교를 당하고 이방인처럼 간주된다. 위의 구절 중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교회의 결정과 지도력을 존중하신다는 것이다. 만약 그들이 정직하고 공평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결정을 자신의 결정으로 받아들이시고 그것을 시행하실 것이다. 이것은 교인들이 교회의 결정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교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는 이방인으로 간주될 것이다.

송사(訟事) 이상의 절차들은 교회 내에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올바른 방법이다. 성도들은 세상 법 아래서 다른 성도들을 고소할 수 없다(고전 6:1-8). 그 이유는 성도들이 천사들을 판단할 것이며 천년왕국에서 심판하도록 훈련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교회 내의 자신들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면 어떻게 천사들과 오는 세상을 심판할 수 있겠

는가? 그뿐만 아니라 교회 내의 문제로 세상 법에 의존하는 것은 불신자들 앞에서 나쁜 본보기를 남기게 된다. 세상의 눈앞에 교회분쟁에 대한 모습을 제시하는 것보다 차라리 속는 것이 더 낫다.

이 말씀은 세상에서 잘못을 범한 사람에 대한 송사를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한 이유들은 그러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하고 보복하지 말라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가지고 있다(마 5:38-42). 예를 든다면 자동차 사고상의 손해로 불신자를 송사하는 것이나 혹은 종교적 자유와 같은 합법적인 권리를 변호하기 위하여 법정에 가는 것들은 괜찮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교회의 심판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는 출교를 당하고 이방인으로 간주될 것이다. 이 시점에서는 그는 더 이상 교회 안의 성도가 아니라 세상 죄인인 것이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상 법정에 가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교회의 직원이 교회의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넣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두세 명의 교회의 대표자들이 그에게로 가서 그를 만나야 할 것이다. 만약 그가 그 서류들을 사실대로 바꾸기를 거절한다면 그 교회의 목사와 재직들은 그 문제를 심판해야 한다. 만약 그가 여전히 거절한다면 그는 공식적으로 출교를 당하게 된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그 사람에게 그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 교회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며 또한 세상의 눈에서 그를 교회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함이다. 이후에 교회는 그 사람을 이방인으로서 다루게 되기 때문에 그를 세상 법정에 데리고 갈 수가 있다.

출교(Disfellowshipping) 우리는 방금 출교에 대한 한가지 이유를 언급하였는데, 그것은 교회의 심판에 복종하기를 거절하는 것이었다. 고린도 전서 5:1~13에서 바울은 다른 정당한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다(이것들은 8

장에서 더 자세히 다루었다).

바울이 가르침을 준 고린도 교회의 특별한 문제는 교회 내에 있는 어떤 사람이 근친상간의 죄를 범한 것에 대한 것이었다. 그 교회는 영적인 은사들로 인해서 매우 교만해졌었고 그래서 이 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다. 바울은 그 죄를 심판하여 그 범죄자를 물리치지 않은 것에 대해 그들을 강하게 책망하였다.

이러한 경우에 올바른 절차는 그 죄인을 출교하는 것이다. 그는 세상 곧 사탄의 왕국에 보내어지게 된다. 이것을 공개적으로 함으로써, 그 사람은 충격을 받아 회개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 또한 그는 사탄의 손에서 어느 정도 고통을 받아 회개하고 교회에 되돌아오기를 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출교를 당한 결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희망이 있게 된다. 그러나 그 사람의 죄가 덮여지고 무시된다면 그는 결코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바울은 이런 류의 심판을 형제라고 일컬음을 받으면서 음행하는 자나 탐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 그리고 술취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에게 확대시키고 있다. 바울은 성도들이 이런 자들과는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이 교회의 규율이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잘 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한다. 교회가 어떤 사람을 죄 때문에 출교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가서 그와 함께 교제한다. 우리는 나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와 함께 시내를 돌아다니고 그리고 그를 위로한다. 이럴 때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그 사람이 더욱 거역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돕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 사람 안에 있는 반역적이고 부정한 영과 절교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영은 쉽게 우리에게 그와 같이 되도록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한번은, 어떤 사역자가 자기가 목회하고 있는 마을에서 술에 취하게 된

일과 여러 명의 소녀들과 부도덕한 교제에 빠진 일로 출교를 당하였다. 몇 개월 후, 그는 다른 지역으로 가서 설교하기 시작하였고 부흥을 가지게 되었다. 그는 회개에 대한 어떤 증거도 보여주지 않았다. 그를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글쎄요. 하여튼 그분은 목사님입니다”라고 하면서 그를 도우러 갔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 어떻게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는 관점에 의해서 출교를 당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과 교제할 수 있는가? 어떻게 사역자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의 사역을 도울 수가 있는가?

근신(謹身) 어떤 사람을 근신하게 하는 것과 출교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지른 후 그러나 회개를 한다면, 그는 교회 안에서 직분을 위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의 직분은 일시적으로 혹은 영구히 빼앗기게 된다. 이와 비슷하게 교회 안에서 두드러지게 쓰임을 받고 있는 어떤 사람도 얼마동안 그의 직분을 부분적으로 혹은 전부를 빼앗기게 된다. 이것을 근신(silencing)이라고 부른다. 성경은 지도자들이 가져야 할 자격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지도자가 그의 자격들을 잃어버리면 당연히 그의 직분에서 물러나든가 아니면 성경적인 자격들을 다시 얻을 때까지 근신해야 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출교는 죄를 범한 어떤 사람이 그 죄를 인정하거나 회개하기를 거절하고, 교회의 심판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해당된다. 이런 사람은 이방인으로 간주된다. 개교회의 사역자도 만약 그가 죄를 범하고 회개할 때는 일정 기간 근신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러한 종류의 징벌은 그가 일정한 기간을 통해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그가 자신의 선한 이름을 잃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교회의 이름을 더럽히거나, 그가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 사용된다면 다른 이들에게 거치는 반석이 될 수도 있다. 만일 근신을 받은 사람이 자신의 죄를 정말로 뉘우친다면 그는

다른 교회나 모임으로 자신의 적을 옮기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별을 달갑게 여기고 자신이 속한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거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히 12:11). 징계의 과정은 그 사람이 회개했는가 안했는가를 보여주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한 그 사람이 자신이 신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인내와 겸손함을 가지고 있는가도 함께 보이게 된다. 만약 그가 인내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성경이 이야기 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참을성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만일 목회자가, 자신의 지위를 잃을 만큼 큰 죄를 범하지 않는다면, 그는 근신의 징계를 받거나 그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지도자에 의해서 유예기간을 받게 될 수 있다. 그가 그 기간 동안 신실한 믿음을 지킨다면, 그 목회자는 완전히 복권되게 된다.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로부터 거두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교회 안의 지도력은 지도자의 자질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권위를 행사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것일 뿐이고 우리는 그들을 경멸해서는 안된다. 많은 경우에 교회의 장로들이나 교단의 지도자들은 그들이 징계한 이들이 떠드는 이야기와 행동들에 의해서 상처를 받는다. 그들은 죄를 인정하거나 용납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그들의 친한 친구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목회자는 자신의 목회를 영원히 잃을 수도 있다. 예를 들자면, 그가 한 아내의 남편이 아니거나 혹은 간음과 같은 죄를 계속 범함으로서 그가 속한 사회에서 좋은 평판을 잃을 경우이다(딤후 3:1-7). 그는 아직도 회개하고 성도로서 받아들여 질 수는 있다. 그러나 그는 단지 개교회에서 일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다. 그들은 다른 교단으로 교적을 옮김으로서 자신의 목회를 다시 세우려 하지 않고, 자신의 개교회에서 신실하고 충성된 일군이 되었다. 개인이 어떻게 느끼는가와는 상관없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 자신의 의지를 내세우거나 불순종하거나 죄를 짓지 않도록 하자. 만약 우리가 잘못을 범한다면, 교회의 목사와 지도자들의 벌을 달게 받도록 하자. 회개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자.

공개적 책망 공개적으로 누구를 책망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가? 일반적으로, 가르칠 때는 전체적으로 가르치고 개인의 문제를 다룰 때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 가장 좋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지명해서 책망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덕이 못된다. 그러나, 죄를 지은 사람이 공개적으로 꾸짖음을 받아서 다른 이들이 배우게 해야 할 경우도 있다.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딤후 5:20). 이것은 잘못을 범하거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을 항상 공개적으로 꾸짖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갈라디아서 6:1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말한다. 우리는 또한 목회자나 혹은 누구든지 사적으로 화를 내거나 원망하거나 하는 것이 적합치 않다는 것을 배웠다. 공개적인 책망은 공개적으로 죄를 짓고 또 반항적인 이들을 위한 것이다. 만일 성도가 과문되거나 회개하지 않고 과문되기 직전의 상황까지 간다면 공개적인 책망을 하는 것이 적절한 일일 것이다. 만약 어떤 이가 교회를 갈라지게 한다거나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다면, 공개적인 꾸짖음은 적절한 것이다. 공개적인 책망은 죄를 지은 성도가 회개했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다. 필요시에 그는 근신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목회자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숙고하지 않았거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지 못했다면 공개적인 책망을 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종류의 사역은 꼭 필요한 것이며 또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아주 힘든 일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반항적인 경우가 많으며 또 돌이키지

않을 경우가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가족적인 연대와 개인적인 감정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책망과 견책은 디모데 후서 4장 2절을 보면, 목회의 일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요 16:8을 보라. 하나님의 성령이 세상의 죄를 제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견책”은 시험하다, 검사하다, 확신하다, 따지다, 노출시키다 그리고 견책된 사람을 부끄럽게 하다라는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뜻들이 나타내는 것처럼, 견책은 때때로는 공개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이루어진다. 죄를 공개적이거나 개인적으로 책망하는 것 말고도, 교회 예배에 혼란을 부를 이들을 책망해야 할 필요도 있다. 이것은 예배의 순서를 바꿈으로 해결될 수도 있다. 하지만 때때로 질서가 없는 사람은 예배 인도의 위치에서 빠져야 할 경우도 있다. 목회자로서의 감독은 이러한 것들을 정리해서 예배가 정숙하고 질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할 권리가 있다(고전 14:33,40).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경 말씀을 따라서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확실히 해야 한다. 예를 들자면, 한 예배에서는 세 가지 이상의 방언과 통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인도자는 가르침이 잘 지켜지는가를 살펴야 한다(고전 14:27-29).

책망은 교회의 심판이나 출교와 긴밀한 연관이 있으며 또 그것들의 일부가 되기도 한다. 그 목적은 교회를 죄와 반항으로부터 깨끗케 하고 모든 믿는 자들이 배우게 하기 위함이다.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대상 16:22). 이것은 권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성경구절이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준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존경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앞에서 이야기 한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위를 존중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의 직위를 이용해 뜻을 이루셨다. 하나님은 이방의 왕 키로스를 세우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셨다(사 44:28-45:3), 그리고 그분은 이집트의 왕 느브

를 세우셔서 자신의 백성에게 말씀하셨다(대하 35:20~24). 하나님께서는 예언의 영을 타락한 왕 사울에게 보내셨다(삼상 19:23~24). 특히 하나님께서는 가야바가 당시 가지고 있던 대 제사장의 직분 때문에 그로 예언의 말을 하게 하셨다. 가야바는 사실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하였던 것이지 자신이 하고 있는 말을 이해하고 있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말씀하셨다(요 11:49~52).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직위 때문에 이러한 악한 자들을 사용하셨다면, 얼마나 더—우리가 그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오해할지라도—신실하고 정직한 그분의 사역자들을 사용하실 것인가?

둘째로, 이 성경구절은 하나님께서 직위를 옮기시기 전에는 결코 개인이 지도자에 대해서 행동을 취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하나님이 부르신 지도자를 몰아내기 위해 계획하거나 반항하는 것은 성경적인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형과 누나인 아론과 미리암의 불평, 고라의 반역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모세의 권위를 세우셨다. 심지어 지도자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범할 지라도, 그 권위 아래에 있는 개인이 대항한다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일이다. 사울이 타락하고 사무엘이 다윗을 다음 왕으로 세웠을 때에도 다윗은 사울을 대적하지 않았다. 시기로 가득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했다. 그러나 다윗은—마치 하나님의 뜻처럼 보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사울을 해칠 수 있는 기회에 그를 살려 보냈다. 사울이 왕인 이상에는, 다윗은 그의 직위와 기름부음을 받았다는 사실은 존중했다. 당신이 아무리 자신을 합리화하려 해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에 세우신 권위를 비난하거나 대항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아무튼, 어떤 지도자들은 이 성경구절은 자신의 독재를 합리화하기 위한 구실로 사용한다. 그들은 자신들 또한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 모든 이들은 권위에 순복해야 한다. 초대 교회가 바로 그러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순복하라”(롬 13:1). 그러한 관점에서

왕상 2:13~27의 말씀을 읽어 보라. 솔로몬은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았다. 그의 이복형인 아도니아는 자신이 왕이 되려는 계획을 세웠으나 결국 솔로몬이 기름부음을 받았다. 아도니아는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압 장군과 더불어 자신의 계획을 계속 추진했다. 특히, 그는 다윗의 첩을 자신의 첩으로 삼고자 했다. 그 당시의 관습은 왕이 죽은 후 첩은 그냥 과부로 지내든지 아니면 후계자의 첩이 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아도니아는 사람들의 눈에 다윗 왕의 후계자로 보이고 싶어했던 것이다. 솔로몬은 그것을 알아차리고 아도니아와 요압을 처형했다. 그는 또한 아비아달의 제사장직을 취하였으나 그를 죽이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그가 이전에 하나님께 제사하고 다윗 왕을 도왔었기 때문이다. 솔로몬은 그와 그의 직위를 존중했으나 그의 직위는 해제했다. 그는 존경심과 함께 심판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비아달이 자신의 반역으로 인해서 제사장의 자격을 잃었고, 그에 따라 솔로몬이 아비아달의 제사장직을 해제할 권위가 주어 졌다는 것이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택하신 지도자였고, 아비아달을 심판할 권위가 있었다.

어떤 이들은 목회자가 근신이나, 파문이나, 혹은 다른 심판을 받는다면, 교회는 앞의 구절들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기름 부으심을 훼방하는 것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권위를 가진 이들은 심판할 권리를 가진 것이 아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을 범한 사람이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서 자격을 상실하는 것일 뿐이다. 사실상,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특정한 죄를 용인하는 것 때문에 그들을 책망했다. 그는 '너희를 판단할 사람이 없느냐'고 물었다. 만일 없다면 어떻게 후에 세상을 판단할 것이냐고 물었다(고전 5:1-13, 6:1-5).

어떤 사람이 교회내의 직위로 기름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그 직위를 잃

게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어떠한 개인도 직위를 빼앗으려고 시도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사실이나,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그것을 행할 권위를 허락하셨다. 그렇지 않으면 왜 하나님께서 목사와 집사의 자격에 대한 기준을 주셨겠는가? 하나님 스스로 교회 안에 권위를 세우셨다(고전 12:28). 그리고 지도자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롬 12:8). 만일 그 권위가 전혀 무기력하고 지도력이 발휘될 수 없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겠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과 인도하심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믿는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분의 뜻과 시간을 특정한 상황가운데서 보이셨다고 믿는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에, 지도자가 죄를 범하고 성경에 언급된 자격들을 잃는다면, 그의 위에 있는 권위자가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 언급하셨다. 교회의 성도들은 권위에 대항해서는 안되나, 그 위에 있는 권위에 그것을 말해야 하고, 위의 권위에 있는 사람은 그 사건을 판단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라는 말은 목회자가 아무런 제한없이 독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다. 그 말 씀은 아비아달이 반역으로 자신의 자격을 상실했을 때, 그를 지켜주지 못했다. 또한 에스라와 느헤미아가 부적격한 제사장들을 몰아낼 때도 마찬가지였다(에스라 2:61-63, 느헤미아 7:63-65).

지도자의 실수 만일 우리의 목사나 지도자가 잘못을 범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 그것이 방법이나 프로그램, 혹은 특정한 가르침에 관한 것이라면, 우리는 겸손하게 순종해야 한다. 우리는 각기 다른 의견과 확신을 가질 수 있으나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위해야 한다. 우리는 결코 비판하거나 불평, 분쟁을 조장해서는 안된다(3,4 장 참고). 만일 우리가 그러한 방법이나 프로그램을 바꾸기를 원한다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려야 한다. 어떤 때는 적절한 태도로서 자신의 의견을 지도자에게 건의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만일 어떤 문제에 있어서 깊이 있게 참여하고 있지 않다면 최소한 방해가 되는 일을

하지 말라.

만약 지도자가 비도덕적으로 행동하거나 죄 가운데서 살거나 거짓된 교리를 전한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지도자 위에 있는 사람에게 보고해서 그들이 문제를 처리하게 해야 한다. 앞에서 권위를 순복하는 것의 중요성을 설명했지만 지도력의 문제에 대하여 두 가지를 분명히 하고자 한다. 먼저, 지도자들은 올바른 태도와 적절한 권위를 통해서 교체될 수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아무도 지도자의 잘못된 교리나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는 실수를 따라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도자가 그리스도를 따를 때 따라야만 그들을 따른다(고전 11:1, 갈 1:8 참고).

독립적 태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권위를 허락하셨는가를 보았다. 심지어 천국열쇠를 가졌던 베드로조차도 교회의 권위에 순복했다. 이것은 독립적으로 나가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그렇다면, 누가 당신을 살피는가? 어떤 이들은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만을 받고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사람은 필요치 않아”라고 이야기한다. 이것은 진리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당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디모테와 디도에게 보내진 편지에 의하면, 설교자의 특정한 자격요건들이 있다. 예를 들자면, 자신의 가정을 돌아볼 수 없는 이는 목회자가 되거나 목회자의 자리를 유지할 수 없었다(딤후 3:4-5). 이러한 자격기준을 실행할 수 있는 권위는 꼭 필요하다.

타인과 협력해서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은 주의해서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 남들과는 일할 수 없는가? 왜 자신들의 생각만이 최고라고 생각하는가? 왜 항상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하는가? 왜 독립적으로 되고자 하는가?

보통, 온순한 마음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많은 목사들이

자신의 성도들에게 권위에 순종하라고 강조하지만 정작 자신들은 위의 권위에 순종하지 못한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심일조를 요구하지만, 그들은 누구에게 심일조를 내는가? 그들은 종종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려 하지만, 도대체 그들은 누구에게 조언과 지도를 받는가?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교회내의 권위를 세우셨다.

이 교회 저 교회, 심지어는 이 교단 저 교단을 옮겨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공통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지도자를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혹은 교회내의 기준, 판단, 책망을 견디지 못하는 이들이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들은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이다. 그러한 이들은 왜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는가 자신을 자세히 살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그들이 지도자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인가?

다시 말하지만, 특정 교단에 가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 그러한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히 10:25). 엡 4:11~16, 딤후 4:1~4, 히 13:17 및 다른 성경구절들을 보면, 각각의 교회들이 분명한 권위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도력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이 분명해 진다.

또한, 우리는 개개의 교회들이 더 큰 모임들과 연관을 가지고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다. “보라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그리 아름다운고”(시 133:1). 대부분의 경우 교회나 교단을 옮겨 다니거나 자신의 고집만을 세우는 이들은 하나님께 반항하거나 자신의 뜻을 추구하는 이들이다. 만약 당신이 위에 언급한 성경구절들로 자신을 살폈고 그 후에도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느낀다면, 성경을 진실하게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과 교제하고 함께 일하도록 하라.

모든 모임들은 교제를 가지게 되어 있고, 당신이 어떤 이들과 교제하는

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8장 참고). 교회 안에서 신실한 이들과 또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과 교제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모임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 그러나 아직 온전한 진리를 갖지 못한 사람들과 아무런 분별없이 교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당신은 그들과 어느 정도까지는 함께 일하거나,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그들의 친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들과 너무 친근하게 교제하다 보면 당신의 확신과 믿음이 약해지게 될 것이다. 독립적인 모임들에 자주 일어나는 일은, 다른 이들과의 교제를 너무 추구하다 보니 성결을 강조하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기본 신앙이 불분명한 사람들과 교제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그들은, 다른 교회에서 오는 이들을 그들을 담당했던 이전의 목사와 연락도 없이 받아들여지게 될 수도 있다. 그것은 교회를 위선자나 불만을 가진 사람들 혹은 권위에 습관적으로 대항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할 수도 있다. 역사적으로, 홀로 떨어져 있는 모임이 거룩함과 교리적인 순수성을 잘 지키는 예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연합함에는 힘이 있다.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의 삶에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그분의 보호와 축복 그리고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이다.

연합함의 장점들 교회연합의 장점들은 위에 언급한 것들 말고도 또 있다고 믿는다. 신약 성경 안의 교회들도 그러한 이유들로 연합되었었다. 연합은 전도를 촉진시킨다. 힘을 합치면 일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서로 경제적인 도움도 줄 수가 있으며 서로의 재능도 나눌 수가 있다. 또한 연합은 신앙과 확신을 서로 격려하게 한다. 그것은 또한 선교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며(초대교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또 개교회들이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지상명령을 수행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된다.

연합은 사탄과 죄가 침투하지 못하게 막는 데 좋은 방패가 된다. 초대교회에서와 마찬가지로 그것은 누가 믿을 만하고 누가 악한지 그리고 누가 진정한 선지자인지 아는데 도움이 된다. 우리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

들을 알고 그들과 교제할 수 있다. 우리는 성결의 기준을 세우고 권위에 대한 성경의 말씀들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사용할 수 있다. 새로운 상황이나 중요한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우리는 함께 연합해서 사도 행전 15장에 있었던 같은 결정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결정할 수 있다.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잠 11:14)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전 4:9-12). 하나님께서는 교회 회중의 결정을 존중하신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의 뜻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 방법을 사용하실 것이다(행 15:28).

이 장에서 강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위를 세우시는 데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 이 권위는 개인의 유익과 목회자 모두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것은 개교회를 하나님의 뜻 안에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방패막이다. 큰 모임 안에 있는 다양한 관점들-너무 편협한 견해나 너무 자유로운 사람들-이 전체가 균형을 이루도록 돕는다. 또한 사람들 전체가 활력을 얻고 또 전진하게 돕기도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지도력에 순종하도록 노력하자. 특히 목회자들이여! 자신을 돌아 보라. 목회자는 가장 좋은 본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직분은 깨끗하고 거룩해야 한다. “말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라”(벧전 5:3). 누구도 권위 밖에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모든 이들은 필요할 때마다 충고와 격려, 경고와 책망으로 도움을 받아야 한다. 전체교회는 강한 지도력과 귀중한 진리를 세움으로 큰 힘을 얻을 것이다.

제 13 장

교제와 연합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엡 5:11)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후 6:14)

세상과의 교제 세상으로부터의 구분은 진정한 거룩함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1장, 4장 참고). 앞의 여러 장들에서 우리는, 거룩함은 우리를 더럽힐 수 있는 세상의 것들을 피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을 보았다. 지금부터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일단의 사람들을 피해야 하는 경우를 살펴보고자 한다.

성경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사귀느냐 하는 문제를 중요시하고 있다. 잠언 22:24-25절은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받아서 네 영혼을 울무에 빠칠까 두려움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성경구절들은,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과 교제하면서도 거룩함을 지켜갈 수 있다고 하는 이들의 주장을 반박한다. 명백히, 당신이 교제하는 사람의 태도와 영혼은 당신에게 영향을 끼치게 된다. 바울은 강한 어조로 말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고전 15:33). 다른 말로, 악한 친구들은 도덕성을 떨어지게 만든다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악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속하기를 계속 고집한다면, 당

신이 악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성경이 보장하는 바이다.

이것이 우리가 모든 죄인들을 피해야 한다는 이야기인가? 아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지에 관한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한다. 예수께서 세리와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하신다고 비난 받으셨을 때에, 그는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설명하셨다(눅 5:30-32).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혼을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들과 어느 정도는 관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영혼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 친구가 되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죄인들과 상대하고 대화하는 것은 생활의 일부로서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세상 안에 살고 있다. 바울은 우리가 간음하는 사람들과 교제하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쳤으나, 바로 뒤에 세상에 살면서 세상사람들과 완전히 분리될 수는 없다고 이야기한다(고전 5:9-10).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는 아직도 선을 그어야 하는 영역들이 있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에베소서 5장 11절에 의하면, 우리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할 수 없다. 이것은 우리가 죄를 묵인하거나 그 행위가운데 참여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는 사람들이 세상적인 일 가운데 빠져들 때, 우리는 정중하게 물러서야 한다. 이런 이유로, 그리스도인과 그의 세상적인 친구들 사이에는 항상 분명한 장벽이 있게 된다. 그들은 좋은 친구가 될 수는 있으나, 어느 정도 까지만 이다. 항상 그리스도인이 참가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고, 또 항상 불신자 친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신자의 경험 이 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친구들과 너무 가깝게 지냄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불신자의 세상적인 일들에 참여하거나 그들의 태도를 같이 가지는 것으로 오해하게 해서는 안된다. “사람을 알려면 그 친구를 보라”라는 속담이나 “유유상종”이라는 말도 있다. 우리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거나 어떤 일을 참여하게 될 때 이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불신자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혹은 일상생활의 일

부로서 항상 세상의 죄인들과 접하게 된다. 이러한 관계에서 제한되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이 죄스러운 일들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또 타인에게 세상적인 것들과 동화된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반적인 고려들 외에도, 성경은 두 가지의 분명한 지침을 준다. 먼저 성경은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 삶 속에 명백한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하지 말 것을 가르친다. 둘째, 우리는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같이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한다.

교회 내 죄인들과의 교제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기독교 즉 말하자면 외적인 교회는 죄인과 의인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비유를 많이 드셨다. 천국은 알곡과 가라지를 같이 포함하고 있는 밭과 온갖 종류의 새가 깃들이는 무화과나무에도 비유되었고, 모든 종류의 물고기를 담은 그물에도 비유되었다. 요점은 기독교를 표방하는 모든 이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것이다. 외적인 교회는 거짓 선지자도 가지고 있고 마귀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선생들도 포함하고 있다. 사실상, 오늘날 종교적 기구로서의 기독교는 계시록 3:14-22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비교될 수 있다. 우리는 오늘날이 마지막 때이고 라오디게아는 마지막 교회시대를 나타낸 것이라고 믿는다. 오늘날의 교회들은 아름다운 건물을 가지고 있고, 아주 재능 있는 성가대와 정교한 의식을 수행하고 있으나 그리스도는 우리가 문을 열기를 기다리며 바깥에 서 계신다. 이것이 오늘날의 일반적인 교회들을 말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도 불붙어 있고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교회가 있다. 오늘날에도 어떤 교회들은 사도적인 가르침을 고수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성령을 그 가운데 모시고 있다.

우리는 항상, 많은 조직들과 종교적인 전통들이 완전한 복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기독교를 표방하는 모든 이들을 받아들이거나 그들을 거둬난 신자로서 생각하고 교제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우리는 구원 얻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

한 교단에 속해야 한다고 믿지는 않는다. 모든 집단에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나 삶에서 전혀 그것을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다. 특정한 경우들에 있어서, 교회는 이러한 사람들을 심판하고 교회의 교제에서 제외시키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마 18:17-18, 고전 5:5, 12-13 또한 7장 참조).

만약 그런 사람이 심판을 받고 교제 가운데서 제외된다면, 다른 성도들과 목회자들은, 성경에 따르자면, 그와 교제할 수 없다. 만일 그들이 그와 교제한다면, 그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판단을 교회의 판단 앞에 놓는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다. 이러한 심판의 한 목적은 선과 악을 구별하는 데 있다. 즉 온 빵에 번지기 전에 누룩을 제하는 것이다. 만일 사람들이 그와 계속 관계를 이어간다면, 그들은 자신들을 해하는 것이다.

그들은 또한 출교된 사람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제재행위의 또 다른 목적은 잘못된 사람을 포용하고 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그가 교제를 하고 위안을 받는다면, 그는 이러한 교훈을 배우지 못하고 불성실하고 위선적으로 되고 말 것이다. 많은 경우에 교제에서 제외된 사람이, 회개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은 채로 자신의 교회를 옮기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러한 행위를 돕는 사람은 그의 잘못을 용인하는 것이며 또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물리게 될 것이다(요이 11).

성경은 출교해야 할 사람들을 명시하고 있다. 만약 어떤 이가 성경에 나온 이유로 출교되었는데, 다른 사람이 그와 교제를 계속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직접적으로 반항하는 것이다. 심지어는 공적으로 출교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가 그런 종류의 성품이나 죄를 보인다면, 바울은 우리가 그들과 상종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그는 말한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 하거나 탐람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취하거

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고전 5:11). 이러한 가르침은 아주 철저해서 우리는 그런 이들과 함께 먹을 수도 없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는 위에 열거된 죄들을 지으면서도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는 자들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것은 세상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접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다(고전 5: 9-10). 그러한 경우에 해당되는 죄들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자.

1. 간음하는 자-어떤 종류이든 불법적인 성적 죄를 짓는 자(9장 참고)
2. 탐람하는 자-다른 이들이 가진 것을 욕심내는 자. 특히 탐욕과 동의어이다. 사람은 돈이나 옷이나 심지어는 교회내의 위치도 탐할 수 있다. 이러한 태도는 주로 시기나 증오 그리고 수군거림의 형태로 나타난다.
3. 우상 숭배하는 자-우상에게 경배를 하는 사람(손으로 만든 상들)
4. 욕하는 사람-타인을 언어로서 욕보이는 사람. 이것은 끝없는 비판과 중상모략으로 타인에 대해 악한 것을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4장 참고).
5. 술 취하는 자-습관적으로 술을 마시는 자들을 의미한다.
6. 토색하는 자-돈이나 이권, 약속 같은 것을 억지나 협박 혹은 불법적인 압력을 넣어서 취하는 사람(4장 참고).

이러한 교회 안의 여섯 종류의 위선자들 외에도, 일하지 않고 일만 만들며 규모없이 행하는 사람들을 피하라고 성경은 명하고 있다(살후 3:6, 11, 14).

1. 규모없이 행하는 사람들-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에 주어진 지침에 반하여 행동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바울은 자신의 서신을 배척하는 사람과는 함께 하지 말라고 말한다(14절). 다른 성경구절에서는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을 피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2. 일하지 않는 자들-게으른 이들을 말한다. 정직하게 일하면서 살 수 있으나 그러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3. 일만 만드는 사람들-다른 사람들의 일에 끼여들거나, 자신의 권위가 미치지 않는 영역까지도 상관하는 사람들(3장 참고).

성경은 또한 거짓 선생들과 시기, 쟁투, 수군거림과 악한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을 멀리하라고 가르친다(딤후 6:3-5)

1. 거짓 선생들-우리는 잘못된 교리를 전하는 사람들과 교제할 수 없다. 그들이 진리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줄 수는 있으나, 그들과 아주 가까이 지내거나 그들을 교회의 지도자로 삼아서는 안된다.

2. 질투-위치나, 책임 혹은 돈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을 포함한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것들을 부러워함으로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을 것이다(3장 참고).

3. 쟁투-부조화와 이견, 논쟁과 다툼을 통해 더 좋은 위치를 차지하려 하거나 파당을 짓고 혹은 개인적인 다툼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서 설자리는 없다.

4. 악한 계획-타인에 대해서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쉽게 남에 대해 결론 내려 버리거나, 악한 것들을 상상하거나 타인에게 악한 동기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비판과 수군거림을 통해서 외적으로 표출된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자신이 목격하거나 들은 사소한 일들을 가지고 무고한 사람들을 비판한다.

마지막으로, 요한 2서 9-11절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받지도 말고 돕지도 말라고 가르친다. 만약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진리를 이해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가진 것이다(9절). 그는 예수께서 아들로써 육신을 입고 오신 영원하신 하나님임을 인정할 것이다. 요한은 만약 누구든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그를 우리의 집에 초대하거나 그의 사역을 도울 수 없다고 말한다.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시길”이라는 축복을 그에게 해서도 안된다. 왜냐하면 그의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

이다. 다른 말로,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도 거짓선생들을 도울 수 없다. 심지어는 그들의 성공을 바라는 말조차 해서도 안된다는 것이다. 물론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교회들은 가정에서 모였다. 그래서 요한은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선생들이 교회의 예배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지금껏 말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사람들을 멀리하라고 명하셨는가에 대한 좋은 이유들이 된다. 그러한 사람들은 위험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 만일 당신이 시기나 질투, 험담과 악의, 잘못된 교리나 음행을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과 가까이 지낸다면, 사실상 당신은 그의 태도를 함께 공유하는 것이다. 이러한 영은 당신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물론, 우리는 이러한 악한 태도가 성경을 따라 사는 성령충만한 그리스도인을 굴복시킬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그러한 사람들과 교제한다면, 당신은 성경말씀을 무시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게 행동한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벌써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한 발짝 나온 것이고, 그러므로 이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그 결과로서 그러한 태도는 쉽게 당신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만약 당신이 이러한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있다면, 당신은 자신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과 공통점을 가진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기 때문이다.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같이 함 이것은 세상으로부터의 구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바울은 다섯 가지 질문을 던짐으로서 이것을 설명한다(고후 6:14-16).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가 교제할 수 있는가? 빛과 어두움이 어찌 조화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와 벨리알(무가치함을 뜻하는 사탄의 이름중 하나)이 어찌 하나될 수 있는가? 신자와 불신자가 무엇을 공유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조화될 수 있는가? 한편은 의와 빛, 그리스도와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고, 다른 한편은 불의와 어두움, 사탄과 불신, 그리고 우상숭배이다. 이러한 것들은 서로 상반되고

절대로 조화롭게 공존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17절). 이 명령은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가져다준다. 만약 우리가 그들로부터 분리되어서 함께 멩에를 매는 것을 거부한다면, 주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 것이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실 것이다.

이 성경구절의 실제적인 적용은 무엇일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멩에를 멘다는 것이 무엇이고 불신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아야 한다.

멍에를 멘다(to be yoked)는 것은 함께 연결되어서 가까이 있는 것을 뜻한다. 원래의 뜻으로는 이 단어는 소같이 짝지어져서 함께 일하는 동물들을 의미했다. 웹스터 사전은 다음의 것들을 멩에를 함께 매는 부류로서 예시했다: 속박, 굴중, 형제됨 그리고 결혼. 그리고 ‘짝’이라는 단어의 뜻으로서 배우자, 파트너, 친구, 남편이나 아내를 들었다. 그러므로 함께 멩에를 멘다는 것은 한편이 다른 편을 심각하게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대신 이야기 할 수 있으며 책임을 함께 나눌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지내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분명한 관계는 결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정한 경우에는 사업상의 합작과 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이러한 관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결혼은 확실히 멩에를 함께 매는 관계이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가까운 인간관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이 성경의 구절이 결혼을 의미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적용되는 다른 것을 찾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혼은 삶 전체를 통한 연합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구원에 대한 문제 이외에서는 부부를 한 단위로 생각하신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자유롭게 결혼할 수 있으나, 주 안에서만 하라고 했다—그 말은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하라는 말이다(고전 7:39).

사용자와 고용인의 관계는 명예를 메는 관계라기 보다는 어느 한 편도 깰 수 있는 상명하복의 관계이다. 사업상의 동업관계는 만약 양쪽이 같은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상대방의 결정에 따라서 매일 수 있다면 명예가 될 수 있다. 조합의 관계는 그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까지 연합되고 서로 도와야 하느냐에 따라서 명예가 될 수 있다.

신자의 정의 신자로서 우리는 위에 언급된 어떤 방식으로든 불신자와 명예를 같이 메서는 안된다. 그러면 한가지 궁금증이 생긴다. 신자와 불신자는 어떻게 성경적으로 정의될 수 있는가? 단지 신앙을 입으로 시인하거나 지적으로 동의한다고 해서 신자가 될 수는 없다. 신앙의 성경적인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는 것이다(요일 2:3; 5:1-3). 로마서 10:16은 순종의 결핍은 신앙의 결핍이라고 말한다. 요한복음 7:38-39에 의하면, 진정으로 성경을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마가복음 16:16-18은, 신자는 침례를 받을 것이고, 그 예표 중 하나는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고넬료와 그의 온 집은 그들이 믿었을 때, 방언 말함이 수반되는 성령의 침례를 받았다(행 10:44-48, 11:17). 빌립보의 간수는 바울의 말을 믿고 침례를 받았는데, 그때는 자정이 더 지난 시간이었다(행 16: 31-33).

물론 믿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시작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안 계속되는 하나의 과정이다. 성경이 '신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을 때는,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계획을 체험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행 2:38).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만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순종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는 일도 있다. 그 결과로서, 그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없다. 여기에 성경적인 예들이 있다: 마귀들(약 2:19)과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요 2:23-25) 그리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요 12:42)과 많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마 7:21-23), 베드로의 설교를 듣기 이전의 고넬

료(행 10:1-6, 11:14), 마술사 시몬(행 8:13, 20-23)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기 이전의 사마리아 사람들(행 8:12-16). 이러한 예들이 말해주는 것은 사람이 단순히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진정한 신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또한 올바른 기초를 가져야만 한다. 그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해야 하며 믿는 이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만일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는 이들이 올바른 신앙의 기초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있지 않다면 그들과 함께 명예를 메서는 안된다.

구약성경의 예들 우리가 믿지 않는 이들과 함께 명예를 메서는 안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로 세상과 타협하게 하기 때문이다. 모든 시대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세상으로부터 분리될 것을 명령하셨다(1장, 4장 참고). 아브라함은 그의 나라와 가족들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창 12:1). 그는 이삭이 이방인 아내를 취하지 않도록 계획을 세웠고, 이삭은 또한 야곱을 위해서 똑같은 일을 하였다(창 24:2-3, 27:46, 28:2)에서는 믿지 않는 여인과 결혼함으로써 그의 부모들의 마음을 슬프게 하였다(창 26:34-35).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방의 풍습과 이방인과의 결혼을 멀리하라고 명령하셨다(신 7:3). 발람은 약삭빠르게도 이스라엘을 망치게 하기 위해 모압인들을 이용해 이스라엘이 족외혼을 하게 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게까지 하였다(민 25:1-3, 31:16). 삼손의 타락은 블레셋 여인 때문이었다(삿 14:2-3, 16:4-5), 그리고 솔로몬의 이방 아내들은 그로 죄짓게 만들었다(왕상 11:4-8).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용하시기 이전에 여러 번 그들의 잘못된 결혼을 정결케 하셔야 했다(민 25, 에스라 10, 느헤미야 13:23-31).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6장의 가르침은 구별됨에 관한 가르침의 일부임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기본적인 원칙이다.

결혼 그러면 이것이 제시하는 몇 가지 실제적인 질문들을 결혼이라는

측면에서 다루어 보기로 하자. 그리스도인이 불신자(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 얻지 못한 자)와 결혼할 수 있는가? 대답은 ‘아니다’이다. 만일 그가 결혼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된다. 그럼 불신자가 불신자와 결혼할 수는 있는가?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똑같이 멩에를 메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성직자가 믿지 않는 두 사람의 결혼식을 집전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만약 그가 신자와 불신자와의 결혼식을 집례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 것이고 따라서 타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을 돕는 것이 된다. 그가 자신이 하는 일을 잘 모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는 샅꾼 목자가 된다. 그럼 그리스도인이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을까? 대답은 ‘아니다’이다. 그들은 같은 기본적인 경험과 신앙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같은 멩에를 메고 있는 것이 아니다. 사탄은 믿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들과 함께 멩에 매는 것을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 신자가 믿지 않는 배우자를 가지고 있다면 물론 그들과의 결혼생활을 지속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는 혼인의 서약을 존중해 주시고 그것이 깨지기를 원치 않으신다(고전 7:10-13, 39). 이러한 경우에 신자는 불신자 배우자를 거룩하게 할 수 있다(14절). 이것은 그러한 결혼관계가 합법적인 것이고 또한 신자는 자신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경우에 신자의 의무는 기도와 거룩한 삶으로써 믿지 않는 배우자를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다(벧전 3:1-2).

어떤 이들은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은 주께로 영혼을 인도하는 좋은 방법이 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간과하고 있다. 그것은 마치 술집에 들어가 술을 마시며 전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장이다.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내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다. 그러한 결혼이 성사되는 대부분의 경우에 불신자인 배우자는 결코 주께로 오지 않는다. 만약 불신자가 진정으로 하나

제 14 장

경배, 감정과 음악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 지어다”(대상 16:29;
시 29:2, 96:9)

진정한 경배 경배는 진정한 거룩함의 중심적인 부분이다. 또한 거룩함은 진정한 경배의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가장 신실한 형태의 예배는 제사와 헌금이 아닌 순종이다(삼상 15:22).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삶으로 드러지지 않는 예배는 거부하실 것이다(암 5:21-27, 말 1:10 참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경배는 진실한 마음과 순종하는 삶에서 나오는 경배이다. 우리는 신령(사람의 영혼, 열심을 의미하는 말)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한다. 이 관점에서, 이 책의 전 내용은 경배와 아주 깊은 연관이 있다. 그 이유로, 성경적인 경배에 대한 짧은 이야기들을 몇 가지 포함하는 것이 독자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이 책의 나머지 부분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는가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이 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의 외적인 표현과 감정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는가에 대하여 나누고자 한다. 왜냐하면 음악은 경배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성경 속에서나 오늘날이나 마찬가지로). 또한 음악을 생각하면서, 세속적인 음악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한다.

감정과 표현 성경 속의 경배들에서 가장 놀라운 사실들 중의 하나는,

그것이 사람의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데에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당신을 사랑하라고 요구하신다 (막 12:30). 이것은 감정적, 영적, 지적 요소와 동시에 인간의 육체적 요소 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경배는 명백히 그것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것들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다. 궁극적으로 그것은 우리가 헌신하고 드리는 우리의 의지이지, 단순한 감정이나 자연적인 이해는 아닌 것이다.

어떤 이들은 감정과 외적인 표현은 경배에 있어서 아주 미미한 요소만을 담당하해 한다고 말한다. 다른 이들은 자신들이 선천적으로 감정적이거나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물론 사람들은 제각기 다른 개성을 타고난다. 그러나 우리는 진정한 경배가 사람 안에 존재하고 있는 감정적인 요소를 포함한 사람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믿는다.

하나님께서는 감정적인 분이다 전 성경을 통해서 그분은 사랑과 기쁨, 슬픔과 노를 보이셨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을 때, 우리는 그분이 자신의 친구였던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던 것을 알 수 있다(요 11:35).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을 위하여서도 우셨다(눅 19:41).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고 하나님과 같은 감정을 나누고 있다(창 1:27). 교회에 올 때 자신들은 감정적이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보통 집에서는 이성을 잃고 자녀들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애꿎은 개를 걷어차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미식축구 경기를 구경하면서 괴성을 내지른다. 그들은 격렬하게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많은 다른 것들에 대해서 논쟁한다. 그들은 버스나 택시를 타기 위해서는 다른 이들을 떠민다.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난리를 피운다. 그들은 자신의 연인을 위해서는 애정 표현을 하고 끌어안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교회 안에서 감정이 있을 곳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습관적인 예식을 주장한다. 사실 우리는 모두 감정적인 존재이다. 감정은 우리의 모든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런데 왜 교회에서는 아닌가? 물론 감정은 경배의 유일한 요소는

아니다. 앞에서 말한대로, 이성도 또한 중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의지가, 믿음과 하나님의 뜻이 그것을 제어하는 데로, 경배를 주장해야 한다. 그럼에도, 감정은 우리 경배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감정은 외적인 표현으로 나타난다 격한 감정을 느끼면서 그것을 감춘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외적인 표현은, 그것 자체로는, 경배에 있어 아주 작은 요소에 불과하다. 사실상,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딤후 4:8). 그러나 외적인 표현은 감정의 자연적이고 피할 수 없는 결과이다. 하나님께로부터 감동을 받은 진실한 마음에 따라서, 외적인 표현은 경배의 중요한 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

감정과 표현은 외적인 경배에 있어서 기본적인 요소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구약을 다 찾아 볼 수 있다. 시편은 경배의 표현들과 예들로서 꼭 차 있다. 시편기자는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의 회와 공회 중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라고 말하였다(시 111:1). 어떻게 그가 공회 중(예배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는가? 여기에 시편에서 볼 수 있는 몇 가지 예들이 있다: 손을 들므로(141:2),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함으로(33:2-3), 즐거운 소리를 외침으로(95:1,2), 손뼉을 침으로(47:1), 그리고 춤을 춤으로(149:3). 시편 98:4은 즐거운 소리, 큰 소리를 외치고 즐거워하며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꺼리는 사람들에게 위해서는 시편기자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라고 말하고 있다(시 150:6).

경배의 예들 구약은 경배와 기도의 예들로 가득 차 있다. 솔로몬은 그의 손을 들고 있을 때, 무릎을 꿇고 있을 때 기도했다(왕상 8:22, 54). 하나님의 법회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다윗은 너무 기뻐한 나머지 자신의 어의를 벗고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춤을 추었다. 성경은 “다윗이 주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소리를 치며 뛰었다. 그의 아내 미갈이 그것을 보았을 때 다윗을 마음속에서 업신여겼

성결을 찾아서

데이빗 버나드 · L.A. 버나드

도서
출판

진리와 사랑

예수
사람

다. 왜냐하면 그녀는 다윗이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의 격을 낮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녀가 그것을 가지고 다윗을 책망했을 때, 그는 심지어 더 “낮아지고 천해”지겠다고 맹세했다. 그 결과로서 미갈은 죽을 때까지 아이를 낳지 못했다(삼하 6:14-23). 다윗은 큰 권력과 위엄을 가진 동방의 왕이었으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피가 들어왔을 때는 자유롭게 춤을 추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도 왜 그와 같이 할 수 없겠는가?(느헤미아 8:6-9, 9:3-5 참고).

신약을 살펴보아도 같은 종류의 경배를 볼 수 있다. 오순절 날에 120명의 신도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은 기뻐했고 많은 소리를 내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들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신도들은 자신들의 감정을 숨김없이 나타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던 사람들은 그들이 술에 취하였다고 생각했을 정도였다(행 2:13). 술 취한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하는 지는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다. 의심할 여지없이 어떤 신자들은 춤을 추고 있었고 다른 이들은 소리를 지르고 있었으며 어떤 이들은 울거나 웃으며 다른 이들은 비틀거리거나 기절한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만약 우리가 같은 성령을 받았다면, 왜 우리의 경험이 그들과 달라야 하는가?

이러한 종류의 경험은 계속적으로 일어났다. 얇은빵이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는 성전에 걸으며 뛰며 찬양하며 들어갔다(행 3:8). 요한이 밧모섬에서 주를 보았을 때, 그는 죽은 자처럼 엎드렸다(계 1:17). 다메섹 도상의 바울이나 빌립보의 간수는 둘 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떨어다(행 9:6, 16:29-30). 베드로가 주를 부인한 것을 회개했을 때, 그는 서럽게 울었다(눅 22:62). 세리는 가슴을 치며 회개했다(눅 18:13). 그리고 죄를 지은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회개와 기쁨, 그리고 사랑의 눈물을 흘렸다(눅 7:37-47). 바울은 자신이 교회들에 보내야 했던 책망의 편지들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고후 2:4). 초대 교회가 모였을 때, 그들은 모두 함께 모여 소리를 높여 기도했고 건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흔들렸다(행

4:24-31). 서신서에서, 바울은 성령이 탄식하시는 것과(롬 8:26),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노래하는 것(고전 14:15), 그리고 손을 드는 것(딤후전 2:8)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이러한 보편적인 찬양의 방법들과 거룩함과의 연관성에 대하여 주의하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러한 모든 예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나타낸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모든 사람이 같은 방법으로 예배하고 반응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이들은 외적인 감정을 더 많이 표현하나, 모든 이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경배는 다양하고 또 자유로운 것이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을 진실히 경배한다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감동시키실 때 자신의 감정을 나타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잠잠할 것이다. 만약 당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애통해 한다면, 당신은 눈물을 흘릴 것이다. 만약 목회자가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자신의 도시를 위해 애통해할 것이다.

성령을 소멸시키는 것 우리는 우리의 경배 중에 성령을 소멸시켜서는 안된다(살전 5:19). 이것은 비성경적인 전통과 형식주의에 의해서 때때로 일어난다. 어떤 이들은 부흥회 때는 자유롭게 경배하나, 다른 예배들에서는 이전의 형식주의로 돌아가 성령을 소멸시킨다. 특히 주일 아침예배에서 말이다. 많은 이들이 예배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다. 다른 한 편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강요하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된다. 만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면, 모든 것들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이루어질 것이다(고전 14:26). 그것들은 혼란이 아닌, 평화와 적절함 그리고 질서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고전 14:33-40). 인도자와 목자로서의 감독의 역할 중 하나는 교회 안의 질서를 지키고 혼란이 일어나는 것을 막는 것이다. 위선적인 경배와 육체적인 모습을 내는 곳에는 평화가 있을 수 없다.

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엡 5:19).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골 3:16).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다른 찬송들을 의미하는 반면, “시”는 의심할 바 없이 구약성경의 시편을 의미한다. 즐거운 소리와 손뼉을 치는 것, 손을 들고 춤추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형태의 경배를 명하는 시편을 노래하는 데 어려움을 느낄 것이다. 바울은 그의 경배가 시편에서 명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염려도 하지 않았다. 다른 곳에서 바울은 성령으로 노래하는 것(방언으로 노래하는 것)과 개인적인 헌신의 일부로서 자신의 노래를 이해하면서 노래하는 것을 인정했다(고전 14:15). 노래하는 것은 우리의 경배와 일상생활에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야만 한다(고전 14:26, 약 5:13).

음악이 경배에 매우 강력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음악을 경배에 사용하고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 안의 음악에 대하여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교회는 무대이며, 회중은 관중이고 음악가들은 배우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은 뒤에서 연주를 지시하는 분이라고 오해한다. 사실상은 회중이 배우(경배자)가 되어야 하고, 음악가가 연주 신호를 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관전하시는 분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교회 안의 연주자들은 두 가지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들의 주된 목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음을 창출해 내면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들의 다른 하나의 기능은 회중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경배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영감있는 찬양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다시 헌신할 수 있었고 제단에 기도하러 나올 수 있었다.

이것은 음악가들과 찬양을 인도하는 이들은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예배를 잘 인도할 수도 있고 반대로 망칠 수도 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배의 축복을 위해 그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금식하고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단지 자신의 재능을 자랑하려 하는 이들은 필요치 않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회중에 유익을 주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오늘날 많은 음악 그룹들이 전문적이고 아름다운 음악을 선보이고 있다. 그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경배 앞에 여흥을 앞세운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는다. 나는 아름다운 하모니로 노래하고 아름다운 배경음악을 내는 그룹들을 좋아하지만, 오히려 그들이 노래할 때, 하나님을 느끼고 경배하기를 원한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그들은 연주회나 적합한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고 영혼들이 위협에 처해있는 동안에 예배를 위한 음악은 아닌 것이 된다.

음악가와 노래하는 이들은 그리스도인의 좋은 모범이 되어야 한다. 그들은 경배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고 회중의 모범으로서 세워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그것을 반영해야 한다. 그들은 성경과 목회자의 가르침에 따라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회중은 노래하는 이의 신실함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노래하는 이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노래를 한다거나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청중이 알게 되는 것만큼 경배의 분위기를 흐리는 일은 없다.

교회 안에서 노래하고 연주하는 것은 특권이다. 만약 당신이 재능이 있다면 당신은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 이것이 당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고 있는 방법이다. 이러한 이유로, 가수와 성가대원들 그리고 음악연주자들은 그들의 교회에서 보수를 받아서는 안된다. 그렇게 한다면 그들로부터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회를 빼앗아 가는 셈이 된다. 물론, 전적으로나 직업의 일부로서 음악을 지도하는 이들은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직업이기 때문이다.

스도인들이 즐겨서는 안되는 일들이 있고 또 정도를 벗어난 쾌락의 추구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딤후 3:3, 히 11:25 참고).

세상적인 분위기 어떤 행동들은 건전할 수도 있으나 종종 세상에 의해 오염된다. 정욕의 영이나 쾌락에 취하는 것, 다수의 폭력이 세상에 침투해서 그리스도인들을 괴롭게 하고 있다. 이것은 많은 파티나 놀이들, 관전하는 운동경기들 그리고 여러 종류의 쇼들에서 나타나고 있다. 다음의 것들은 세상적인 분위기를 띠는 몇몇 예들이다: 쇼, 놀이들, 외설적인 암시와 부도덕한 유혹이 오가는 파티들; 콘서트들, 마약으로 가득 찬 공연들, 음주, 폭력, 외설들, 다툼, 군중심리; 그리고 담배연기로 가득 찬 오락실들, 평판이 나쁜 인격들 그리고 도박들이다. 때때로, 세상은 순수하게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상기와 같은 것들로 오염시킨다. 한번 참가하는 것이 죄는 아닐 지는 모르나, 그러한 분위기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울리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이, 만일 자기 양심의 인도를 받는다면 그 자리를 불편해할 것이다. 만일 그가 계속하여 그러한 모임에 참가한다면, 그는 결과적으로 자신의 영성을 잃고 영적 감각을 잃을 것이다. 그 때부터는 그는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구분할 수 없게 되고 이러한 영역들에서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구분할 수 없게 된다.

외적 모습들 아마 어떤 모임들은 그리 세상적이지도 않고 분위기도 괜찮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거기에 참가하는 것은 타인의 눈에 세속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많은 이들이 근본주의자들과 오순절 교인들이 무엇을 믿는지 알고 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눈여겨본다. 그들은 당신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알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주 확신을 가지거나 가책을 느끼며, 당신이 범하는 아주 작은 실수 하나라도 걸고 넘어져 그들의 죄를 합리화시키는데 사용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형제들에게 거치는 행동을 하지 않고 또 우리의 간증에 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만일 당신이 상관을 위해 담배를 산다면, 그 사실을 모르는 목격자는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만약 당신의 아는 사람이 당신이 카드놀이를 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도박과 연관지어 생각하지는 않을까? 이러한 영역들은 각자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행해야 할 부분들이다. 우리는 규칙들에 의존할 수 없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과 세상에 잃어버린 바 된 이들을 향한 진정한 사랑에 동기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지금부터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상황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도박 그리스도교의 일반적인 견해는 도박을 반대한다.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도박이 그리스도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비록 성경 구절이 그것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도박은 세상적인 즐거움과 분위기 그리고 세상적인 것들의 외적인 모습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다. 도박은 항상 속이는 것과 폭력, 그리고 조직적인 범죄와 연관을 가져왔다. 또한 그것은 죄 없는 가정들의 파탄과 금전적인 어려움의 원인이 되어왔다. 도박은 중독성이 있다(알코올 중독자의 치료 모임과 유사한 도박 중독자들의 치료 모임이 그것을 증명한다). 성경은 이러한 것들의 종이 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다(롬 6:16). 성경은 또한 우리가 갚을 수 없거나 갚지 않으려 작정한 빚을 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롬 13:8). 그리고 우리 자신의 가족을 부양하는 것의 중대성을 성경은 강조한다(딤후 5:8). 이러한 성경의 원칙들을 깨는 것을 피하고 또 악의 모양을 취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도박을 피해야 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굳건히 서고 또 모든 악의 모양을 버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종류의 돈을 거는 것과 또 복권 등을 사는 행동을 삼가야 한다.

춤추는 것 사교춤의 가장 주된 동기가 성(性)적인 것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볼룸 춤의 육체적 접근은 춤추는 사람들을 성적으로 자극하기 위한 것이다. 사람들이 록이나 디스코에 맞추어 춤추는 것을 본 사람이라면, 그러한 몸의 움직임들이 성적인 흥분을 자극하고 또 도발적이라는

6. 의사들은 텔레비전으로 중계되는 프로 경기들의 폭력장면들이 아동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걱정하고 있다.

1978년에는, 한 스포츠 신문이(Sports Illustrated) "잔인성-Brutality"이라는 연재 기사를 실었다. 그 기사는 똑 같은 내용들을 이야기하였다. 1978년 8월의 기사는 얼마나 많은 선수들이 고통을 입고 더 공격적으로 되기 위해서 약을 복용하는 지 밝히고 있다. 이것이 폭력과 부상 그리고 입장권을 만들어 냈다.

우리의 결론은, 대부분의 단체경기들, 특히 큰 고등학교나 대학 프로 운동경기들의 분위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 것들을 참가하거나 혹은 구경하면서 영성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우리는 운동 자체로서는 나쁜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죄성이 있는 사람들은 운동을 오염시켰다. 만약 스포츠들이 그리스도인다운 분위기에서 이루어진다면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관중들이 차분한 가운데 관전하고, 상대방일지라도 온유한 태도를 유지하며 모든 참가자들에 의해 좋은 스포츠맨 정신이 유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우리자신이 세상적인 운동들에 의해서 너무 정신이 팔려서 그들의 자세를 닮지 않도록 하자.

다른 게임들 그리스도인은 몇몇 다른 종류의 게임들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 이유는 그러한 게임들이 세상적인 분위기를 강하게 풍기거나, 혹은 좋지 못한 인간 관계의 원인이 되고 악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보통, 게임들이 건전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지고, 또 세상의 죄와 관련이 없는 것이라면 문제가 없다. 개인적인 본이 된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카드놀이나 주사위 놀이를 멀리해 왔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도박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모노폴리(Monopoly)게임(한국의 윷놀이와 비슷한 서양의 가족놀이-역자 柱)을 할 때는 주사위를 사용한다. 그러한 게임에서는 문제가 될 것이 없기 때문이

다. 그럼에도 우리는 다른 이들이 오해받거나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때때로 스피너(서양의 옷)를 사용한다.

마지막 분석으로, 우리는 우리가 즐겁게 교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분위기, 적어도 세상의 난잡스러운 죄가 들어올 수 없는 가족적인 분위기를 원한다. 우리는 그러한 분위기에 참가하거나 악의 모양을 취함으로써 우리 자신이나 교회에 불명예가 돌아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성령이 충만한 목사의 지도를 받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다른 모임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들의 목사에 의해서 세워진 지침들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기억하라, 완전함에는 여러 가지 다른 차원들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하시는 일을 하신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교회가 특별한 필요가 있거나 혹은 특정한 상황가운데 처해 있거나 혹은 특정한 사역을 감당해야 할 때 목사를 인도하셔서 지침들을 세우실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를 가지고 비교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비추어 보아야 할 것이다.

마술, 무속(Witchcraft) 이것은 세상을 이끄는 힘이 되어 왔고 심지어는 기독교계 내에도 흘러 들어온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모든 형태의 무속들은 성경에 의해서 매우 강한 어조로 금지되고 있다. 율법은 무속하는 이들을 죽이라고 명한다(출 22:18). 신명기 18:9-12절은 다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가증한 자라고 밝히고 있다:

1. 인신제사를 바치는 이들(Those who practice human sacrifice);
2. 점을 보는 사람들—신비적인 통찰이나 미래를 말하는 것;
3. 운수 좋은 때를 정하는 사람들—미신적이고, 운이 좋은 날과 나쁜 날, 표적 혹은 행동을 구분하는 이들;
4. 마술사들—사람들을 혹하게 하는 이들;

5. 마녀들-악한 영과 교합에서 여러 종류의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
6. 저주하는 이들-타인에게 저주를 내리거나 내리려 시도하는 이들;
7. 점을 보러 가는 이들-악한 영과 교통하거나 하려고 하는 이들;
8. 마법사들-남자 마법사들;
9. 무당들-죽은 이들과 교통을 시도하는 이들.

모든 가증한 이들과, 마술사와 우상숭배자는 불 못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계 21:8). 마법은 육체의 일 중의 하나이다(갈 5:19-21).

바울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마귀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예언하던 어떤 소녀가 '악령'에 의해서 잡혀있다는 것을 알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몰아냈다(행 16:16-18). 그는 또한 에베소에서 50,000근의 은에 해당하는 마술에 대한 책을 불태우는 행사를 집행했다(행 19:18-20).

현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마술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해 왔으나, 사실상은 그 반대이다. 미국과 다른 나라들을 살펴 볼 때, 이러한 악한 행동은 늘어나는 추세이다. 사탄주의와, 동방종교, 이교와 신비주의가 번성하는 추세를 보라. 또 점치는 이들과 마술에 관한 책들과 별점을 치는 것들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보라. 이러한 모든 것들은 사탄에 의해서 영향받은 마술을 되살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다.

이것은 점성학에 분명히 적용된다. 성경은 별점을 치는 자들과 전조로 예언하는 자들은 우리를 도울 수 없고 또 불로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사 47:12-15). 예레미야 10:2은 이방인들처럼 하늘의 표적들을 보고 놀라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다. 두 성경구절은 점성학과 12궁도의 표적들을 가지고 자문을 구하거나 미래를 예측하려 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점성술사와, 마술사들과, 점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느낀것내 살 왕과 벨사살에게 알리는 데 실패했다. 하나님의 진정한 메시지를 전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단 2:27, 5:15).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러한 행위들을 미워하시는가를 아무리 강

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들은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다. 그것들은 행하는 자들은 사실상 사탄을 경배하는 것이다. 그 결과로서, 그리스도인은 마술과 연관된 어떠한 것들도 해서는 안된다. 점성학을 믿거나, 점성술을 신뢰하거나, 점치는 이나 손금보는 이를 방문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타로카드나 점판이나, 12궁도같은 것들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심지어는 게임이나 장난으로도 말이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사탄주의를 나타낸다. 그것들은 사람의 마음을 악마에게 열고 악마가 더 자유로이 활동하도록 돕는다. 같은 이유로 그리스도인은 장난으로라도 강신회(Seance)같은 곳에 참여해서는 안된다. '성공적인' 강신회에서 사실상 일어나는 일은 악령이 접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동양의 무술을 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운동들이 신비주의나 동양철학, 그리고 악령을 경배하는 것은 아닌가 주의하여야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운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할 일이다. 요가와 초월주의 명상은 영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 그것들은 힌두교와 불교에 뿌리를 두고 있고 악령들에 대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열 수 있다. 많은 의미 없는 단어들이 그러한 시도가운데 사용되고 그것들은 사실상 이방의 신들(악령들)을 발동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영적인 세계에 여러분의 마음을 여는 것에 대하여 주의하라. 그러한 악령들은 당신에게 영향을 끼치고 해를 끼치게 된다. 많은 이들이 록 음악이나, 마약, 혹은 명상으로 자신을 이러한 영들에게 노출시켰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거나 자신을 제어하지 않고 방언으로 기도하거나 이야기하는 것도 위험할 수도 있다. 또한 예언하는 영도 예언자의 제어를 받아야 한다(고전 14:32).

미신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들어와서는 안되는 비슷한 악이다. 운이 좋거나 나쁘거나 한 날이나 숫자, 행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은 전조를 읽거나 부적을 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그분이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또

모든 것들을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행하실 것이라고 하였다(엡 1:11, 시 91:9-12, 롬 8:28을 보라). 사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전에는 옳의 재산이나 건강에 손댈 수가 없었다. 심지어는 그 이후에도, 사탄은 옳의 생명을 해할 수가 없었다(옳 1:9-12). 저주와 마술, 흥조나 사람들의 죽음은 하나님의 권세와 그분의 교회나 자녀에 대항할 능력이 없다.

사탄의 능력 우리는 사탄도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어떤 마술사나 무당은 그의 힘으로 놀라운 일을 행한다. 이집트의 마술사들은 이적을 행했으나 모세는 그들을 압도했다. 그들의 힘은 하나님 앞에서 무력했다는 것이 밝혀졌다(출 7:10-12, 22, 8:7, 18-19). 예수께서는 거짓 선지자가 큰 기적과 기사로서 올 것이라고 하였다(마 24:24). 적그리스도는 능력을 가질 것이고 기적과 거짓 기사로서 사탄의 일을 행할 것이다(살후 2:9). 적그리스도의 체제하에 있는 거짓 선지자가 하늘에서부터 불을 불려서 우상의 형상으로 말하게 만들 것이다(계 13:11-15). 사탄의 영은 기적을 행할 것이다(계 16:13-14).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놀라서는 안된다. 율법 아래에서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방법은 그가 이적을 행하느냐 못하느냐를 구분하는 데 있지 않고 그가 하나님을 경배하느냐 안하느냐를 보는 것이었다. 만약 그가 꿈이나 기사나 기적을 행하나,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면 그는 죽음을 당해야 했다(신 13:1-5). 우리는 사탄도 사 람들로 하여금 기적을 일으키게 할 수 있다는 것으로 결론 짓고자 한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고 사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아무 권세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요 10:29, 약 4:7, 요일 4:4). 물론, 귀신은 성수나, 표적, 십자가나 주문이나 예식으로 쫓아낼 수 없고 오직 믿음을 동반한 예수의 이름으로만 쫓아낼 수 있다(막 16:17, 행 19:13-17).

우리는 많은 예언자들과 마술사들, 영매들 같은 이들이 단순히 속이는 자들이고 사기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럼에도 그들은 무지한 자들을

속이고 하나님께 드러져야 할 경배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행위 중에 사탄의 뜻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마술에 관한 우리의 논의에서, 눈의 착시 현상이나 수학적 사실, 참여자간의 은밀한 대화를 이용한 악의 없는 속임수는 제외하고자 한다. 성경 속에 사용된 단어 ‘마술’은 사탄의 힘을 이용한 행위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는 사탄주의에 연관이 없는 거실에서 할 수 있는 놀이나 무대에서 보여주는 눈속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요약 결론적으로, 마술의 영이 우리에게 스며들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자. 모든 종류의 미신이나 비슷한 행위에 대하여 경계하자. 특히, 외적으로는 아무런 해가 없어 보이나 사탄의 영향을 받고 있는 점성학에 대하여 경계하여야 한다. 또한, “불순종은 사술의 죄와 같다”는 사실을 기억할 일이다(삼상 15:23). 모든 형태의 마술, 외적으로나 혹은 미신적인 마음이나 이방인의 습관이거나 아니면 반항적인 마음에서 비롯되는 모든 것들을 피할 결심을 하도록 하자.

이 장은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많은 것들을 다루었다. 중요한 점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의 목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든 간에 그것이 세속적인 영에 의한 것이 아닌가를 살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영에 맞서 승리하고 악의 모양들을 피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성령과 성경, 그리고 우리의 교제와 부드러운 양심이 협력하여 의의 길에서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단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것들의 영향과 가르침, 그리고 리더십에 호응시키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제 16 장

거룩한 삶에 대한 실제적인 힌트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고후 7:1)

지금껏 이 책은 그리스도인의 매일의 삶과 연관되는 다양한 주제와 영역을 다루었다. 우리의 목적은 규칙이나 규정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현대의 삶을 살아가면서 접하게 되는 문제들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주고자 하였다. 우리는 적절한 질문을 던지고 우리의 생각에 도전을 주었으며, 성경연구를 고무하고 최소한 몇몇 질문에 대한 대답을 했다고 믿는다. 우리는 당신이 성경을 공부하고, 당신이 믿는 바를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발견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 바란다. 우리는 또한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다루었던 문제들에 대하여 묻기를 바란다. 만일 당신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의 침례를 받지 못했다면, 하나님께 구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밝혀 성경을 깨닫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에게 거룩하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힘을 공급하는 이도 성령이시다.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화한다(고후 3:18).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힘을 가질 수 없다. 만약 당신이 새 신자라면, 거룩함에 대한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걱정할 필

요가 없다. 단지 하나님 안에서 자라고 또 가르침을 배우는 것을 소망하라.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당신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안에 주시는 확신을 따르라.

어떤 점들에서는 우리와 의견을 달리하는 독자도 있을 것이다. 아마도 당신은 우리보다도 더 나은 이해를 하고 있을 지도 모른다. 우리는 단지 여러분이 정직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바란다. 단순히 남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만 하지 말라. 기도와 많은 생각과 성경의 연구를 통해서 신앙을 키워가기 바란다. 다른 이들이 주장하거나 주장하지 않는 것들을 너무 신뢰해서는 안된다. 하나님께 묻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분께서 진리로 더 가까이 인도해 주실 것으로 믿을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견해를 바꾸도록 인도하신다면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후 13:5).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에게 무엇을 시킬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그분의 완전한 뜻을 따름으로서 유익을 얻는 것이다. 우리가 거룩하게 삶으로서 잃게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물론, 거룩함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으로는 성취할 수 없다. 그것은 내 부로부터 발산하는 것으로 성령이 우리의 삶에 꼭 내주하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거룩함은 꼭 당신의 안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거룩함이 당신의 삶에 내재한다면, 당신의 외적인 모습마저도 변화시킬 것이다. 거룩함은 당신의 태도와 당신이 하는 대화와, 당신의 모습과 당신의 행동을 변화시킬 것이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무엇인가가 잘못되어 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약 2:17). 우리가 거듭났을 때, “옛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고후 5:17)가 우리의 삶에 성취되게 된다. 우리가 이전에 좋아했던 것들은 싫어하게 되고; 우리가 전에는 싫어했던 것들은 좋아하게 된다.

일반적인 제안 거룩함은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도록 허락하는데서 나타날 수 있다. 규칙적인 기도와 성경공부 그리고 교회출석은 모두 필요한 것들이다. 성경을 읽을 때, 시편은 찬양과 경배를 위해 좋은 책이다. 잠언은 지혜로 가득 차 있고 실제적인 조언들을 제공한다. 그리고 신약의 서신서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아주 실제적인 적용들을 얻는데 큰 힘이 된다. 몇몇 중요한 결정이나, 힘든 시험들, 혹은 강한 유혹들에는 기도와 금식이 다 요구된다.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하고 그분께서 교회에 세우신 지도자들의 의견을 들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가 있다. 우리의 목사의 지도와 조언을 따르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만약 당신의 목사가 강조하지 않는 어떤 확신을 당신이 가지고 있다면, 그 확신을 따를 일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의 목사가 당신이 별로 생각하지 않던 것을 가르친다고 한다면,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교회내의 일체감과 우리 자신의 훈련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혹은 그가 이 문제에 있어서 당신보다 더 잘 이해하고 있는 일일수도 있다.

기도와 성경공부, 교회 출석, 순종과 금식, 그리고 개인적인 확신을 가지는 것에 덧붙여, 당신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몇몇 원칙들이 있다. 우리는, 실제적인 유익이 있고 또 그리스도인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할 중요한 몇 가지 힌트들을 따라왔다.

20개의 실제적인 지침들

1. 악의 모습을 피한다. 그것이 실제로는 악한 것이 아닐지라도 그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라면, 피한다(살전 5:22).
2. 어떤 일에 대하여 의심이 생긴다면, 하지 않는다. “믿음을 좇아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롬 14:23, 또한 약 4:17을 보라).
3. 단체행동이나 흐트러진 태도들은 그리스도적인 것이 아니다(롬 13:13). 우리가 만일 어떤 문제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태도를 분명하고 적절한, 그리스도인 다운 방법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4.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 보다 더 악한 자니라”(딤후전 5:8). 만일 어떤 직업을 가지는 것이 당신의 체면에 어울리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 직업이 필요하고 그것이 정직하게 가족을 돌보는 유일한 길이라면, 그 직업을 구해서 일하라. 목사로서 정원사가 된다면, 막일을 한다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다른 일을 하는 것이 관습에는 어긋날 수도 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과 동역자들의 필요를 위해서 천막 만드는 일을 했다. 물론, 목회자가 될 수 있는 한 자신의 시간을 사역을 위해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교회가 목회자를 경제적으로 부양할 수 있다면, 그는 일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성경은 목회자가 자신의 손으로 일하는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한 일이 없다.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가족을 부양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5. 먼저 모든 믿는 이의 본이 되어라(딤후전 4:12). 신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기대하시는 지 알고 있다—어떻게 우리가 행동하고 옷을 입고 이야기해야 하는 지. 믿지 않는 자의 본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 지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믿는 자들에게 말이나 행실이나 사랑이나 태도나 믿음과 순수함에서 본이 되도록 하라. 예를 들자면, 다른 이들에게 소리를 치거나, 욕하거나, 모임가운데서 화를 내거나, 잘못된 태도를 가지지 말라—신자가 관련된 것에는 더더욱 조심하라.
6. 오늘날의 사람들은 교리를 전하는 설교자들을 좋아하지 않는다(딤후 4:2-4). 그들은 사랑과 축복을 원하지만, 그들은 죄나 구원 그리고 거룩함에 대하여 듣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온전한 가르침”을 그냥 듣지 못하고 진리로부터 돌아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보다 ‘신화’를 더 좋아할 것이다. 그들은 ‘거스리는 귀’를 가지고 그들의 기분과 정욕을 만족시켜 줄 설교자들을 찾아다닐 것이다. 목자들이여, 이러한 영을 주의하라. 목자들이여,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 성도들이여, 이러한 마지막 때에 최악이 관영한 태도들을 멀리하라. 그것은 당신의 거룩함을 향한 소망과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을 듣는 감각을 마비시킬 것이다.

7. 타인에 대한 험담을 듣게 되거든, 그것을 중단시키라. 그리고 “당신이 말하고 있는 이는 나의 형제예요. 그는 우리 가족의 일원, 하나님의 가족의 일부예요”라고 말하라. 우리는 한 몸의 지체이다. 한 지체가 상처를 받으면, 우리 모두는 상처를 받게 된다.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중상하고 서로에 대해 수군거릴 수 있단 말인가? 수군대는 대신에, 성경은 진실되고 정직하며, 바르고 순수하며, 사랑받을만 하고 덕과 기림이 있는 것들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다(빌 4:8).
8. 만약 어떤 이가 당신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라. 만약 수군대는 이가 어떤 사람이 당신을 미워하고 당신에 대해서 어떤 반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 주면, 그 사람에게 직접 찾아가라. 당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당신은 그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다. 이것이 성경적인 방법이다(마 5:23-24). 육신적인 방법은 응수하는 것이다—즉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다.
9. 결코 주안에 있는 형제를 배반하거나 실망시켜서는 안된다. 요셉은 그의 형제들에 의해서 배반을 당했다. 모세는 그의 동료 이스라엘에 의해서 낙담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친구의 집에서 돌아가셨다; 배반 당하시고, 부인되시고, 가장 가까웠던 이들에 의해서 버림을 받으셨다. 우리 모두는 세상의 꾀박 때문에 낙담하지 않는다. 그러나 “형제”

의 무관심에 의해서 실망할 때는 많다. 만약 사람이 죄 가운데서 살고 있다면 교회가 그를 책망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너무 자주,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타인들의 흠만 찾곤 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모든 것에서 잘못만을 찾는다. 보통 그런 이들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면서, 죄스럽게 느끼거나 시기하는 자들이다. 그는 자신만이 할 수 있고 다른 이들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끊임없는 험담이나,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태도, 혹은 일하지 않으려는 게으름으로 성도들을 낙담시키지 말라. 반대로, “예수님이 가깝습니다”라는 말로 서로 격려하라(살전 4:18).

10. 더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라. 만약 당신이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면, 당신이 처한 상황에 계속 충실하라. 직업이나, 스타일 혹은 세상의 부에 마음을 두지 말라. “어떠한 형평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빌 4:11).
11. “아무도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엡 5:6).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좇음이요 그리스도를 좇음이 아니니라”(골 2:8). 여러분들이 듣게 되는 대화들에 주의하라. 이러한 이유로, 여러 교회와 기도 모임들과 그리고 부흥회를 다니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어떤 이들은 너무 많은 모임들과 부흥회를 다닌 나머지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는 혼란에 빠지기도 한다. 또한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라.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설교자가 자신의 생각이나 인간의 전통을 가르치는 사실을 모르고 속아넘어간다. 특히 새 신자나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속기가 쉽다. 속지 말라.
12. “내가 예수님의 당시에 살았다면..”혹은 “바울의 동시대에 살았다면..”이라고 말하지 말라.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당신이 그 당시의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생

각하게 하는가? 그 당시,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다. 대중은 그분을 사랑하지 않았으나, 그의 기적과 축복을 인해서 그분을 따랐었다. 바울은 그가 세운 거의 모든 교회들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그가 자신의 약속을 어겼다느니, 그가 몸도 약하면서 편지로 그들을 겁주려 했다느니, 그가 말재주가 없다느니 말하곤 했다. 그들은 바울의 사도적인 권위를 의심했고 심지어는 그가 헌금을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대해 의문을 던졌다. 이것이 어떻게 들리는가? 사람들은 항상 이웃집의 잔디가 더 푸르다고 생각한다(남의 떡이 크다고 생각한다-역사 柱). 사실상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가장 위대한 시기이다. 역사의 어느 시점보다도 더 많은 이들이 성령을 받았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모든 이들에게 부흥을 허락하신다. 만약 당신이 오늘날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원치 않는다면, 당신은 예수님이 당신에게 직접 설교를 하신다고 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만약 당신이 오늘날 교회의 권위를 의심하고 반항한다면, 당신은 바울이 당신 교회의 목사였다고 해도 똑같은 일을 행했을 것이다. 만약 당신이 오늘날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면, 당신은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와 당신을 설득하려 한다면도 듣지 않을 것이다(눅 16:29-31).

13. “환란 날에 진실치 못한 자를 의뢰하는 의뢰는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밭 같으니라”(잠 25:19). 당신이 꼭 필요할 때, 그들은 사라질 것이다. 당신이 거의 예상하지 못했을 때, 그것은 큰 고통을 안길 것이다. 그런데 환란의 때에, 왜 주께 가지 않는가? 때때로 당신이 가장 친한 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당신을 실망시킬 수 있다. 때때로는 당신이 모든 비밀을 털어놓는 사람도 다른 이들에게 말할 지도 모른다. 그리고 당신의 개인 사업에 관한 비밀들이 교회나 학교 혹은 다른 조직을 통해서 새나갈 수 있다. 당신의 문제를 다른 이와 상의하기보다는, 주께 의뢰하라.

14. 거룩함의 열쇠가 되는 사실을 기억하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자는 성음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잠 25:28). 고대에는, 벽이 없는 성읍은 방어책이 없는 도시였다. 마찬가지로, 자기 절제가 없는 사람은 그의 영혼을 지킬 벽이 없는 것과 같다. 우리는 모든 사상과 모든 이론을 파악 능력이 있다(고후 10:5). 만약 당신이 “그것이 나인걸”이라고 말하며 핑계를 댄다면, 사실상 당신이 말하고 있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당신을 보호할 벽이 무너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15.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바랄 것이요”(잠 22:1). 당신의 명예는 당신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당신의 교회를 위해서도 중요한 것이다. 당신은 예수라는 가족이름을 얻었다. 만약 당신이 진정한 신자라면, 당신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오, 저 사람은 남의 말을 너무 많이 해”, “그는 과장이 심해” 혹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믿을 수가 없어요”. 만약 타인이 당신을 위선자라 생각한다면 문제는 더 심각한 것이다. 이것은 신자와 불신자들 모두에게 거치는 반석이 될 수 있다. 사람들이 당신의 이름을 들을 때 무엇을 떠올릴 것인가? 당신의 이름이 반항이나 교만, 세상적인 것이나 문제의 근원, 수군거림이나 남의 말을 하는 것 같은 행동을 떠올리게 하지는 않는가? 혹은 사람들이 당신의 이름을 들을 때, 신실함과 성실함, 정직함과 영성 그리고 진실함을 떠올릴 것인가? 명예는 중요하다. 우리의 개인적인 이름과 주의 이름이 비난받지 않도록 주의하자.
16.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벧전 5:6). 겸손함은 우리가 노력해서 성취해야 할 덕목이다. 겸손함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다. 겸손함은 교만하지 않다.

겸손함은 타인들보다 더 나은 체 하지 않으며 그렇게 보이기 위해 노력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지도 않는다. 겸손함은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이들을 끌어내리지도 않는다. 겸손함은 타인의 직업이나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들을 비판하지도 않는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사를 주셨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라. 우리는 한 경기를 치르고 있다. 그리고 이 경기를 끝마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것이다. 이기기 위해서 타인을 속이거나 뒤로 끌어당길 필요는 없다. 우리는 모두 승리자가 될 수 있다.

17. 잠언 6:16-19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싫어하시는 7가지의 예를 들기 위해 시간을 들였다. 우리는 그것들을 생각해 보고 심지어는 기억하기 위해 시간을 들여야 한다. “여호와와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욕 칠 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이러한 것들은 앞장들에서 다른 것들이나 다시 지지시킬 가치가 있다. 만약 당신이 이것들 중의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가증한 것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계 21:8, 27).
18. 당신의 확신을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 지니라”(롬 14:5). 우리는 어떤 이들이나 기관이 그것을 가르친다고 해서 그것을 하지는 않는다. 배울 수 있는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경험자들의 말을 청종하라. 아무튼, 당신은 스스로 성경을 읽어야 하고 당신 스스로 이러한 것들을 깨달아야 한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살전 5:21).

성도들은 자신이 타인의 본이 되는 것 이외에는 결코 다른 이들

에 대해 거룩함에 대해 강요하지 않는다. 목사들이여, 당신의 성도들에게 지혜롭게 하라. 처음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이나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그리고 혹 그들이 어떤 것들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거룩하게 살아갈 능력이 없다. 그들이 자랄 수 있는 것 이상을 한꺼번에 요구하지 말라. 그들은 인도하되, 그들이 점차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을 생각하라. 그들이 스스로의 확신을 가질 시간을 주고 또 거룩함의 원칙들에 대하여 이해할 시간을 주라. 그들에게 규칙을 세우려 해서는 안된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로서 가르치고, 영적인 분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키도록 유도하라. 오늘날에는, 하나님께 나아오는 많은 이들이 깊은 죄 가운데에 있어서, 그들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인도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 당신의 목적은 그들이 거룩함의 원칙들을 이해함으로써 스스로 생각하고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고 자신의 확신을 기를 수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만약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들이 어떤 가르침의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결코 가르침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그들에게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얻은 성숙한 확신을 가르쳐 줌으로서 단번에 그들을 위로하려 하기보다는, 그들이 스스로의 확신을 확립할 수 있도록 가르침과 시간을 허락해줄 일이다.

19. 항상 기억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잠 8:13). 하나님과는 중립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 당신은 그분을 위하지 않으면 거부하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악을 미워한다면, 악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위한 사랑과 악을 미워하는 것은 사탄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방어책이다. 우리가 악을 미워 할 때 그의 모든 계략들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악한 말과, 행동과 모

습은 우리가 악을 미워할 때 모두 사라지게 될 것이다.

20.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문하여 보라. 문자적으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은 자를 말한다. 거룩함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우리는 그분의 인격이 우리의 인격의 자리를 차지하고 그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도록 허락해야 한다(고전 2:16, 빌 2:5). 모든 불확실한 상황에서, 자문해 보라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해도 되는가 안되는가를 묻지 말라. 단지,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할 것인가? 그분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 일을 하실 것인가? 이 일을 하시면서 기뻐하실 것인가? 만약 그분이 여기 있다면 [사실상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좋아하실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 된다.

거룩함의 궁극적인 목표는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다. 우리는 거룩해 질 수 있고 또 거룩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이다(벧전 1:16).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도록” 허용해야 한다(갈 4:19).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엡 4:24).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설 수 있다(골 4:12).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수 있다(엡 4:13).

완전한 거룩함을 추구하는 도전을 받아들이라. 그리스도인-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어라.

성결을 찾아서

영문출판 : 1981년 3월, 7월. 1982년 4월. 1983년 11월.
1985년 7월. 1987년 1월. 1988년 6월.
1990년 1월. 1991년 9월. 1993년 4월.
1994년 9월

1997年 7月 5日 第 1 版 1刷 印刷
1997年 7月 15日 第 1 版 1刷 發行

著 者 L. A. 버나드, 데이빗 버나드
發行人 강 재 구

發 行 處 †423-014 경기도 광명시 광명4동 158-252

圖書出版 **진리와 사랑**

登 錄 제92호(1997. 3. 27)
전 화 (02) 682-0708, 615-1096
FAX (02) 688-7076

定價 6,000 원

보급처 : 대한예수교 연합오순절교회 총회
저자 한국 주소 : †423-017 경기도 광명시 광명7동 306-36
☎ (02) 611-3958, 616-0518



L • A 버나드 (Loretta A. Bernard)

Loretta A. Bernard and her husband, Elton D. Bernard, have resided in Seoul, Korea since 1965. The Bernards are pioneer missionaries of the United Pentecostal Church International to the Republic of Korea, and he is the field superintendent of the work there. They have three children: David, Karen, and Julie. Mrs. Bernard attended Apostolic College in Tulsa, Oklahoma and received a Th.M. from Grace Christian Bible College. She currently teaches at the United Pentecostal Bible College of Korea and conducts seminars.